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백 종 진

2013년 8월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백 종 진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백종진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년 8월

A study on Rock Cliff Carvings in Jeju Region in
Late Joseon Dynasty

Jong-Jin, Baek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e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3.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Rock Cliff Carvings in *Jeju* Region in Late *Joseon* Dynasty

Currently, there are 95 rock cliff carvings identified as those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among the ones distributed in *Jeju* Region.

In *Joseon* Dynasty, Confucian scholars and officials who revered Confucianism and took Confucian ethics as the ultimate means of self-discipline had a custom of traveling to beautiful scenery, and in *Jeju* Region, rock cliff carvings began to be built in *Yongyeon Jeju-mok* by government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mid-17th century. The rock cliff carvings built around the jurisdiction of *Jeju-mok* in the 18th century spread to beautiful scenery in three towns in *Jeju* Island from the middle of the century to the 19th century.

There are 80 Buddhist images in the jurisdiction of *Jeju-mok*, which are 84% of the entire rock cliff carvings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72 of them are located in *Yongyeon*, *Bangseonmun* and *Baengnokdam*: *Yongyeon* and *Bangseonmun* with beautiful scenery are located near the town wall of *Jeju* while in *Baengnokdam*, the climbing of royal secret inspectors and provincial governors to hold liturgy and ritual for rain to noted mountains and large rivers continued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so rock cliff carvings were built in the above three locations.

13 of them are located at *Sanbanggulsa* Grotto in *Daejeong* Prefecture and *Jeongeui* Prefecture where 16 rock cliff carvings are identified, but only a few are located in other areas. Geographical conditions might act on this. Although there are the highly admired sights of *Jeju* such as *Jeongbang* Fall,

Cheonjiyeon and *Cheonjeyeon* in the area, they are distant from the ruling place of the three towns, so they are not places to which provincial governors, the leading exponents of rock cliff carvings could easily equip themselves and set off.

There were only 3 rock cliff carvings in the 17th century, but as there was regular sightseeing of beautiful scenery in *Jeju Region*: for example, one exponent of stone carving left rock cliff carvings in more than two places, a total of 47 rock cliff carvings was built in the 18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Jeyeong* (stone carvings with poems) begins to be built, and rock cliff carvings different from a stone carving related to the records of Governor-general/royal secret inspectors, simple *Jemyeong* (a stone carved with a visitor's name) to inspire Confucian scholars with an academic atmosphere like one in *Jijuam Sanjicheon* or *Jaek* (a named stone carving in a place or rock of the visit) appear. Rock cliff carvings of this type are continuously built in the 19th century. Yet, since the mid-19th century, rock cliff carvings tend to be built only limited to *Jeju-mok* again influenced by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Jeju Region* and repeated riots.

Rock cliff carvings were exclusively led by the *Jeju Governor-general* in the 17th century and they were built by *Jeju Judge*, *Daejeong* and *Jeongui* Prefectural Governors and exiles since the 18th century. In addition, rock cliff carvings were built by influential men as leading exponents in the 19th century. Building the carvings, which had been exclusively built by local officials or exiles since the early Joseon period, settled as a cultural phenomenon in which *Jeju* residents emerged as leading figures in the 19th century.

Through this, the historic values and significances of rock cliff carvings in *Jeju Reg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ock cliff carvings in were the outcomes of the custom of traveling to beautiful scenery, a vogue among noblemen in *Joseon* Dynasty

and the special official duties of the *Jeju* Governor-general equivalent to those of the provincial governors. Second, the rock cliff carvings show an aspect of the ruling system of the time in *Jeju* Region. Third, they also show the composition and size of the persons following the provincial governor appointed to *Jeju*. Fourth, they provide historical materials through which the whereabouts of the persons who had influenced the center and *Jeju* community in the late Joseon period could be traced. Fifth, they reflect the form of politics at the center under faction politics and the reign of potentates in the late *Joseon* period. Sixth, through them, the royal policy of governing the people based on Confucianism. Lastly, they show the process in which the culture of the center flowed in and extended to *Jeju* Region.

In the meantime, for the advancement of the study of local histories, a more detailed study on the military officers whom *Jeju* Governor-general asked the King to bring is necessary. In addition, finding the significances of the rock cliff carvings from the cultural point of view remains a task in the study of those in the *Jeju* Reg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분포와 내용	8
1. 마애석각의 지역별 분포	8
2. 각석 시기와 내용	22
III.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 인물	43
1. 마애석각 조성 主導人物	43
2. 마애석각 제명 隨行人員	59
3. 기타 인물	73
IV. 결론	80
참고문헌	85
부록	90

표 목차

<표 1> 제주목 관내 조선후기 마애석각 분포 현황	10
<표 2> 대정현 관내 조선후기 마애석각 분포 현황	17
<표 3> 정의현 관내 조선후기 마애석각 분포 현황	19
<표 4> 마애석각 조성 제주목사 주요 행적 및 석각 내용 일람	44
<표 5> 마애석각 제명 중 제주목사 수행 판관 일람	59
<표 6> 마애석각 제명 목사·판관 수행 현감 일람	61
<표 7>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제명 군관 분류	64

사진 목차

<사진 1>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도	9
<사진 2> 이피 목사 일행 제명	23
<사진 3> 지주암 제액	26
<사진 4> 홍중징 목사 제영	27
<사진 5> 유혁 목사 사적 각문	30
<사진 6> 정동리 판관 일행 각문	31
<사진 7> 조관빈 사적 각문	33
<사진 8> 조영순 사적 각문	33
<사진 9> 조정철 목사 사적 각문	33
<사진 10> 증주벽립·광풍대 석각	34
<사진 11> 절부암 각문	35
<사진 12> 원상요 현감 제영	37
<사진 13> 여철영·한길모 현감 제명	38
<사진 14> 김종보 일행 제명	38
<사진 15> 영천 각자	39
<사진 16> 심현택 목사 제명	40
<사진 17> 풍영록 제명	41
<사진 18> 조우석 목사 일행 제명	42
<사진 19> 안치범 제명	58
<사진 20> 안경운 목사 일행 제명	66
<사진 21> 김양수 제명	72
<사진 22> 심낙수 어사 사적 각문과 남수 현감 제명	74
<사진 23> 김정·이익 제명	75
<사진 24> 최익현 제명	76

<부록>

<별표-1> 17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	90
<별표-2> 18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	91
<별표-3> 19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	94

I. 서론

1. 선행연구 검토

제주지역 磨崖石刻은 근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와 제주시 외도동 경계에서 발견된 岩刻畫¹⁾를 제외하면 모두 글자를 새겨 넣은 刻字이며, 현존하는 조선시대 마애석각은 제주시 용연에 행서체로 새겨진 翠屏潭 각자와 서귀포시 효돈천에 해서체로 새겨진 觀儼岩 각자를 제외하고는 17세기 이후에 새겨진 것으로 판단된다.²⁾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에 대한 논문은 1910년 일본인이 徐市過之 각자를 소재로 하여 쓴 2편의 논문 외에는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다.³⁾ 다만 1978

- 1)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김중찬,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에 대한 일고찰」, 『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13.
- 2) 관나암 마애석각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맞은편 上孝橋 아래로 500m 정도 거리 효돈천 서쪽 냇가에 소재한다. 觀儼岩 刻字가 새겨진 바위 뒤편으로 1466년(세조 16년) 李由義 목사에 의해 驛院과 点馬所의 역할을 했던 靈泉館이 세워졌고 건너편에 靈泉寺가 있었다(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樓亭條). 관나암 각자는 가로세로 10cm 정도의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관나암 각자의 儼는 儼禮를 뜻한다. 본래 나례는 민가와 궁중에서 음력 선달 그믐날에 목은해의 마귀와 사신을 쫓아내려고 베푸던 의식으로 행하다가 차츰 중국 칙사의 영접, 왕의 行幸, 因山 때에도 행하였다(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한박물』, 푸른역사, 2009, 295쪽).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양대 행사인 팔관회와 연등회가 폐지되고 연말의 나례 의식만 남게 되자, 나례 의식에 산대회 계통의 놀이들이 집결되어 매년 성대한 공연 행사를 벌이곤 했다(손태도, 「전통 사회 지방의 산대회, 나례회와 그에 따른 현장」, 『역사민속학』 1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191쪽). 그런데 영천사 맞은편에 이유의 목사 때 설치한 영천관이 있었고, 여기에서 정기적인 목사의 점마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다면, 이곳에서 행해졌던 나례는 일반적으로 季冬에 辟邪를 행하였던 驅儼의 의미로서의 나례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행해졌던 영조의시의 길례로의 나례를 의미한다(윤아영, 「영조의(迎詔儀)시 도상 나례(途上 儼禮)의 침입과정 및 성격에 관한 연구」, 『韓國音樂研究』 第50輯, 한국국악학회, 2011) 할 것이다. 또한 관나암 각자가 영천사의 승이 새겼다는 사실(李源祚, 『耽羅誌草本』 卷4, 旌義, 山川條, ‘靈泉川 在縣西五十五里 川邊大石上 有觀儼巖三字 在昔 靈泉寺僧 所刻云’)에 비추어 봤을 때, 목사의 점마나 어사의 순력 시에 영천사 승들이 이들을 맞이하여 영천사 마당에 綵棚을 꾸미고 山臺를 설치하여 가무[僧舞]와 연주[梵唄]로써 이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을 것이다. 관나암은 이러한 나례를 관람하던 장소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나암 마애석각 조성시기를 영천관이 한창 번성했던 15~6세기로 추정하였다.
- 3) 塚原熹가 「濟州道に在る秦徐福の遺蹟考」(『朝鮮』 6, 朝鮮總督府 京城朝鮮雜誌社, 1910)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淺見倫太郎이 塚原熹의 글을 論評하는 「濟州道に在る徐福の石壁文字」(『朝鮮』 25, 朝鮮總督府 京城朝鮮雜誌社, 1910)를 발표하였다. 이 두 논문에 대한 개요가 홍순만에 의해 소개되었다. 홍순만에 의하면 塚原熹는 서울의 고서점에서 발견된 탁본 1점이 서불이 제주도 해안에 새겨놓은 석벽문자라고 주장한다. 1906년 9월에 작성된 夢人 丁鶴喬의 題辭를 근거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당시 해안의 바위에서 탁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淺見倫太郎은 서불 관련 제주도 석벽문자에 대해 그 眞僞에 대한 懷疑를 나타내고 있다(洪淳晩, 「徐福研究에 관한 概說」, 『正房瀑布徐福遺蹟調査報告書』, 耕信印刷社, 1992,

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매주 1회 洪淳晩이 제주신문에 「碑」를 연재하면서 4회에 걸쳐 제주지역의 주요 마애석각을 소개한 것이 일반인의 관심을 끌게 된 始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89년 李榮培와 1999년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가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현행복은 제주시 소재 방선문과 용연의 마애석각에 대해 2004년과 2006년에 조사한 내용을 각각 단권으로 출간하였다.

홍순만은 4회에 걸친 신문지상의 연재를 통해 제주지역에 한라산의 백록담을 비롯하여 제주시 관내의 방선문, 탐라계곡, 오라동 속칭 ‘가카우니’, 오현단, 조설대, 용연과 서귀포시 관내의 창천계곡(창고천),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등 11곳에 마애석각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혔다.⁴⁾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대한 최초의 정리 작업으로서 홍순만은 마애석각의 판독과 개체수의 파악보다는 題名⁵⁾된 이들의 제주에서의 행적이 주요 관심사였다. 즉, 백록담, 용연, 방선문 등 대표적 분포지에 새겨진 주요 목사와 판관, 어사, 적객 등 40여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 중 金淨 李瀼 趙觀彬 任觀周 趙榮順 尹相和 등의 제주 유배인과 순무어사 沈樂洙, 제주목사 李禴 李養鼎 趙義純 등 10여명에 대한 제주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홍순만은 이 과정에서 제주시 아라동 속칭 ‘가카우니’에서 초서체로 陽刻된 半仙과 행서체로 陰刻된 靈泉 등의 각자와 탐라계곡의 隱仙洞 각자를 새롭게 발굴하였다. 이에 더하여 半仙과 靈泉 각자는 제주 출신의 鄉士 李基璠(1834-1886)이 秋史 金正禧가 제주도 유배시절 그에게 받아두었던 墨跡을 새겨놓은 것이라는 고증을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홍순만은 산방굴사를 제외한 제주지역 마애석각 주요 분포지에 대한 개

49-54쪽). 한편, 世間에 秦나라의 方士인 서불이 서귀포시 정방폭포 절벽에 徐市過之(서불과지) 또는 徐市過此라는 글자를 刻하고 돌아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서불 관련 제주지역 최초의 문헌기록은 金錫翼(1885-1956)의 「破閑錄」에 기술된 내용이다. 여기에서 김석익은 서불이 서귀포 해안 가파른 절벽 중간에 글씨를 새겼는데 고종 때의 제주목사 白樂淵(1828-?)이 순행하던 중 사람을 시켜 蝸蝸體 모양의 글자 12자를 탁본하여 왔다(西歸浦沿邊 有峭壁 不啻數千仞 下臨滄海鯨濤洶湧 世傳 壁半 有秦方士徐市所刻字痕云 先是牧使白樂淵巡行到此 人以此說告之 遂命自壁上以長繩縋一人 下垂引之 摸其字跡而還 蓋字體如科斗 雕虫者 凡十二個字 而不可解得云)는 세간의 구전을 기록하고 있다.

4) 홍순만, 「碑」 33-35-36-37회(연재), 『제주신문』, 1978년 12월 15일·1979년 1월 5일·11일·27일.

5) 본고에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마애석각에 새겨진 刻字를 성격에 따라 題名·題詠·題額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題名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 題詠은 시를 새겨 넣은 것, 題額은 장소나 암석에 命名하여 새겨 넣은 것을 뜻한다.

략적인 소개와 함께 마애석각 제명에 드러난 주요 역사적 인물들을 신문지상에 소개함으로써 당시 일반인에게 생소한 마애석각의 존재를 알리고 그 가치를 재고시켰다 하겠다.

이영배는 1989년에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분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⁶⁾ 이를 위해 분포지별로 판독한 각자를 방문시기와 동행한 집단별로 정리하여 분포지별 마애석각의 개체수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배가 조사한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지는 訪仙門, 龍淵, 漢拏山(백록담), 山房窟寺, 正房瀑布, 五賢壇, 天帝淵, 安德溪谷(창고천), 節婦岩, 朝雪臺, 納邑錦山公園 등 11곳에 이른다. 또한 방선문, 용연, 백록담, 산방굴사인 경우 그림을 그리고 번호를 붙여 마애석각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 결과 방선문의 마애석각 개체수를 45, 용연 18, 한라산(백록담) 18, 산방굴사 13, 정방폭포 2, 오현단 2, 천제연 1, 안덕계곡(창고천) 1, 절부암 2, 조설대 5, 남읍금산공원 2 등 총 109로 보고하였다.

이영배의 조사는 앞의 홍순만의 조사지와 비교하면 추가된 곳과 누락된 곳이 상호 존재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포지 각각에 소재하는 마애석각들의 刻字를 판독하고 활자화하여 제주지역 마애석각을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단, 植字과정에서 판독의 正誤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탁본 등의 자료와 題詠 등에 대한 번역, 제명된 인물의 고찰과 刻文의 내용 분석 등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애석각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성격을 규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⁷⁾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의 조사보고서⁸⁾는 앞의 이영배의 조사지역 외에 제주시 관내 오라천의 族感石, 무수천의 葆光泉, 김녕리 禁耕山과 서귀포시 관내 효돈천의 觀儼岩, 남원읍 위미리의 경계석, 성산읍 신천리 해안의 八雲石 등의

6)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대한 小考(朝鮮中期 以後 中心으로)」, 『調査研究報告書』 제4집,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89.

7) 이영배는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발생 시기를 1600년대에서 1910년까지 것으로 규정하고, 마애석각이 발생하는 동기를 ①牧使나 判官들이 六房官屬과 妓女들을 데리고 宴會를 베풀거나 自然景勝을 探勝한 다음 記念한 石刻, ②流配人들이 配所에서 풀려나 自由로운 몸으로 景觀을 探勝하여 남긴 石刻, ③節婦의 讖을 기리거나 韓日合邦과 相關한 石刻, ④후세교육의 귀감으로 삼고자한 석각들로 분류하였다.

8)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濟州道 磨崖銘』, 1999.

석각이 추가로 조사되어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지를 총 17곳⁹⁾으로 기록하였다.

분포지별 마애석각 개체수는 제주시 관내는 오현단 2, 용연 7, 방선문 56, 오라천 1, 백록담 7, 탐라계곡 2, 용수리 1, 납읍리 금산공원 1, 광령리 1, 김녕리 1이며 서귀포시 관내는 효돈천 1, 정방폭포 2, 천제연 1, 산방굴사 9, 창천리(창고천) 1, 위미리 1, 신천리 1 등 총 95이다.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의 조사는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진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탁본을 통해 刻字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刻字 判讀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 결과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주요 刻字에 있어 이전 조사에서 나타났던 판독의 오류와 개체수 파악에 대한 오류를 상당수 바로 잡았다. 또한 방선문과 용연의 金永綬 목사의 題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영을 脫草하여 풀이함으로써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새겨진 제영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한 각자들을 분포지별로 題額, 題詠, 題名 등으로 분류하고 각자가 새겨지게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한 역사적 해설을 시도하였다.

현행복의 방선문과 용연에 대한 조사¹⁰⁾는 이전 방선문과 용연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암면을 더욱 세밀히 살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刻字들을 찾아내어 일일이 활자화하여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방선문에 제명된 인물 중 목사 24인과 판관 11인, 대정·정의현감 4인, 기타 2인, 단체 3곳에 대해, 용연에서는 목사 13인에 대한 주요 행적을 문헌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용연에 있어서는 전설과 민요, 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소개함으로써 마애석각이 집중 분포하는 용연과 방선문을 조선시대 유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현행복의 조사기록은 무엇보다도 마애석각과 함께 석각이 확인되는 장소에 대한 문화적 활용의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외에도 2010년 백종진은 방선문과 용연의 제영 총 17수에 대한 새로운 판독과 풀이 결과를 발표하였다.¹¹⁾ 여기에서 백종진은 기존 1수의 배율과 1수의 절구

9) 조사보고서에는 백록담과 탐라계곡을 하나의 조사지역으로 포괄하여 한라산 항목에 넣었지만, 본고에서의 논의 전개상 조사지역을 백록담과 탐라계곡으로 구분하였다.

10) 현행복, 『訪仙門』, 각, 2004; 현행복, 『翠屏潭』, 각, 2006.

11) 백종진, 「방선문 마애명」, 『제주문화원보』 제2호, 제주문화원, 2010, 7면; 백종진, 「용연의 마애명」, 『제주문화원보』 제4호, 제주문화원, 2010, 7면.

로 오인되고 있던 용연 소재 김영수 목사의 제영이 5언 율시 2수와 7언 절구 1수가 새겨진 것으로 판독하여 풀이하였다. 또한 방선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던 金緻 판관의 제영을 행적미상의 金衡秀의 제영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2013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¹²⁾는 마애석각에 대한 기존 자료를 토대로 백록담과 탐라계곡, 방선문을 현장 검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조선시대 이래 조성된 마애석각이 발견되는 분포지가 총 18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조사자마다 해당 분포지별 마애석각의 개체수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분포지의 증감은 각 선행연구자들의 조사당시 여건에 따른 가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개체수의 상이함은 선행연구자들 대부분이 마애석각의 개체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刻字가 새겨진 巖面을 기준으로 개체수를 분류하였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마애석각 조성 主導人物인 목사나 현감, 판관 등과 隨行人員과의 관계, 수행했던 이들의 인적 구성요소 등에 대한 분석적,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서 산출된 마애석각의 개체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자들은 제주를 仙境으로 인식한 제주목사 등 지방관과 제주 유배인들이 남긴 자취로 마애석각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제주지역 마애석각이 제주만의 특수성을 지닌 문화자산이라는 성급한 평가와 함께 목민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고 유람이나 즐기던 飲酒歌舞의 자취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금석문을 포함한 金石遺物은 歷史·藝術·文學 등 각 방면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자료로서 학술적인 연구대상¹³⁾임에

12) 고윤정 외, 「한라산의 마애명(磨崖銘)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제12호, 2013.

13) 趙東元, 「金石文의 歷史와 資料的 價値」, 『대동문화연구』 권55, 대동문화연구원, 2006, 26-27쪽.

도 불구하고 수백 년을 거치면서 조성된 제주지역 마애석각을 역사적 자료로써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조사결과가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모두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고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역사 자료로서의 의미를 간과해버린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첫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을 대상으로 그것의 지역적 분포 양상과 시기별 조성 유형을 고찰하고 둘째, 마애석각 제명 인물과 조성 관련 인물에 대한 제주에서의 행적을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에 조성된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역사적 자료로써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분포양상과 내용을 제주목·대정현·정의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마애석각이 확인되는 지역별 개별 분포지에 대한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곳의 지리적 조건 및 문헌에 보이는 옛 사람들의 기록을, 2절에서는 마애석각을 조성 시기별로 분류하여 그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마애석각 제명 인물과 조성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각종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현직관료와 유배인·제주출신 인물, 2절에서는 수행인원으로서의 현직관료와 군관 및 제주출신 인물, 3절에서는 기타인물로 어사·유배인·절부의 주요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은 17세기 이후 조성된 마애석각이 사료로써 조선후기 제주사회를 어떻게 조명해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하나의 史學的 試論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석문의 한 부분으로 마애석각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의 서예사적, 문화사적 논의는 논외로 하고 역사적 자료로써의 가능성과 의의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마애석각이라는 점에서 刻字 판독은 본고의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각자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 자료를 기초로 현장답사를 통해 기존자료를 현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진작업과 함께 필요에 따라 탁본을 하였다. 정방폭포인 경우 접근이 불가하여 기존 선행연구자료¹⁴⁾를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刻字 간 書體나 字形의 유

사성, 글자 크기, 題名 인물의 역사기록 등 일련의 비교·검토 과정을 통해 연대 미상이나 행적미상으로 처리되어졌던 題名者들을 각각의 집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시기별 마애석각 분포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포표는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었고, 이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말하는 조선후기란 17세기 이후 19세기말까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14)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앞의 책, 141쪽.

II.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분포와 내용

1. 마애석각의 지역별 분포

고려시대 13세기를 전후해서 林椿과 李仁老, 李奎報가 활동하던 시대에서 처음 보이는 山水 遊覽의 기록은 고려 후기 신홍사대부들의 등장과 함께 그 양이 많아지고, 조선조에 들어 遊山의 범위 확대와 함께 동일한 곳을 두고 여러 명의 문인들이 동시에 기록을 남기게 된다.¹⁵⁾ 조선시대 이러한 유산관행의 성행은 朱子의 武夷九曲 행적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心身修養의 한 방식으로 유산이 인식되어진 것¹⁶⁾에 기인한다 하겠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것 중 하나가 바위나 누정에 題名하는 것이었는데¹⁷⁾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수려한 경관과 함께 호사가들에 의해 三神山의 하나인 瀛洲山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라산이 존재¹⁸⁾하는 제주는 조선시대 이래 제주 3읍의 수령, 관관 등의 관료와 제주출신의 유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제주에 유배 왔던 謫客들의 마애석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은 전체 95件¹⁹⁾으로 대부분 특정장소에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목 관내에는 訪仙門과 龍淵, 白鹿潭 등이 주요 장소이다. 이외에 五賢壇과 耽羅溪谷, 山地川, 節婦巖 등에도 소

15) 李鍾默, 「遊山の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藏書閣本 『臥遊錄』과 奎章閣本 『臥遊錄』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第12輯, 1997, 387쪽.

16) 위의 논문, 389-390쪽.

17)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009, 2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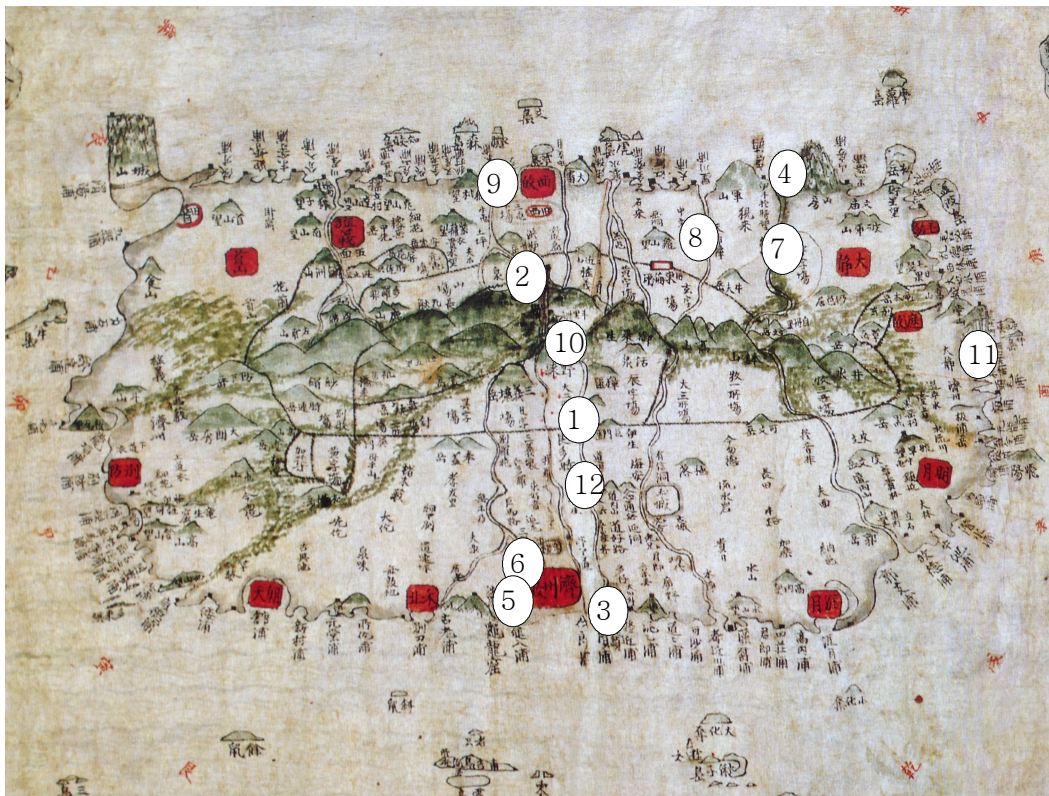
18) 南九明, 『寓庵先生文集』 卷4, 說, 神山說, ‘世俗傳 漢拏山爲三神之一 蓋州號嘗稱東瀛洲 旌義界有山 不甚高者 名瀛洲山 以此好事者傳會爲眞瀛洲 …’.

19) 금석문의 한 종류로써 마애석각의 수를 헤아리는 단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단위를 임의로 件으로 처리하였다. 件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특정한 일이나 사건’으로서의 정의와 ‘사건, 서류, 안건 따위를 세는 단위’로서의 정의가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마애석각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새겨놓은 석각을 지칭한다. 즉, ‘조선후기 제주라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磨崖와 巖石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의 의미로 마애석각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시기별 마애석각 분포표를 작성함에 있어 2인 이상 聯名으로 새겨진 경우에는 연명자 중 목사나 관관 등 석각 조성을 주도한 인물을 주제로 하여 1件으로 처리하였다.

수의 마애석각이 분포한다. 대정현 관내에는 山房窟寺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倉庫川과 天帝淵에도 소수 분포한다. 정의현 관내는 正房瀑布 한 곳이다.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새겨진 마애석각은 방문자의 이름을 새긴 題名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시를 지어 새긴 것, 풍광에 맞게 장소나 암석의 이름을 命名한 것, 事跡을 전하기 위한 것, 旌閭를 대신하여 새긴 것 등이 있다. 석각 題名인물에는 수령과 그의 수행인원이 대부분이며 유배인과 제주인이 소수 확인된다.

본 절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양상을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지역으로 나누어 마애석각의 분포 실태와 함께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분포지의 인문지리적 특징 등을 아울러 고찰하고자 한다.



<사진 1>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도

- ①방선문 ②백록담 ③용연 ④산방굴사 ⑤산지천 ⑥오현단 ⑦창고천 ⑧천제연
⑨정방폭포 ⑩탐라계곡 ⑪용수리 절부암 ⑫오라동 ‘가카우니’

1) 제주목 관내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전체 95건 중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의 개체수는 80건으로 전체대비 84%에 해당한다. 조선후기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 중 刻文에 직접 새겨진 干支 이외에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선후기로 造成時期²⁰⁾를 확인할 수 있는 마애석각의 분포 실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주목 관내 조선후기 마애석각 분포 현황

계(件)	방선문	백록담	용연	산지천	오현단	오라동 가카우니	탐라계곡	용수리 절부암
80	34	19	19	3	2	1	1	1

<표 1>을 보면 제주목 관내 마애석각이 경치가 수려한 방선문과 백록담, 용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곳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이 제주목 관내 전체 마애석각 개체수의 90%를 차지한다.

주요 분포지인 방선문과 백록담, 용연은 조선시대 이래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집중적인 마애석각이 분포하는 것은 조선시대 성행했던 사대부들의 遊山慣行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에서의 題名관행이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방선문은 현 제주시 오라2동 관내 오등동 소재로, 탐라계곡에서 발원한 한천[大川]이 용연으로 흘러드는 중간부분에 해당한다. 방선문에 대한 문헌기록은 숙종 때 제주목사 李益泰가 남긴 『知瀛錄』에 처음 보인다. 그는 1695년(숙종 21) 8월 19일 한라산을 두 번째로 오르다가 일기불순으로 중간에서 하산하였다. 하산도중 잠시 방선문에 머물면서 그곳의 풍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두 갈래 계곡이 모여 합쳐져 북쪽으로 흐르는데 경치가 맑끔하였다. 하나의 커다란 암석이 언덕에서 이어져 옆으로 누웠는데 골 입구의 가운데가 통하여 큰 구멍이 마치

20) 본고에서 제시하는 造成時期의 근거는 대부분 刻文의 末尾에 새겨져 있는 干支에 근거한 것이다. 즉, 題名이나 題詠 등에서 밝힌 石刻 조성시기는 題名者의 방문시기를 의미하며 방문시기와 조성시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문과 같았다. 진달래와 단풍 등 꽃나무들이 좌우 푸르른 벼랑에 번갈아 줄을 지었는데, 봄·가을에 놀러와 구경하기에 가장 적당하다.²¹⁾

이어서 현종 때 제주목사 李源祚 또한 그의 저술 『耽羅錄』에서 한라산 등정길에 방선문을 거쳐 갔음을 밝히고 있다.²²⁾ 그리고 瀛洲 10景을 品題하면서 방선문을 瀛邱賞花의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²³⁾ 결국 문헌상 이익태 이래로 방선문이 한라산 등정과 하산 시에 들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봄·가을 유람에 가장 적당한 探勝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지로서의 방선문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조천리의 鄉士 李漢雨(1823-1881)가 영주 10경 중 제3경으로 品題하면서 현재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²⁴⁾ 방선문은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암절 또한 해안의 다공질 현무암과 달리 단단하고 매끄러워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마애석각이 전하고 있다.

한편 이익태는 방선문을 擧巖谷이라 칭하면서 俗名인 ‘들림괴’를 한글로 併記하고 있다.²⁵⁾ 이후 영조 때의 제주목사 金倣은 穿弄串으로²⁶⁾, 현종 때 제주목사 이원조는 登瀛邱로 소개하고 있다.²⁷⁾ 이를 통해 방선문이 19세기 중반까지는 들림괴로 불렸고, 한자어로는 거암곡, 천룡곶, 등영구 등으로 借訓 또는 借音되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들림괴가 방선문으로 併用되어 불리기 시작한 것은 정조 때 제주목사 尹得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⁸⁾

방선문 마애석각 중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조선후기 34건의 석각 중 방문자의 이름만을 새긴 題名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이중 單名으로 방문 주체의

21) 李益泰, 『知瀛錄』, 乙亥(1695) 8월 19日條, ‘十九日…雙溪會合北流 泉石清潔 有一大岩 連崖橫截 谷口中通 大穴如門 擲躑躅樹等花卉 交列於左右蒼壁之岸 最宜於春秋遊觀 …’.

22) 이원조의 『耽羅錄』에 등재된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추분 다음날 제주유생 金英樂과 막료 3인과 아들 鼎相과 함께 한라산 등정길에 올라 竹星村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했다. 竹星村은 현재의 제주시 오라동을 이르는 말로 아직도 마다시라고 부른다(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43쪽, 주 94). 이원조와 동행인물의 이름과 干支가 새겨진 刻字가 방선문에 있다(부록 <별표-3> 19번 참조).

23) 李源祚, 『耽羅錄』上, 辛丑(1841) 1월 2日條, ‘瀛洲十景題畫屏…廣闊幽深境不齊 就中奇絕卽山溪 春風隨入飛仙窟 躑躅花前海鳥啼 瀛邱賞花 …’.

24) 김치완은 이한진의 영주십경 품제 배경을 조선유학자들의 遊山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였다(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낙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제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25)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8월 19日條, ‘十九日 更欲登覽漢拏上峯 凌晨促行 單騎馳至中臺 陰雲四塞 還下擧巖谷俗名들림괴 …’.

26) 金倣 著, 金益洙 譯, 『蘆峰文集』 卷1, 詩集, 濟州文化院, 2001, 308쪽.

27) 李源祚, 『耽羅志草本』 卷2, 濟州, 形勝條.

28) 본장 2절의 ‘2) 18세기 마애석각’ 참조.

이름만 홀로 새겨놓은 석각은 8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각자는 19건이다. 다음으로 방문자의 이름과 함께 시를 새겨놓은 題詠이 4건²⁹⁾, 제액·제영·제명을 아울러 새겨 놓은 석각이 3건이다.

백록담은 현재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토평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제작된 옛 지도³⁰⁾에는 백록담의 경계가 현대지도처럼 명확하게 구획되어있지 않다. 성종 때 제주목사 李約東이 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산천단에 漢拏山神廟을 창건하여 이곳에서 한라산신제를 봉행³¹⁾할 때까지 조선왕조 개국 이래로 목사의 주 제 하에 백록담 북벽에서 한라산신제를 지속적으로 지냈음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³²⁾ 제주목에서 이곳 북벽에서 한라산신께 기우제를 드렸음³³⁾을 감안하면 백록담은 제주목의 관할구역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지리서와 읍지류에 있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山川條의 한라산 항목에 백록담에 대해 ‘산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 5월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는 간단한 해설이 보이며, 이후 효종 때 李元鎮의 『耽羅志』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외에 현종 때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는 앞서 기술한 내용 외에 춘분과 추분에 백록담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다는 기사를 추가로 등재하고 있다.

한편, 숙종 때의 제주목사 이익태는 탐라 10경의 하나로 백록담을 꼽고 있다.³⁴⁾ 쉬이 오를 수 없는 곳이지만 조선시대 이래 名山大川에 대한 典禮와 기우제 등을 지내기 위해 지방관 이하 수행인원 등 사람들의 자취가 꾸준히 이어져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白鹿과 神仙의 전설³⁵⁾이

29) 개체수를 파악함에 있어 다른 암면에 새겨져 있더라도 동행인물로 판단된 경우 1건으로 처리했으나, 題詠의 경우 동행인물이라 하더라도 각각 1건씩 별도로 처리했다.

30) 현존하는 제주도의 고지도는 18세기와 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689년-1703년 제작 추정된 ‘여지도의 제주도도’가 있으며, 이후 18세기 초 ‘광여도의 제주도도’, ‘탐라순력도’를 비롯하여 1899년에 제작된 ‘제주도지도’, ‘대정군지도’, ‘정의군지도’에 이르기까지 총 13종의 고지도가 전한다(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濟州의 옛地圖』, 日新書社印刷社, 1996, 127-128쪽 참조).

31) 李源祚, 앞의 책, 濟州, 壇廟條.

32) 『太宗實錄』卷35, 太宗 18年 4月, 辛卯條, ‘漢拏祭 依羅州錦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 『世宗實錄』卷46, 世宗 11年11月 癸丑條, ‘禮曹啓 言者以爲 前此京外祭享靈驗處 革除不祀 未便 願自今訪問山川奇巖龍穴 寺社等靈驗處 設祭室及位版 每四仲吉日 遣使行禮 命議之 卞季良以爲 … 濟州漢拏山 … 從之’.

33) 金尙憲, 『南槎錄』, 『淸陰先生遺集』卷2, 辛丑(1601) 9月 25日 戊午條, ‘潭之北隅有壇 本州常時祈雨處也’.

34)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耽羅十景圖序 … 白鹿潭’.

35) 李元鎮, 『耽羅志』, 濟州, 題詠, ‘金綴遊漢拏山記 … 洞裏 有白鹿 好食瀛洲草 往往人或見之 此實神仙所居之地也 …’; 李源朝, 『耽羅誌草本』卷2, 濟州, 形勝, ‘白鹿潭 在漢拏山絕頂 諺傳 郡仙飲白鹿於此 故名 …’.

더해져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 등정을 목표로 한 기행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게 된다.

현재 전하는 최초의 등정기록은 林悌(1549-1587)가 1578년(선조 11) 2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등정기록을 기록한 등정기가 「南溟小乘」에 전한다. 이후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로 다녀간 金尙憲, 1609년(광해군 1) 제주관관 金緻,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李衡祥, 1841년(헌종 7) 李源祚, 1875년(고종 12) 해배인 崔益鉉 등의 등정기가 지속된다. 조선시대 내내 이뤄진 한라산 등정은 결국 마애석각이 오래전부터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김치의 「遊漢拏山記」에 ‘又掃石題名以記勝跡’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題名이란 붓으로 돌 위에 이름을 쓰거나 이름을 새긴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17세기 초반에 이미 遊山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바위나 암벽에 썩을 하는 행위가 제주에도 來島人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록담의 마애석각은 동벽에 대부분 집중되어 분포하며 북벽과 동벽, 북벽과 서벽 사이에도 소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중 조선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19건의 석각 중 방문자의 이름을 새긴 題名이 13건으로 가장 많다. 제명 중 單名으로 새겨진 석각은 5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것은 8건이다. 다음으로 이름과 함께 事蹟을 새겨놓은 것이 4건, 題詠을 새겨 넣은 것이 2건이다.

용연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하며 한라산의 탐라계곡에서 발원한 한천[大川]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제주목 관아 서문 밖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산과 바다의 경치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른 시기인 16세기부터 마애석각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용연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산천조에 한천[大川]을 소개하면서 ‘龍湫가 있어 가뭄이 든 해에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라는 기록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읍지류에 답습되어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곧, 효종 때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용연을 독립해서 다루지 않았고 호칭 또한 龍湫로 산천조 한천[大川] 항목에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³⁶⁾ 숙종 때 李增의 『南槎日錄』 1679년(숙종 5) 12월 23일 갑신조와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濟州牧, 山川, ‘大川 在州西三里 旱乾雨漲 水到凹處爲瀦 其深無底名曰龍湫 歲旱就禱’; 李元鎮, 『耽羅志』, 濟州, 山川, ‘大川 在州西二十 末流爲大甕浦 其下有龍湫 深無底長百步

1680년(숙종 6) 2월 26일 병술조를 보면 翠屏潭과 龍淵이라는 표현이 각각 확인된다. 李衡祥의 『耽羅巡歷圖』에도 翠屏潭이라 표기하다가 1793년(정조 17) 경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지는 『濟州大靜旌義邑誌』에 비로소 용연이라 명명하여 용두암[龍頭]과 독립해서 다뤘고,³⁷⁾ 이후 현종 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현종과 철종 연간 張寅植의 『耽羅誌』에 지속적으로 용연이라 명명하여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용연에는 행서체 翠屏潭 刻字가 16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새겨져 있었다. 선조 때 林悌는 「南溟小乘」에 翠屏潭 제하의 5언 읍시로 용연의 풍광을 읊었는데, 여기에 ‘峇留三字 龍臥千秋’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⁸⁾ 임제의 기록은 용연의 풍광을 읊은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서 1694년(숙종 20)에 왔던 제주목사 이익태는 『지영록』에서 耽羅 10景의 하나로 취병담을 꼽고 있다.³⁹⁾ 그 뒤 1703년(숙종 29)에 왔던 제주목사 이형상 또한 『南宦博物』에서 취병담을 독립하여 소개하면서 ‘벉늘 이하기에 매우 적합하다.’⁴⁰⁾고 소개하고, 『탐라순력도』에는 屏潭泛舟의 자취를 화폭에 담아 전하고 있다. 이후 병담범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龍淵夜泛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瀛洲 12景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⁴¹⁾

용연의 마애석각은 속칭 ‘구름다리’ 안쪽(남쪽)의 동벽과 서벽에 고루 분포하는데, 특히 이곳의 題詠은 모두 동벽에만 새겨져 있다. 이중 조선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19건의 석각 중 방문자의 이름을 새긴 題名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제명은 單名으로 새겨진 석각이 3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석각은 7건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이의 이름과 함께 題詠을 새겨 넣은 것이 4건, 장소의 이름을 명명한 題額과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 3건, 사적을 새겨 넣은 것이 1건, 제액만을 새겨 넣

餘 旱則禱雨有應’.

37) 韓國學文獻研究所 篇, 『濟州大靜旌義邑誌』, 形勝條.

38) 현재 제주시 용연에는 취병담이란 각자가 둘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조선 영조 때 洪重徵 제주목사의 초서체 각자이다. 임제가 본 刻字는 행서체 각자이다.

39)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耽羅十景圖序 … 翠屏潭 … 水天一色 烟霞微茫 海外遊賞 最稱絕勝’.

40) 李衡祥, 『南宦博物』, 志勝條, ‘翠屏潭 一名 龍湫 在州西城二里 此爲漢川下流 兩崖削石壁立數十丈 下有清潭 長數百間 廣一百尺 水深亦數丈 中多礮石 杜冲 柑榕 蘿生兩岸 舟遊甚適’.

41) 전통적으로 제주도 景觀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絶景을 10개, 혹은 12개 所를 취하고, 이를 瀛洲十景 혹은 十二景이라 일컬어 왔다. 이들 제주의 절경은 각종 史書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서로 차이가 난다.(제주시·제주발전연구원, 『용연·용두암 유적지 문화재자원 조사』, 2000, 33~35쪽). 高禎鐘 편찬의 『濟州島便覽』(영주서관, 1930)에서는 瀛邱春花·古藪牧馬·靈實寄岩·鹿潭晚雪·山房窟寺·城山日出·紗峰落照·山浦釣魚·橋林秋色·正房瀑布·西歸鎮老人星·龍淵夜泛 등을 영주 12경으로 들었다. 해방 후 1954년 淡水契 편 『增補耽羅誌』에서도 영주 12경을 그대로 취해 기록하였던 것 같다.

은 것이 1건이다.

山地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주성 동쪽에 있다.’는 간략한 소개와 함께 山底川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효종 때 이원진 『탐라지』에는 ‘성 동쪽 1리에 있으니 곧 嘉樂泉 하류이다. 2리쯤 흐르면 바다로 들어가 건입포가 된다. 지금은 성 안에 있다.’고 하였다. 가락천은 현 오현단 인근 동쪽에 위치한다. 산지천이라 부르는 내의 범위가 현재 제주시 아라동 338번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아라동과 이도동, 일도동과 건입동 경계를 이루면서 제주항으로 흘러들어 가는 내⁴²⁾로서의 현재 산지천과는 다른 경계를 보이고 있다.

산지천 마애석각은 현재 제주시 건입동 소재 광제교 아래 朝天石이 세워졌던⁴³⁾ 砥柱岩이란 바위 윗면에 1건, 측면의 북쪽과 서쪽에 각각 1건씩이 새겨져 있다. 모두 영조 때 제주목사 金倬이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천은 1960년대 후반 覆蓋되면서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복개구조물이 철거되어 산지천이 복원 정비되면서 지주암이라 불렀던 바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지주암의 마애석각은 그 존재가 사료에만 남아있었고 실체가 잊혀졌던 마애석각이다. 윗면에 朝天石으로 추정되는 초서체 각자가 심하게 훼손된 것은 복개 당시의 영향이라 사료되며, 북쪽 면의 砥柱岩 각자도 훼손이 되어 砥자는 관독할 수 없다. 서쪽 면의 嘉樂川 각자만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오현단은 1871년(고종 8) 橋林書院이 철폐된 이후 五賢의 위패를 모실 곳이 없게 되자 1892년(고종 29) 제주 조친읍 출신의 鄉士 金羲正(1844-1925)이 제주유림들과 함께 제단[壇墠]을 쌓고 오현의 위패 대신 俎豆石을 세워 제사를 지내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오현단의 전신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제주에 유배되어 賜死된 冲庵 金淨을 배향하기 위해 1578년(선조 11)에 제주관관 趙仁後가 창건한 冲庵祠를 1665년(현종 6)에 관관 崔鎮南이 藏修堂 남쪽으로 옮겨 세우게 되면서 굴림서원으로 賜額된 것이 시초이다. 金淨을 비롯하여 宋麟壽·金尙憲·鄭蘊 등 四賢을 봉향하고, 1695년(숙종 21)에 宋時烈을 追享하면서 제주유림의 정신적 구심체가

42)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97쪽의 주 364.

43) 현재 원형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대신 모형이 세워져 있다.

되어왔다.

오현단 마애석각은 모두 2건으로 속칭 ‘병풍바위’에 曾朱壁立 각자가 새겨져 있고 바로 앞 독립바위에 光風臺 각자가 새겨져 있다. 증주벽립 각자에는 각자 조성을 주도한 당시 목사와 판관, 그리고 간지가 새겨져 있어 연대 추정이 가능하지만 광풍대 각자인 경우 제액만 있고 주도인물과 간지가 새겨져 있지 않다. 고증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광풍대의 ‘光風’은 ‘光風霽月’의 뜻으로 인품이 잘 담긴 군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 語義로 미루어 서원이 훼손되기 전, 증주벽립 각자 조성과 같은 시기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라동 ‘가카우니’는 제주시 오라동 제주교도소 동쪽 200m 지점의 속칭 ‘창꿈소(沼)’ 부근을 이르는 속명이다. 이곳은 예전 오라동 주민들이 여름에 가서 물맞이를 하던 피서지라고 하며, 예전 오라동 주민들이 사용했다는 샘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覺夏泉 각자가 샘이 있던 자리 위 절벽 암면에 새겨져 있다. 속명 ‘가카우니’를 音借하여 오라동의 鄉土 李膺鎬(1871-1950)가 이름을 지어 새긴 것이다.⁴⁴⁾ 이곳에는 이응호의 아버지인 李基璠(1834-1886)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새겼다는 口傳이 전하는 행서체의 靈泉 刻字가 있으며, 연대미상의 해서체 음각 小瀛邱 각자와 초서체 양각 半仙 각자 등도 새겨져 있다.

탐라계곡 마애석각은 제주시 관음사 등산로 입구에서 약 3.2km 거리의 한천상류 동벽에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현종 때의 제주목사 趙禹錫 일행이 남긴 제명과 연대미상의 隱仙洞 제액, 일제강점기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현 제주시 애월읍 출신의 張漢奎(1880-1942) 일행 제명 등 모두 4건의 마애석각이 있다. 조우석 목사에 의해 새롭게 개척된 探勝處의 하나라고 추정되지만 제주읍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 탐승 관련 마애석각 분포지가 백록담·탐라계곡·방선문·가카우니·용연으로 한천의 줄기를 따라 이어짐

44) 본문의 가카우니 마애석각 중 覺夏泉과 靈泉 각자에 대한 기록은 제주시 오라2동에 거주하는 李鍾億(1940년 생)의 구술 증언(2012. 10. 5)에 따랐다. 각자 靈泉에 대해서 이종억은 “고조부인 이기온이 눈병이 있었는데 이곳 샘물에 씻으니 효험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새기게 되었다. 종이를 직접 대고 각을 새겼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것이다.”라 증언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26일 一讀한 이응호의 『震翁先生詩稿』(이종억 소장)에 필사된 靈泉 제하 7언 절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壁間承覓石頭眠 尋蹟重來意黯然 小子服膺何敢慢 久藏秋筆亦奇緣’. 이를 통해 靈泉 각자가 추사의 필적임이 확실시 되며, 이기온의 추사필 입수 경위는 추사의 문하였던 이기온의 형 李基峯(본고 Ⅲ장 3절, 유배인 최익현조 참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을 볼 수 있다.

절부암 마애석각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 속칭 ‘영덕동산’에 있다. 제주도 유일의 篆書體 마애석각이다. 1869년(고종 6) 제주판관 愼裁佑⁴⁵⁾가 姜士喆의 처 高氏의 節行을 기리기 위해 새긴 것이다. 절부암 각자가 새겨진 바위와 바로 인접한 동쪽 암벽에 愼裁佑가 撰했다는 내용도 함께 새겨져 있다.

2) 대정현 관내

대정현은 지역적으로 동쪽은 정의현 경계까지 57리이고, 남쪽은 바다까지 10리이며, 서쪽은 제주목 경계까지 37리이고, 북쪽은 제주목 경계까지 32리이며⁴⁶⁾ 정의현과 마찬가지로 종6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정의현에 비하면 마애석각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산방굴사에 집중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천제연과 창고천에 각각 1건씩 그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정현 관내 조선후기 마애석각 분포 현황

계(件)	산방굴사	창고천	천제연
15	13	1	1

산방굴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山房山 남측면 약 150m 중턱에 있다. 세간에서는 고려 말 중국에 유학했던 法僧 慧日이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고 전해진다.⁴⁷⁾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현 동쪽 10리에 있는데 둘레가 9리이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한라산의 한 봉우리가 쓰러져서 여기에 서있다.” 한다. 그 남쪽 비탈에 큰 돌구멍이 있는데 물이 돌 위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져서 샘이 되었다. 어떤 중이 굴 가운데에 집을 짓고 살아서 이름을 窟庵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⁴⁸⁾

45) 문중의 世譜에 의하면 마애석각에 새겨진 각자의 이름자 중 佑는 祐로 되어있다(居昌愼氏大宗會, 『居昌愼氏世譜』 卷2. 大譜社, 2009 참조). 또한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소재 그의 묘비에도 祐로 되어있다. 그런데 절부암과 절부 고씨의 비문뿐만 아니라 『國朝文科榜目』에도 祐가 아닌 佑로 되어있다. 裁祐는 謚名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석각에 새겨진 이름에 따라 ‘佑’로 표기하였다.

46) 李元鎭, 앞의 책, 大靜縣.

47) 淡水契, 『增補耽羅誌』, 1.地理 附.名所古跡條.

효종 때의 이원진 『탐라지』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하며, 이원진 자신이 읍은 5언 율시가 전한다. 숙종 때의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산방산을 誌勝條에 기술하면서, 산방굴사에서 探勝의 자취를 탐라순력도에 山房盃酌으로 남기고 있다. 현종 때의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도 산천조에 다루지 않고 形勝條에서 산방굴사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내용은 앞선 읍지류의 답습이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金自祥의 山房記를 인용하며 산방굴사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⁴⁹⁾ 실록에 의하면 김자상은 세조 때 인물이다.⁵⁰⁾ 이런 점에서 산방굴사의 존재가 조선초기에 이미 중앙에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숙종 때의 제주판관 南九明(재임:1712.10-1715.5)이 남긴 賦 續壯遊 題下에 산방굴사와 관련하여 “유람 왔던 이들이 써놓은 이름은, 닳아져서 받은 글자도 없네.”⁵¹⁾라는 글이 있다. 이로 보아 산방굴사에는 현재 확인되는 마애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마애석각이 조성되었던 것 같다.

산방굴사 마애석각 중 조선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13건의 마애석각 중 방문자의 이름을 새긴 題名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이중 單名으로 새겨진 석각은 3건, 2인 이상 聯名되어 있는 마애석각은 6건이다. 다음으로 이름과 함께 題詠을 새겨 넣은 마애석각은 4건이다.

창고천은 한라산 남서쪽 사면 삼형제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을 관통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이곳의 마애석각으로는 창천리 앞 창고천 변에 새겨진 任觀周의 5언 절구 제영 1건이 유일하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1767년(영조 43) 감산리 謫所에서 해배되어 떠날 때 새긴 것으로, 임관주는 이곳을 始發로 하여 산방굴사·천제연·용연·백록담 등에 제영을 남기고 떠났다.

천제연은 현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하며 상·중·하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폭포는 높이 22m, 길이 21m의 천제연을 이루고, 그 못물이 다시 제2폭포와 제3폭포를 이루며 바다로 흘러든다. 천제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이원진의 『탐

4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全羅道, 大靜縣, 山川.

49) 위의 책, 같은 조.

50)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27日 戊辰條에 原從功臣 3등으로 녹훈되었는데, 그 당시 그의 관직은 五衛에 속한 정5품 무관직인 司直이었다.

51) 南九明, 『禹庵先生文集』 卷1, 賦, ‘…卓錫去騰空 古龕猶雙置 遊人記姓名 漫減半無字’.

라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선조 때 임제의 『남명소승』에 天帝潭으로 처음 문헌에 소개된 이후,⁵²⁾ 이를 선조 때 제주어사 김상헌이 『남사록』에 인용하여 소개하였고,⁵³⁾ 이후 숙종 때 제주어사 李增이 정의현 소재 天池淵과 同名의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7언 율시 1수를 남겼다.⁵⁴⁾ 숙종 때 제주목사 이익태 또한 天池淵이라는 이름으로 탐라 10경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⁵⁵⁾ 이어서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小天池淵으로 소개하였고,⁵⁶⁾ 현종 때 이원조 목사에 와서 天帝淵으로 불리게 되었다.⁵⁷⁾

이처럼 천제연의 존재가 16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곳의 풍광을 읊은 것으로는 문헌상에 이증의 율시가 유일하게 보이며, 조선후기 마애석각으로는 영조 때 해배인 임관주가 1단 폭포 서쪽 암벽에 새긴 7언 절구 1수가 유일하다.

3) 정의현 관내

정의현은 동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35리이고, 북쪽은 제주 경계까지 20리이며, 서쪽은 대정현 경계까지 95리이고, 남쪽은 바다까지 15리이며⁵⁸⁾ 종6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관내에 수려한 勝地가 많이 있지만 정방폭포 외에 마애석각의 분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정의현 관내 조선후기 마애석각 분포 현황

계(件)	정방폭포
1	1

52) 林悌, 「南溟小乘」, 『白湖先生文集』附錄, 丁丑(1577) 11月 25日條, ‘往天帝潭 俯見一水澄泓 大如天池 三面巖石簇立 皆成人面 洞府幽邃 到海可五六里 想有奇絕處 而無暇窮搜 若別佳人而去’.

53) 金尙憲, 앞의 책, 辛丑(1601) 10月 16日 庚辰條.

54) 李增, 『南槎日錄』, 庚申(1680) 2月 21日 辛巳條.

55)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耽羅十景圖序…天池淵…惜乎 其海外絕島 無人遊賞 而世罕識也.’

56) 李衡祥, 앞의 책, 志勝條.

57) 李源祚, 앞의 책, 大靜, 形勝條.

58) 李元鎮, 앞의 책, 旌義縣.

정방폭포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하는 높이 약 23m, 너비 약 10m의 폭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正毛淵으로,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正方淵으로 소개되고 있다. 모두 이곳의 물을 끌어올려 물을 대는 논의 많다는 짤막한 기사가 실려 있다.⁵⁹⁾ 이원진은 여기에 인조 때 제주목사 金壽翼과 자신의 7언 절구를 소개하였다. 이후 숙종 때 이형상은 『남환박물』 誌勝條에서 바다로 쏟아지는 정방폭포의 절경을 제1경이라 찬탄하였고,⁶⁰⁾ 현종 때 이원조는 『탐라록』에서 영주 10경의 하나로 正房觀瀑을 꼽고 있다.⁶¹⁾ 이를 이어 조천리 출신의 鄉士 李漢雨가 이곳의 여름풍광을 영주 10경 중 제4경인 正房夏瀑으로 品題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⁶²⁾

김수익과 이원진 이후 숙종 때 제주어사 李增 등이 읊은 7언 율시, 영조 때 제주목사 金정의 7언 절구, 현종 때의 제주목사 이원조의 7언 절구 등이 전하지만⁶³⁾ 마애석각으로는 정조 때의 제주목사 李養鼎 일행의 석각만이 전해질 뿐이다.

정방폭포와 관련하여 천지연에는 1903년(광무 7) 제주목사 洪鍾우에 의한 마애석각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1건의 마애석각도 확인할 수 없다. 경승지로서 현재의 명성과 달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언급이 없다. 문헌기록상 선조 때 임제의 『남명소승』에 天池潭으로 처음 소개되고 있다.⁶⁴⁾ 이후 선조 때 어사로 왔던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임제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바다 밖 명소로 굳게 감춰져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서 그 좋은 경치를 아는 이가 거의 없다. 地誌에도 또한 빠뜨려서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라며 그 자리에서 7언 절구 1수를 지어 돌 위에 적어 두었다.⁶⁵⁾ 처음으로 천지연을 勝地로서 品題한 것이다.

59)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 山川條, ‘正毛淵 在縣西六十四里 淵深漑田甚多’;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山川條, ‘正方淵 在縣西六十八里 有瀑布 引上流多漑田’.

60) 李衡祥, 앞의 책, 誌勝條, ‘烏中山形 舉皆頽榻 而獨此麓甚端正 一帶蒼壁 至海而盡 高可數十丈 上有盤松 下有巨浪 西巖有長瀑 八十餘尺 倒瀉海洋 眞可謂第一名區’.

61) 李源祚, 『耽羅錄』上, 辛丑(1841) 閏3月 23日條.

62) 吳文福,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4-5쪽.

63) 李增, 앞의 책, 庚申(1680) 2月 20日 庚辰條; 洪순만 외 역, 淡水契 편, 앞의 책, 147쪽.

64) 林悌, 앞의 책, 丁丑(1577) 11月 25日條, ‘蓐食而行 取海邊小路 往尋天池潭 乃舍馬攀崖而下 潭周數百步 深不可測 雙瀑飛落 長可百丈 聲若雷霆…’.

65) 金尙憲, 앞의 책, 같은 조, ‘但慳秘海外遊觀之所 不及世人 罕有知其勝 地誌亦闕而不載 良可惜也 … 仍題詩石上’.

이후 천지연에 대한 지지의 기록은 효종 때 이원진의 『탐라지』에 비로소天池淵이 “서귀포 가에 있다.”는 간략한 소개⁶⁶⁾와 함께 이원진의 7언 율시 1수가 수록되었다.

하지만 1679년(숙종 5) 제주에 어사로 왔던 이증이 남긴 『남사일록』에 “내가 천지연에 이르러 보았더니 폭포의 길이는 박연폭포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맑고 아름다움과 기이하고 장엄함도 역시 박연폭포에 미치지 못하였다.”⁶⁷⁾는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후반까지는 제주목사 등에게 탐승처로써 각광받지 못한 듯하다. 이후 숙종 때에 와서야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誌勝으로 소개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진 듯하다. 현종 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도 계속하여 形勝條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방폭포는 천지연과 함께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형상 목사 이후 절경으로 꼽혔지만 지리적으로 3읍의 治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애석각 조성을 주도한 수령 등이 쉽게 채비하여 나설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애석각이 후기에 조성되었고, 그 개체수도 1건에 그치게 되었다고 본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은 방선문, 백록담, 용연, 산방굴사 등 경치가 수려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의 출현이 조선시대 성행한 사대부들의 遊山관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읍지류와 개인문집 등에 나타나는 마애석각 분포지 관련 시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과 함께 전국을 8도 체제로 편제하고 각 군현에 중앙관원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파견된 중앙관원들은 당시 본토에서 유행하던 遊山관행에 따라 순력 길에 혹은 유람을 목적으로 경치가 수려한 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의 ‘題詩石上’이나 김치의 ‘又掃石題名 以記勝跡’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앙관원들의 유산에는 자연스레 자신의 이름을 바위나 벼랑의 암면에 붓으로 쓰거나 刻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선시대 본토에서 유행한 遊山에 따른 마애석각의 조성은 조선전기 용연에 행서체 翠屏潭 제액을

66) 李元鎮, 앞의 책, 旌義縣, 山川條, ‘天池淵 在西歸浦上’.

67) 李增, 『南槎日錄』, 庚申(1680) 2月 21日 辛巳條, ‘余到天池淵觀之 暴長 半不及朴淵 清麗奇壯 亦不及朴淵’.

시작으로 조선후기에 와서 제주목 관내 용연과 방선문, 백록담에 집중되면서 제주 3읍으로 전개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2. 각석 시기와 내용

徐市(서불)이 남긴 刻字를 논외로 하고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의 출현은 16세기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석각 중 연대가 분명한 最古의 것은 1578년(선조 11) 이전에 새겨진 제주시 용연의 해서체 翠屏潭 각자이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상호동 효돈천의 관나암 각자 이외에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은 시대적으로는 조선후기에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새겨진 것들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의 유형과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17세기 마애석각

17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은 중반 이후에 와서야 나타나며, 이때의 마애석각은 3건으로 모두 용연에 분포한다(부록 <별표-1> 참조). 마애석각 조성 주체는 모두 제주목사이며, 3건 모두 목사와 함께 수행인원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각문의 서체는 모두 해서체이다. 각의 새김 형식은 한문쓰기의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갔는데, 현직 품계의 고하에 따라 목사, 판관, 교수, 군관 등의 순서로 새겨져 있다. 刻文 끝에는 이곳을 방문했던 일자로 판단되는 干支와 月日이 새겨져 있다.

이 시기 석각에 새겨진 각자의 크기는 효종과 현종 연간의 李禧 목사 일행의 제명을 새긴 刻文인 경우, 刻字 하나의 크기가 가로 12cm, 세로 14cm의 크기로 모서리 진 세 벽면을 이용하여 각을 새겼는데 벽면의 총 길이는 가로 약 220cm, 세로 약 90cm 규모이다. 刻文 위에 면을 가로 84cm, 세로 30cm로 다듬어 橫으



<사진 2> 이괴 목사 일행 제명

로 仙遊潭 題額을 각하였다. 선유담 각자의 1字당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5cm이다.

다음으로 조성된 현종 때 李翊漢 목사 일행 제명인 경우 가로 약 320cm, 세로 약 85cm의 벽면에 각자 1자당 크기가 가로 10cm, 세로 17cm로 새겨져 있다.

용연 마애석각은 이처럼 글자의 크기가 크고, 각자를 새긴 압면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이괴 목사 일행 각명 이전의 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시기 3건의 마애석각에서 보이는 특징은 제명에 앞서 방문한 곳을 命名하여 題額하거나, 방문목적은 알 수 있도록 짧은 文記를 새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괴 목사 일행은 각문 앞에 仙遊潭, 이익한 목사 일행은 각문 앞에 碧泓이라는 제액을 새겨 넣었다. 翠屏潭이라는 題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다른 이름을 지어 붙인 것이다. 또한 이익한 목사의 각문에는 벽홍 다음으로 제명에 앞서 仙查錄이라 새겼고, 숙종 때 元相 목사는 제명 앞에 同遊錄이라 새겨 넣었다. ‘신선을 찾으러 왔다[仙查]’는 것은 ‘함께 놀러 왔음[同遊]’을 고상히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각문 형식에 있어 특이한 경우가 보이는데, 이익한 목사 일행인 경우 석

각이 새겨진 공간이 비교적 넓고 평평한 암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한문쓰기 형식과 상반되게 左에서 右로 새겨 놓았다. 그 용례를 典據할 수 없다. 뒤에 방문 鄭東理 판관 일행의 석각인 경우도 좌에서 우로 각문을 새겨 놓았다.

방문월일⁶⁸⁾과 관련해서는 이괴 목사 일행이 8월, 이익한 목사 일행은 1월, 원상 목사 일행은 7월인데 당시 용연에서의 뱃놀이가 봄과 가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마애석각이 용연에 한정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용연이 제주목관아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경승지라는 점도 있지만, 이 시기의 野遊가 단순한 탐승을 위한 나들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조선후기 수령의 군현통치상의 일상적 기능이 邑吏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의 수행을 독촉하고, 읍리를 감독 단속하여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고, 비리를 범한 읍리들을 치죄하며, 읍리들이 수행하는 행정실무를 결재하는 것이 수령이 담당하였던 군현통치기능의 실상이라는 점⁶⁹⁾을 감안하면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은 부임 초기 자신처럼 지방관으로서 제주에 파견된 이들과의 결속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결속의 장을 탐승이라는 외형적 형식을 빌려 마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목사 일행의 용연 방문시기가 목사 부임 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⁷⁰⁾ 18세기 이후 간간히 나타나는 목사 단독의 제명이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모임이 용연 한 번으로 그치고 다른 곳의 탐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편 이괴 목사 일행 각문 끝에 ‘教授河晉善末至 居客之右’라는 표현은 바위나 벼랑에 각을 하는 행위가 목사 일행의 나들이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뒤에 18, 19세기에 보이는 유배객 관련 마애석각인 경우 석각 조성행위가 유배객 방문 뒤에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의거하면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 주요 主導人物인 수령과 판관 등의 탐승 대부분에 刻手가 대동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8) 이하 본문의 월과 계절의 표기는 刻文의 干支에 의거한 음력 표기이다.

69) 李羲權, 『祖先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138쪽.

70) 이괴 목사는 1658년(효종 9년) 4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이익한 목사는 1662년(현종 3) 8월에 부임하여 다음해 1월, 원상 목사는 1680년(숙종 6)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7월에 각각 용연을 방문했다.

2) 18세기 마애석각

18세기에 등장하는 마애석각은 모두 47건이며 이중 방선문에 14건, 용연에 13건, 백록담에 9건⁷¹⁾, 산지천에 3건, 산방굴사에 5건, 창고천에 1건, 천제연에 1건, 정방폭포 1건이 분포한다(부록 <별표-2> 참조).

분포 개체수를 석각 조성 주도인물에 따라 분류하면 목사 18명에 29건, 유배인 2명에 6건, 관관 4명에 5건, 목사측근 2명에 3건, 현감 3명에 3건, 목사자제 1명에 1건이다. 주도인물을 열거하면, 제주목사는 金倣 洪重徵 安慶運 金潤 尹植 尹九淵 金夢燿 洪泰斗 趙威鎮 李潤成 南益祥 朴聖浹 柳懾 金永綬 李養鼎 嚴思晩 尹得達 李命俊, 유배인은 鄭履煥 任觀周, 관관은 鄭東里 朴昌鳳 黃德彬 金鳳吉, 현감은 白宅仁 宋益彩 南凍, 목사자제는 安致範이다.

이 시기 마애석각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방문한 이의 이름만을 새겨 넣은 題名이 27건이며 이 가운데 單名 석각은 9건, 聯名 석각은 18건이다. 시만을 읊어 각한 題詠이 10건, 장소나 바위의 이름을 命名한 題額만 있는 것은 3건, 제액과 제명, 제명을 함께 각한 석각은 3건, 제액과 제명을 함께 각한 석각은 2건, 事蹟을 기록한 석각이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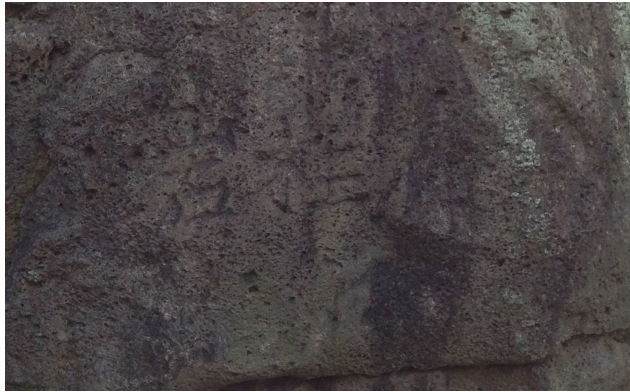
마애석각의 서체는 47건 중 해서체 36건, 초서체 9건, 행서체 2건이다. 글자의 크기는 용연 安致範 제명이 1자당 가로 39cm, 세로 36cm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며, 1자당 가로 23cm, 세로 37cm의 방선문 喚仙臺 제액과 1자당 가로 25cm, 세로 26cm의 訪仙門 제액이 큰 편에 속한다. 이외에는 가로 4~20cm, 세로 5.5~20cm의 다양한 크기로 각이 되어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마애석각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전반기에는 17세기 중반 이후 용연에서만 나타나고 있던 석각들이 제주목 관내 방선문과 백록담 등의 경승지로 확산되면서 18세기 전반기에는 용연 3건 외에 방선문 4건, 백록담 1건, 산지천 3건 등이 조성된다. 또한 대정현 관내에도 산방굴사에 白宅仁 현감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 1건이 나타난다. 총 12건의 마애석각이 등장하고, 분포지가 5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목 관내에 집중되

71) 1731년(영조 7)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趙慶彬과 1754년(영조 30)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趙榮順은 순조 때 제주목사 趙貞喆이 그의 종조부와 부친의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이 확실시됨으로 19세기 마애석각으로 분류하였다.

어 있으며 아직까지 정의현에는 마애석각의 출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세기 전반기에 등장하는 마애석각 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주목 산지



<사진 3> 지주암 제액

천 변에 조성된 지주암 마애석각의 출현이다. 지주암 각자는 목사 金倣이 1735년(영조 11) 제주 東城 안에 三泉書堂을 건립하고 이곳 유생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학문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군자의 모습을 비유하여 제액한 것이다.⁷²⁾ 높이가 약 180cm, 윗너비

270~330cm의 바위인 이 지주암을 마주하여 동쪽 언덕에 삼천서당이 있었다.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대부분이 경승지를 방문한 이들의 개인적 흥취로 제명 혹은 제액, 제영한 것이지만 산지천의 지주암 마애석각은 경승지가 아닌 제주읍성 내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목사가 서당의 유생들에게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곳곳이 서있는 지주처럼 지조를 꺾지 않는 군자가 되라는 의미로 문자를 암석에 새겼다는 점 등에서 이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하겠다. 지주암 각자 외에도 같은 바위에 嘉樂川, 朝天石 각자 2건을 더 새겨 넣었는데⁷³⁾ 이 또한 기존 경승지의 제액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⁷⁴⁾

후반기에는 제주목의 방선문 10건과 백록담 8건, 용연 10건으로 마애석각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정현의 산방굴사 4건, 천제연 1건, 창고천 1건과 정의현의 정방폭포에도 1건의 마애석각이 등장한다.

72) 砥柱는 山西省 平陸縣 東南쪽 황하 중류 가운데 서 있는 산으로 후에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곳곳이 서 있는 모습을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 고고한 군자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中文大辭典』(6), ‘砥柱. 山名在山西省平陸縣東南 當黃河中流 南與河南省接界 後以喻堅毅任重守節者也[史記, 夏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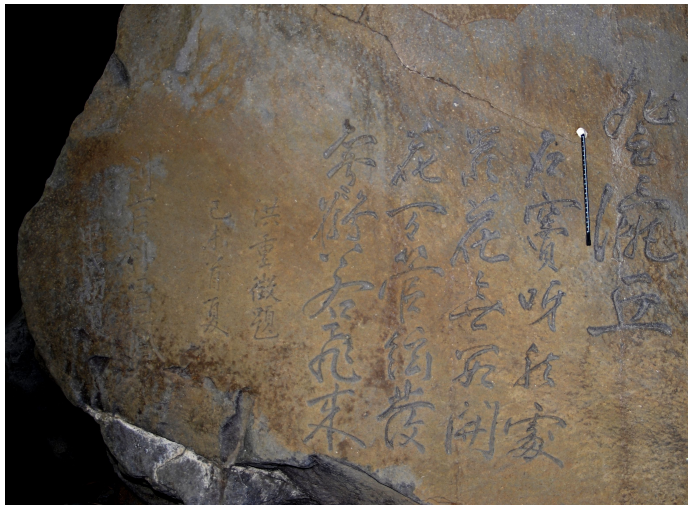
73) 김정 목사의 문집을 보면 그가 제주목사 재임 당시 새긴 마애석각에 관한 글[銘]이 있는데 이는 여느 문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삼천서당 주변 절벽에 새겼었다는 中藏屏, 龍麟屏, 虎班屏 등 지금은 사라져 버린 마애석각의 銘과 함께 가락천, 지주암의 명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金倣, 『蘆峯先生文集』 卷 2, 銘 참조). 조천암 각자는 현종 때의 이원조 목사 기록에 나온다(李源祚, 『耽羅誌草本』 卷1, 濟州, 橋梁, ‘山底橋 在東城內 牧使金倣 改名光霽橋 橋上有砥柱巖 刻朝天石三字’.).

74) 조천석 각자를 무슨 이유로 김정이 새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다. 현재 이곳에는 庚子春牛山 書라고 새겨져 있는 朝天石 模本이 세워져 있는데(원형은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천석 마애석각은 이와는 달리 지주암 바위 윗면에 초서로 새겨진 글자를 가리킨다. 한편, 2001년 漢學日報社遺蹟址標石세우기推進委員會에서 세운 표지석에는 지주암을 ‘朝天石 제사터’로 소개하면서 ‘홍수와 재앙을 막아주도록 하늘에 기원하던 신앙석’이라 하여 朝天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목사 일행 등의 주요 탐승지가 제주목 관내 용연에서 방선문과 백록담으로 옮겨 가고, 제주 3읍 전체로 봤을 때는 대정현과 정의현에 이르기까지 탐승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18세기에 들어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러한 탐승의 자취를 3읍 곳곳의 경승지에 제영으로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백록담, 용연, 방선문 등 마애석각 분포지의 승경을 시로 읊고 문자로 기록한 것은 이전의 地誌나 개인문집 등 문헌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⁷⁵⁾ 현장의 벼랑이나 암면에 새겨진 제영은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영조 때 鄭東里 관관의 방선문 제영 5언 2행시를 시발로 하여 洪重徵 목사 또한 방선문에 5언 절구를 남겼고, 정조 때 金永綏 목사와 그의 측근으로 보이는



<사진 4> 홍중징 목사 제영

韓昌裕와 尹進五가 각각 용연과 방선문에 제영을 남겼다.⁷⁶⁾ 한편 영조 때 유배되었던 鄭履煥이 백록담에 유배인으로는 처음으로 5언 절구를 남기고, 안덕면 감산리에 유배되었던 任觀周가 해배되어 떠나기 전 제주유람을 통해 탐승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도 18세기 제주지역

역 마애석각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겠다.

18세기 마애석각에 보이는 제영은 방선문 4수, 용연 6수, 백록담 2수, 창고천 산방굴사 천제연 각 1수씩 모두 15수이다. 이를 마애석각이 나타나는 장소 순으로 배열하고 다시 시기 순으로 차례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⁷⁷⁾

75) 제주에 와서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문헌기록으로 전하는 시 가운데 광해군 때의 제주관관 金綴가 남긴 5언 절구 登瀛邱, 7언 율시 登絶頂이 방선문과 백록담에 대한 기록이고, 선조 때 제주에 왔던 林梯의 5언 율시 翠屏潭이 용연에 최초의 기록으로 보인다(吳文福, 『耽羅詩選』, (주)이화문화출판사, 2006 참조).

76) 김영수 목사와 윤진오, 한창유의 각자가 방선문과 용연에만 보이고, 용연인 경우 동벽에 3인의 시가 연이어 새겨져 있고, 방선문에는 김영수 목사 제영 면 하단에 윤진오의 이름이, 옆면에 한창유의 시가 새겨져 있다.

77) 원문은 부록 <별표-2>의 1·5·21·24·25·26·27·28·33·34·35·36·37번 참조.

① 방선문

- 鄭東里 2행시 : 月老와 女媧의 태고적에, 禹임금의 도끼로 쪼개진 바위
洪重徵 5언 절구 : 돌구멍 입 짝 벌렸고, 바위꽃 무수히 핀 곳, 꽃 사이 관현 텅기
면, 鸞鶴이 날아 이를 듯
金永綬 5언 율시 : 특 트인 별난 골짜에, 세월 속 한가론 돌문, 특별한 곳 없다 마
오, 신선 사는 산이 있으니, 꽃 지고 봄날은 가도, 바위는 창연
한 빛깔, 끼르륵 학울음 우는, 이곳이 仙界인 것을
韓昌裕 5언 절구 : 골짜기에선 산도 절을 하는 듯하니, 나 또한 들렁귀에선 신선이
로세, 무너져 내릴 듯 뺨 뚫린 굴을, 옥도끼로 깎아내길 언제이
더냐

② 용연

- 任觀周 5언 절구 : 백록담 물 흘러내려, 갯가에 못 이뤘으니, 기슭은 푸르른 절벽,
조각배 찾는 나그네
金永綬 5언 율시 : 이름 지어진 게 언제이더뇨, 구름에 잠긴 용이 사는 못, 하늘을
날면서 조화 부리다, 그때를 뒤우쳐 물에 있으니, 나오고 숨는
데에 적절하면은, 모난 곳 둥근 곳 다 들어맞으니, 환하여 어둡
지 아니한 이치, 物이 그렇고 나도 그렇다오
金永綬 5언 율시 : 틈내어 가마 타고 잠시 들린, 인가와 떨어져 있는 별난 곳, 드넓
은 바다 위 천년 왕국에, 아홉의 굽이 못 용이 산다니, 옛 이름
정말로 뜻이 있구나, 오늘 감상 어찌 인연 아니리, 즐거워 돌아
갈 것도 잊은 채, 아침 해는 벌써 서녘 하늘에
金永綬 5언 절구 : 용연의 아홉 물굽이, 바다와 서로 통하니, 복사꽃 물 위로 보내
지 마오, 속세의 나그네를 끌어들일라
韓昌裕 7언 절구 : 물과 산이 하나의 못 감켰으니, 돌문 서로 마주한 깊은 취병담,
신선의 손을 빌려 이름 새기려, 노을 속 아스라이 백록을 찾네
尹進五 5언 절구 : 빙 푸른 벽 돌면, 황홀경 무릉과 통하겠으니, 홀연 보이는 배는,
어부가 도화원 찾아가는 듯

③ 백록담

- 鄭履煥 5언 절구 : 동서남북 바다 한 가운데에, 하늘을 떠받친 봉우리 하나, 홀로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움푹도 하지 않는 最上頭라네
任觀周 5언 절구 : 아득히 너른 푸른 바다에, 주먹 같이 조그맣게 떠있는 한라산,
백록이 신선을 기다리는 곳, 오늘에야 정상에 올라왔다네

④ 창고천

- 任觀周 5언 절구 : 귀양살이 하던 집 나서는 날에, 맨 먼저 베갯머리 냇가 찾았네,
푸른 바위 세 물굽이 돌아 서있고, 늦가을 단풍 사이로 短瀑
흐르네

⑤ 산방굴사

- 任觀周 5언 절구 : 돌로 된 신선의 굴에, 산방산 물방울소리 쓸쓸하고, 남녘바다 광
활한 중에, 뫼나라 楚나라가 아득하구나

⑥ 천제연

任觀周 7언 절구 : 하늘의 연못이 열려 큰 물줄기 흐르고, 굴러온 푸른 돌과 벽에
돌린 깊은 못에, 공중으로 허수아비 화살 메고 걸어나는, 이곳의
활쏘기가 제일가는 광경일세

방선문의 제영을 보면 거대한 암굴이 기이하게 뚫린 모습과 주변의 경치를
仙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용연의 제영 또한 풍광과 함께 시를 지은 작자
의 처지 등을 읊고 있다. 백록담 제영은 한라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경관
과 白鹿의 전설을 읊고 있다. 창고천과 산방굴사, 천제연의 제영은 모두 임관주
1인의 제영으로 해배된 유배객이 떠나기 전 당시 경승지로 이름난 곳에 들려 자
유분방하게 그곳에서의 흥취를 시로 읊은 것이다.

이상의 제영을 통해 마애석각에 새겨진 제영이 그곳의 풍광과 방문자의 흥취
만을 읊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용연 김영수 목사의 첫 번째 읊시인 경
우, 용을 소재로 하여 주역의 64괘 중 첫 번째 괘인 乾爲天을 풀이한 내용으로,
처세에 따른 교훈을 읊은 내용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임관주의 시를 통해 당시
천제연에서 폭포 사이에 과녁을 설치하고 활쏘기를 했으며, 그때 허수아비를 줄
에 매어 화살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에서의 활쏘기가 유배객인
임관주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자주 개최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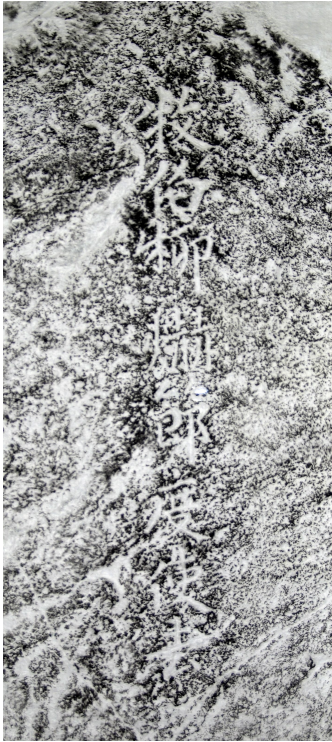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에 목사가 순력할 때 천제연 동쪽
에 설치된 仲文院에서 잠시 쉬면서 천제연에 들려 폭포를 관망하였는데, 무사를
시켜서 과녁을 설치케 하고 동서 兩岸에 긴 밧줄을 매어 허수아비[籥人]로 하여
금 화살을 전하며 공중에서 줄을 타고 왕래하였고 이것이 고을의 사례가 되었다
는 기록⁷⁸⁾에 비추어 보면, 천제연에 비록 전하는 마애석각이 임관주의 제영으로
유일하지만 加來防護所가 1510년(중종 5) 천제연 인근의 현 서귀포시 迴水洞 지
경으로 東海防護所로 이설된 이래 이곳에서의 활쏘기가 유명하였다는 사실을 유
추할 수 있다.⁷⁹⁾ 임관주의 마애석각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 기록하고 있

78) 李源祚, 『耽羅誌草本』, 大靜, 形勝條.

79) 東海防護所는 다시 1676년(숙종 2)에 도입한 尹昌亨 목사 때 모슬진으로 이설하였다. 그런데 1694년(숙
종 20)에 도입했던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에도 천제연에서의 활쏘기에 籥人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11月 13日條). 그렇다면 이곳은 무사들의 활쏘기연습을 위해 마련된 동해방
호소의 射場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의 활쏘기 유풍이 남아서 목사 등의 순력 때에 대정현의 현감
이나 향임 등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목사에게 활쏘기를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천제연
에서의 활쏘기 광경은 18세기 초에 그려진 李衡祥의 『耽羅巡歷圖』에 懸瀑射幟로 잘 묘사되어 있다.

는 유일한 사료라 할 것이다.

18세기 마애석각 유형 중 또 다른 특징은 事蹟을 기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마애석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시기 사적을 기록한 마애석각은 2건이며, 이중 제주목사 柳懋이 1777년(정조 1) 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임명되어 떠난다는 내용을 용연의 암벽에 새겨 넣은 것이 처음에 해당한다. 유혁은 재임기간 중인 1775년(영조 51)에 자신의 봉급을 덜어 백성들을 구출하였던 사실이 보고되어 임금으로부터 熟馬를 하사받았고⁸⁰⁾, 떠나기에 앞서 1776년(정조 즉위년) 제주목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表裏를 하사 받았다.⁸¹⁾

사적을 기록한 두 번째 것은 沈樂洙 어사 관련 마애석각이다. 심낙수는 1794년(정조 18) 3월 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使로 내도하여 어명에 따라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백록담에 올랐는데, 이때의 사적이 백록담 동벽에 새겨져 있다. 유혁과 심낙수 관련 마애석각의 출현은 이전 제명·제액·제영 등 단순한 탐승의 자취

<사진 5> 유혁 목사 사적 동벽에 새겨져 있다. 유혁과 심낙수 관련 마애석각의 각문(탁본)

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한 방편으로 마애석각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18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애석각은 鄭東里 관관이 주도하여 조성한 방선문 마애석각이다. 刻文은 제명에 앞서 雙溪石門이라는 제액을 새기고 제명 하단에 5언 2행시를 새겼다. 刻文의 형식은 용연의 이익한 목사 석각처럼 좌에서 우로 써내려갔다. 현존하는 最古의 방선문 마애석각이다.⁸²⁾

방선문에 새겨진 제액은 정동리 관관의 쌍계석문을 시작으로 영조 때 홍중징 목사의 登瀛丘, 정조 때 김영수 목사의 喚仙臺와 尹得達 목사의 訪仙門으로 이어

80) 『英祖實錄』 卷125, 英祖 51年 閏10月 26日 庚午條.
81) 『正祖實錄』 卷1, 正祖 卽位年 5月 20日 庚寅條.
82) 이영배가 방선문 바닥 암면에 새겨진 제영을 광해군 때 제주관관 金緻의 5언 절구로 소개한 이래, 이것이 이 방선문 最古의 마애석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제영의 간지 다음에 篆書로 새겨진 이름자는 金衡秀로 판독이 가능하다. 김치의 제영이 아님이 확실시 된다.



<사진 6> 정동리 관관 일행 각문(탁본)

지면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방선문 서쪽 천장에 橫으로 새겨져 있는 방선문 제액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액 위로 尹得達 목사 일행의 제명이 있고, 방선문의 환선대와 등영구 제액을 비롯하여 용연 선유담 제액의 새김 용례로 볼 때 윤득규 목사가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⁸³⁾

18세기에 와서 마애석각이 많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이 2곳 이상에 석각을 남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영조 때 목사로는 홍중징과 안경운이 방선문·용연, 김몽규는 방선문·용연·산방굴사, 남익상은 백록담·용연에 마애석각을 남기고 있다. 관관 박창봉도 방선문·용연에 1건씩의 석각을 남겼다. 정조 때 목사로는 김영수가 방선문·용연, 이양정은 백록담·용연·산방굴사·정방폭포, 이명준은 방선문·용연에 석각을 남겼다. 해배객 임관주는 백록담·용연·산방굴사·창고천·천제연에 각각 제영 1수씩을 남겼고, 김영수 목사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한창유 또한 방선문·용연에 제영 1수씩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 1인이 2곳 이상의 지역에 마애석각을 남기는 경우가 18세기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 경승지에 대한 본격적인 탐승이 이 시기에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 시기 본격적인 승지의 탐색과 함께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과 관련한 또

83) 방선문 제액에 대한 기록은 崔益鉉의 『遊漢孛山記』에 “當中有石橫跨作門形 長廣容數十人 高可二丈 夾刻訪仙門及登瀛丘六字 亦有前人題品 卽十景之一門”이라는 기록이 최초이다. 이후 金錫翼이 저술한 『心齋集』 「破閑錄」 上에 ‘登瀛邱 … 左右懸崖中有大石俯作虹門名曰訪仙…’이라는 기록이 있다.

하나의 특징은 이전 시기 주도인물이 목사에 한정되어 나타났던 것에 비해 목사를 비롯하여 관관, 현감, 유배인, 목사자제 등으로 주도인물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聯名者 명단에 관관, 심약, 왜학 외에 목사의 親族 혹은 子弟의 이름이 나타나며(목사 안경운·윤식·김몽규·김영수·윤득규 일행), 목사 없이 관관이 單名 혹은 聯名으로 제명한 각자가 보이고, 현감이 자제와 함께 제명한 각자(백택인 일행)도 보인다. 백록담에는 목사 2인의 이름을 함께 새겨 놓은 각자(이윤성·조위진 제명)도 등장한다. 체임하는 목사와 신입목사가 함께 백록담을 오른 경우이다.

탐승의 시기에 있어서도 사계절 중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에 걸쳐 거의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간지에 계절을 표시한 경우 방선문은 八月初吉日·首夏·夏·首夏·孟春·首夏·初夏·初夏·初夏十日·季春·春(김영수, 윤진오, 한창유)·四月, 용연은 九月日·三月·仲春·仲夏·秋·季秋, 백록담은 五月·二月十七日·四月日·四月·秋·九月日·春, 창고천은 秋, 천제연은 季秋, 산방굴사는 秋의 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방선문 마애각자 간지 총 12건 중 여름이 8건, 봄이 3건, 가을이 1건 순으로 나타난다. 여름 8건 중에서도 夏라 새겨진 각자를 제외하고 初夏가 7건이다. 음력 4월이면 방선문에 번성했던 참꽃나무의 꽃이 만개할 때이다. 이를 통해 방선문이 이 시기에 이미 賞春의 장소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용연은 총 6건 중 가을 3건, 봄 2건, 여름 1건 순인데 가을 또한 늦가을이 2건에 해당한다. 백록담은 총 7건 중 여름 3건, 봄과 가을이 각각 2건이다. 18세기 용연의 나들이나 백록담 등정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고천과 천제연, 산방굴사의 간지 秋는 해배인 임관주가 일주하였던 자취이다.

3) 19세기 마애석각

19세기 제주지역에 등장하는 마애석각은 모두 45건이다. 18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과 개체수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 가운데 방선문에 20건, 백록담에

10건, 용연에 2건, 산방굴사에 8건, 탐라계곡에 1건, 오현단 2건, 오라동 속칭 ‘가카우니’에 1건, 한경면 용수리에 1건이 분포한다.

분포 개체수를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에 따라 분류하면 목사 18명에 27건, 제주인 2인과 2契에 8건, 관관 5명에 5건, 현감 4명에 3건, 유배인 1명에 1건, 미상 1건⁸⁴⁾이다.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을 열거하면, 목사는 鄭觀輝 韓鼎運 李顯宅 趙貞喆 朴長復 趙禹錫 李源祚 張寅植 睦仁培 菜東健 姜冕奎 鄭岐源 趙義純 朴善陽 沈賢澤 洪圭 沈遠澤 宋龜浩, 제주인은 金鍾輔 李基溫 搜雲契 風詠錄, 관관은 李必述 李義謙 慎裁佑 高景峻 康仁鎬, 현감은 元相堯 韓吉謨 呂喆永 具齡錫, 유배인은 尹相和이다.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제명이 32건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인다. 제명은 6건, 사적을 새겨 넣은 각자는 4건, 제액 2건, 기타 書院의 유생들을 위해 교훈적인 문구를 새겨 넣은 각자가 1건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시기 마애석각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18세기 마애석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적을 새겨 넣은 경우에 있어 유배 왔던 이의 사적을 당당하게 밝혀 각자로 남기는 사례가 보인다.

1811년(순조 11)에 목사로 부임한 조정철이 1777년(정조 1)부터 1790년(정조



<사진 7> 조관빈 사적각문(탁본:제주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사진 8> 조영순 사적각문(탁본:제주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사진 9> 조정철 목사 사적 각문

14)까지 제주에 유배되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각을 남기고, 이에 더하여 종조부와 부친의 제주도 유배시절 백록담 등정을 그때의 사적을 소급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백록담의 趙觀彬과 趙榮順 관련 마애석각은 刻文의 형식, 刻字의

84) 오현단의 光風臺 각자인 경우 같은 곳의 증주벽립 각자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여 기록하였지만 이를 새긴 이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서체와 새김형태가 조정철의 마애석각과 동일하다.

그리고 19세기 석각 중에는 당시 일반적 유형의 석각과는 달리 제주유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경외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새겨 놓은 오현단 龔朱壁立 각자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마애석각이 발견되는 경승지가 아닌 배움의 장소인 橘林書院 뒷동산에 해당하는 현 오현단 동산 바위에 새겼다.

오현단 龔朱壁立 각자는 尤庵 宋時烈의 필적으로, 1786년(정조 10) 현 제주시 도련동 출신의 邊聖遇(1721-1787)가 성균관 直講으로 있을 때 우암이 서울에 거처하던 舊基 암벽에 새겨진 각자를 模寫하여 온 것을 1856년(철종 7) 목사 蔡東



<사진 10> 증주벽립 · 광풍대 석각

健이 주도하여 새긴 것이다. 공자의 적통인 龔子和 공맹 유학의 요체를 집대성한 朱子の 끈은 절개를 생각하며 증자와 주자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우암의 끈은 지조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⁸⁵⁾

이는 영조 때 김정 목사의 지주암 각자의 조성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유교를 통한 지방민의 교화라는 조선왕조의 정치적 이상이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시기 마애석각 유형의 독특한 사례로 旌閭를 대신한 마애석각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조선사회는 충·효·열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전역에도 숭한 효자와 열녀비가 세워

85) 우암 구기 증주벽립 각자는 현재 서울특별시 明倫洞 1街 5-99에 소재하는 화강암 암벽에 가로 약 50cm, 세로 약 60cm의 크기로 새겨져 있다.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57호이다(서울특별시, 『서울文化財大觀』, 三省出版印刷株式會社, 1987, 370쪽).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1689년(숙종 15) 2월 4일 제주안치에 명해지고, 6월 3일 서울로 압송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마시고 절명했다. 1695년(숙종 21)에 굴림서원의 四賢에 추향되면서 김정 정은 송인수 김상현과 더불어 五賢으로 숭앙되었다.



<사진 11> 절부암 각문(탁본:제주동양문화연구소 소장)
본받게 하였다.⁸⁸⁾

져 있다.⁸⁶⁾ 그런데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마애석각의 주인공 절부 고씨는 절부로 표창 받을 만한 실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려되지 못했다.⁸⁷⁾ 이에 신재우 관관이 석각을 조성하게 하고 마을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여 그 절개를

이 시기 마애석각의 서체는 45건 중 해서체가 42건으로 대부분이며, 그 외에 초서체 1건, 행서체 1건, 전서체 1건이다. 刻字의 크기는 오현단 曾朱壁立 각자 1자의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64cm, 용수리 절부암 각자 1자의 크기가 가로 58cm, 세로 50.5cm, 오현단 광풍대 각자 1자의 크기가 가로 24cm, 세로 25cm, 백록담 조정철 각자 1자의 크기가 가로 20cm, 세로 17cm로 큰 편에 속한다. 나머지는 1자당 가로 3~14cm, 세로 3~17cm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 개체수에 있어 특이한 점은 용연 마애석각 개체수의 감소이다. 방선문과 백록담은 18세기에 이어 마애석각의 개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용연인 경우 2건으로 18세기 13건에 비해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이에 비해 대정현 산방굴사의 석각이 18세기 5건에서 19세기 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1건에 그치고 있지만 새로운 탐승지로 탐라계곡 마애석각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勝地에 더해서 새로운 승지의 발굴⁸⁹⁾이라는 경향도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6) 현재 제주 전역에 분포하는 효자비는 32기, 열녀비는 40기가 전한다(제주교육박물관, 『제8회 기획전-탐라의 효자열녀전』, 2001 참조).

87) 절부 고씨의 비문 또한 신재우 관관이 지었는데 비문의 말미에 ‘以若村婦能盡殉節 誠一代之所無 亘千古而罕有 營府題意 已多嘉尚 繡道完文 尤用激勸 然旌門之狀請 事係關重 而既無子女 終鮮親戚 卓絕風聲 幾將泯滅于斯矣 余常慨然 乃此勒石 敢題黃絹之辭 用來玄冥之節’이라 기록하고 있다. 곧, 절부 고씨의 순절이 아무리 가상하다고는 하지만 정려를 청하는 일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데, 자녀가 없고 친척이 적어 정려를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행적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염려하여 글을 지어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절부암의 각자는 절부 고씨가 끝내 정려되지 못하여 정려비를 세울 수 없게 되자, 신재우 관관이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절부가 목맨 자리의 바위에 글자를 새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

88)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濟州道 磨崖銘』, 1999, 153쪽.

89) 조우석 목사는 1837년(헌종 3) 9월 탐라계곡을 방문하여 마애석각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조우석 목사의

19세기 마애석각의 분포상황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지어 살펴보면 방선문인 경우 전후반의 구분 없이 꾸준히 석각이 조성되고 있지만, 백록담은 1868년(고종 5) 조희순 목사의 석각을 끝으로 더 이상 지방관들의 마애석각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1876년(고종 13) 이후 19세기 말 사이에 현 제주시 오라동 출신의 향사 이기온 등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배인 김정·이익·최익현의 제명이 나타나고 있다. 산방굴사의 마애석각 또한 1860년(철종 11) 강면규 목사의 제명 이외에는 더 이상의 마애석각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주목 이외의 지역에 마애석각 조성 주요 주도인물로서 제주 목사의 자취가 끊기게 된 데에는 1864년(고종 1) 개편된 제주지역 행정체제의 개편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조정에서는 이해 8월 30일자로 정의현과 대정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⁹⁰⁾ 제주목사의 관할에서 분리시켜 직접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아래 두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목사의 행동반경이 제주목 관내로 한정되게 되고 따라서 방선문에서 이들의 자취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의 소관 밖이 된 옛 정의현과 대정현에서의 자취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체제의 변화는 다시 체통의 문란과 科弊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결국 1880년(고종 17)에 구례대로 환원시켜 두 현을 다시 제주목사의 관할 하에 두게 된다.⁹¹⁾ 하지만 제주지역은 1862년(철종 13) 壬戌民亂, 1890년(고종 27) 庚寅民亂, 1894년(고종 31) 丙申民亂, 1896년(건양 1) 戊戌民亂, 1901년(광무 5) 辛丑民亂 등 지속적으로 봉기하는 민란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목민관들이 예전 같은 원거리 탐승을 꺼렸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시기 제영은 방선문과 산방굴사에서만 보이는데, 방선문에는 1807년(순조 7)에 도입한 목사 韓鼎運과 1828년(순조 28)에 관관 李義謙, 1869년(고종 11)에 목사 趙義純이 5언 절구 1건씩을 남기고 있다. 산방굴사에는 목사 한정운과 1807년(순조 7)에 대정현감 元相堯, 1822년(순조 22)에 대정현감 具齡錫이 5언 절구 1

백록담 마애석각은 같은 해 5월에 조성되었다(부록 <별표-3> 16·17번). 마애석각이 조성된 계곡은 백록담 등정 중 거쳐 가는 한 장소일 수도 있다. 백록담 등정 중 승지를 발견하고 후에 탐라계곡을 목표로 다시 찾은 듯하다.

90) 『高宗實錄』 卷1, 高宗 1年 8月 30日 戊戌條.

91) 『高宗實錄』 卷17, 高宗 17年 1月 27日 乙未條.

건적을 남기고 있다.

19세기 마애석각에 보이는 제영을 마애석각이 나타나는 장소 순으로 배열하고 다시 시기 순으로 차례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⁹²⁾

① 방선문

韓鼎運 5언 절구 : 널려진 바위에 구름이 깊고, 그윽한 꽃은 해를 향하였는데, 신선을 찾아도 볼 수 없으니, 우리들 공연히 온 것 같으니

李義謙 5언 절구 : 포구는 붉어진 해를 삼키고, 산 어깨는 흰 구름 짙어졌으니, 이 저녁 고상히 놀아 보고저, 술동이 들고 와서 글을 논하네

趙義純 5언 절구 : 꽃 사이 실낱같은 오솔길 꼬불, 도끼로 깎아낸 듯 열려진 석문, 參同契 비결 이미 터득했으니, 속세에서 왔다고 꺼리지 마오

② 산방굴사

韓鼎運 5언 절구 : 풀이 시든 절문은 고요하고, 녁쿨 푸른 돌방은 비었는데, 신선의 학울음소리, 바다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듯

元相堯 5언 절구 : 사망 천 리 두른 바다에, 三神山 半空에 술을 엮힌 듯, 알겠네 신선이 사는 곳에다, 하늘이 만든 별천지임을

具齡錫 5언 절구 : 용머리를 누른 형세에, 새도 잠드는 禪僧이 사는 굴, 구름은 발 아래에서 솟고, 신령스런 물방울 굴 안에 떨어지네

이 시기 방선문 제영은 18세기 제영과 비교했을 때 별반 내용상의 변화를 보



<사진 12> 원상요 현감 제영(탁본:제주동양 문화연구소 소장)

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전 시기 목사와 목사측근·유배인 등에 의해 조성되던 용연의 제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산방굴사 제영이 마애석각으로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시기 제영 6수 중 2수가 고을 현감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방굴사 마애석각은

18세기 중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대정 현감 백택인·송익채에 이어 이 시기에 와서 지속적으로 한길모·여철영·구영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세기 중반 이

92) 원문은 부록 <별표-3>의 2·3·4·12·14·28번 참조.

후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산방굴사가 대정현감이 나들이 하는 주요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진 13> 여철영 · 한길모 현감 제명

여철영인 경우는 정의현감이면서도 대정현감 한길모와 나란히 하여 제명을 남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목사의 수행인원이 아닌,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로서 대정·정의 두 현감이 나란히 제명된 경우는 이곳 외에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현감 재임 시 제주목사는 이현택이며, 그의 제명 또한 산방굴사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두 현감의 제명은 동벽에, 이현택 목사 제명은 석굴 안 끝 벽

에 새겨져 있다. 글자 크기는 두 현감의 제명은 비슷하면서 이현택 목사보다 크게 새겨져 있다. 같은 해서체이지만 필체가 다르다. 이로 보아 동일인에 의해 새겨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당시 정의와 대정 두 고을 현감의 교류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취라 여겨진다.

산방굴사의 원상요·구영석의 제명은 또한 18세기 중반을 전후로 백택인이 현감으로는 처음 관내의 산방굴사에 題名을 남긴 이래 현감이 석각 조성 주도인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18세기까지는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이 목사와 관관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 현감으로까지 주도인물이 확산되고 있음을 산방굴사 제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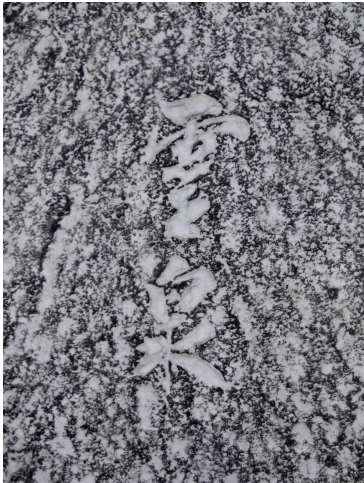
마애석각 조성 주체와 관련해서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주도인물로서 제주인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진 14> 김종보 일행 제명

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백록담 동벽의 암벽 윗면에 각자 1자의 크기가 가로 7cm, 세로 8cm 규모로 새겨진, 金鍾輔를 포함한 5명의 이름에 辛未 간지가 새겨진 마애석각은 백록담뿐만 아



<사진 15> 영천 각자(탁본)

나라 제주지역 전체에 있어 현재까지 확인되는 마애석각 중 제주인으로서는 최초로 마애석각을 남긴 경우이다. 이에 더하여 백록담과 방선문의 최익현 제명과 속칭 ‘가카우니’로 알려진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천 변의 靈泉 각자는 19세기 말 이 마을 출신 이기온이 주도하여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⁹³⁾ 그리고 이기온 등은 이 시기에 백록담에 김정과 이익의 이름도 새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⁹⁴⁾

특히 1811년(순조 11) 김종보 등에 의한 백록담의 마애석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 이전의 탐승이 목사 등 외지인들에 의한 전유물이었다면 19세기에 와서 탐승이 제주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사례라 하겠다.⁹⁵⁾ 이러한 제주인들의 탐승은 19세기 후반 오라동 ‘가카우니’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靈泉 각자

93) 주 44번 참조.

94) 김정과 이익의 이름을 새겨놓은 제명이 동일한 암면에 같은 서체로 1자당 가로 세로 12~13cm의 같은 크기로 새겨져 있고, 인근 독립 바위에 1자당 가로 세로 9~10cm의 최익현 제명이 같은 서체로 새겨져 있다. 동일한 이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23>, <사진 24> 참조). 최근 필자에 의해 발굴된 이용호의 『震翁先生詩稿』나 기타 사료에 의하면 이기온은 최익현 유배 당시 그와 교유하였으며, 이용호도 아버지 이기온으로부터 최익현의 사상을 많이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최익현의 이기온·이용호 부자에 대한 사상적 영향, 이기온의 9대조가 이익이라는 점, 이익이 제주 謫居 시 繼室로 맞이한 이가 獻馬功臣 金萬鑑(1550~1632)의 딸인 경주 김씨라는 점, 김정의 본관 또한 경주 김씨라는 점을 근거로 필자는 백록담 김정·이익·최익현 제명이 이기온 혹은 그의 아들 이용호나 이기온의 제자들에 의해 새겨졌다고 본다. 곧, 최익현은 이기온·이용호 부자의 사상적 연원을, 이익은 부계혈통을, 김정은 모계혈통을 상징하여 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김정은 『濟州風土錄』에서 한라산에 대해 “若登漢挈絕頂 四顧滄溟 俯觀南極老人…惜吾羈囚 勢不能耳”라 하였고 또한, “國法可畏 故其出甚稀 一朔不週或一或二 或踰朔不出”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익의 『艮翁遺稿』에 제주 유배 당시 한라산을 등정하여 남긴 4수의 시가 확인된다. 여기에 并序로 “先正冲菴公在園中 時時往此山而曰 國法之故 不得長在山中 但一月一出云云”이라 기록하고 있다. 『濟州風土錄』기술과 문장형식이 유사하다. 유배 당시 김정 관련 구전을 전해 듣고, 풍토록의 내용을 아울러 참고하여 기록한 것인 듯하다. 여기에서 이익은 김정이 한라산에 가기는 했지만[往此山] 정상인 백록담에 올랐다[登絕頂]고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오래 있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김정의 산행이 등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다른 이의 기록에도 김정의 백록담 등정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백록담의 김정 제명은 김정의 백록담 등정을 기념하여 새긴 것이 아니라 제주에 거주하는 경주 이씨의 근원을 내세우기 위해 이기온 등이 조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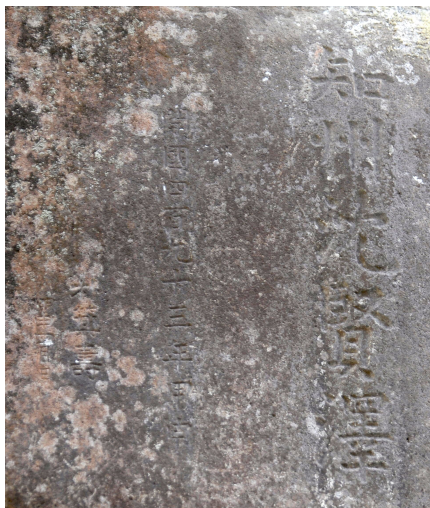
95)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를 통틀어 한라산등정에 관한 기록은 선조 때의 제주목사 林晉의 자제 林梯에서부터 현종 때의 李源祚 제주목사에 이르기까지 약 6편의 등정기록이 전해진다(『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濟州文化院, 2000 참조). 여기에서 제주인은 指路者의 역할로 백록담에 올랐을 뿐 산행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발굴된 조천리 金義正의 『해은문집』에 제주인으로서의 최초의 등정기록(1895년)인 「한라산기」가 수록되어 있다(백규상 역,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 41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참조). 김종보의 백록담 마애석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9세기에 들어서면 제주의 제지사족들 사이에도 한라산등정이 탐승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에 陽刻으로 새겨진 초서체 半仙과 小瀛邱, 覺夏泉, 오라동 文淵社 유생으로 파악되는 聯名의 제명 각자 등이 확인된다.

이 시기 마애석각 중 각자의 간지에 방문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각자는 방선문인 경우 四月初一日·四月·閏五月晦日·四月日·閏五月晦日·四月吉日·三月日·四月日·五月日·潤五月初五日·閏五月初五日·春·四月二十日·四月日, 백록담인 경우 三月·三月·八月十一日·五月日, 산방굴사인 경우 五月日·三月日, 용연인 경우 三月日·九日, 탐라계곡인 경우 九月日이다. 곧, 방선문 총 14건 중 여름 12건, 봄이 2건 순이다. 백록담은 총 4건 중 봄 2건, 여름과 가을 각 1건씩이다. 산방굴사는 총 2건으로 봄과 여름이 각 1건이다. 용연은 총 2건에 봄과 가을 1건씩, 탐라계곡은 가을 1건이다.

이를 통해 방선문은 18세기에 이어 19세기에도 여전히 4~5월 賞春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으며, 백록담도 겨울을 제외한 세 계절에 등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방굴사는 봄과 여름, 용연은 봄과 가을에, 탐라계곡은 가을에 탐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연도 표기와 관련하여 19세기 마애석각 중 방선문에 새겨진 沈賢澤 목사 제명과 搜雲契와 風詠錄 회원의 제명은 특이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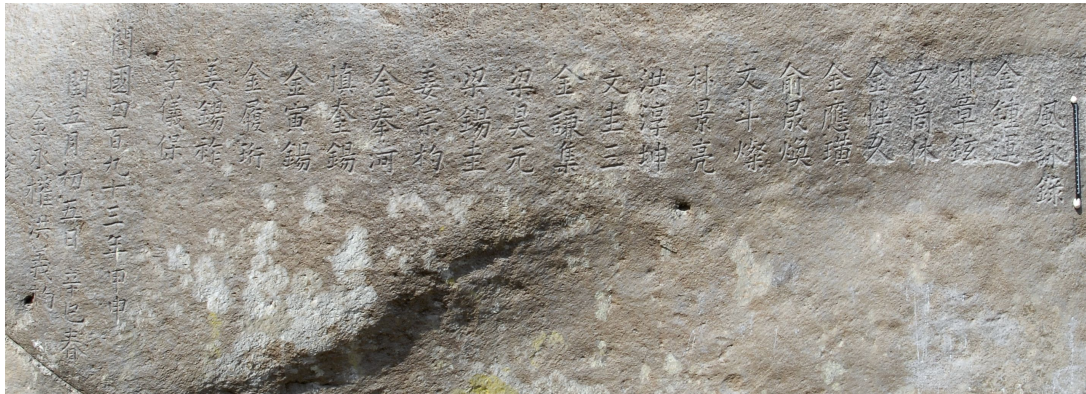
<사진 16> 심현택 목사 제명

이외에서 시작된 조선후기 마애석각은 심현택 목사 제명이 조성되기 전까지 방문일자가 새겨진 경우, 언제나 방문한 해를 나타내는 간지와 월일만을 새겨놓았다. 그런데 1884년(고종 21) 4월 방선문을 방문한 심현택 목사의 제명에는 甲申이라는 간지 앞에 開國四百九十三年이라는 조선개국연호를 새겨놓았다. 다음 달 같은 곳을 방문했던 수운계와 풍영록의 명단을 새긴 석각 또한 심현택 목사와 똑같이 조선개국연호를 새겨놓았다.

19세기에 들어 조선은 이전 주자학 一尊主義의 사상풍토에서 척사위정론·동학사상·개화사상 등 3개의 갈래로 분화된 사상이 상호간 경쟁적인 상황에서 개화사상을 신봉하고 있던 인물들에 의해 조선의 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⁹⁶⁾

1876년 2월 26일 체결된 조일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미국(1882)·영국(1883)·독일(1883)·러시아(1884)·이태리(1884)·프랑스(1886)·오스트리아(1892)·청(1899)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심현택 목사와 수운계, 풍영록 제명의 開國四百九十三年 연호표기는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기존 淸의 속국에서 벗어난 자주국가로서의 조선을 지향하는 당시 개화사상의 영향이 제주지역까지 전파되어 나온 연호 표기인 듯하다. 공식적인 개국 연호의 사용은 갑오개혁 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인데⁹⁷⁾ 심현택 등의 석각에 이미 10년이나 앞서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심현택 목사 등의 마애석각 3건에 보이는 개국연호 표기는 19세기 후반 외국 열강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조선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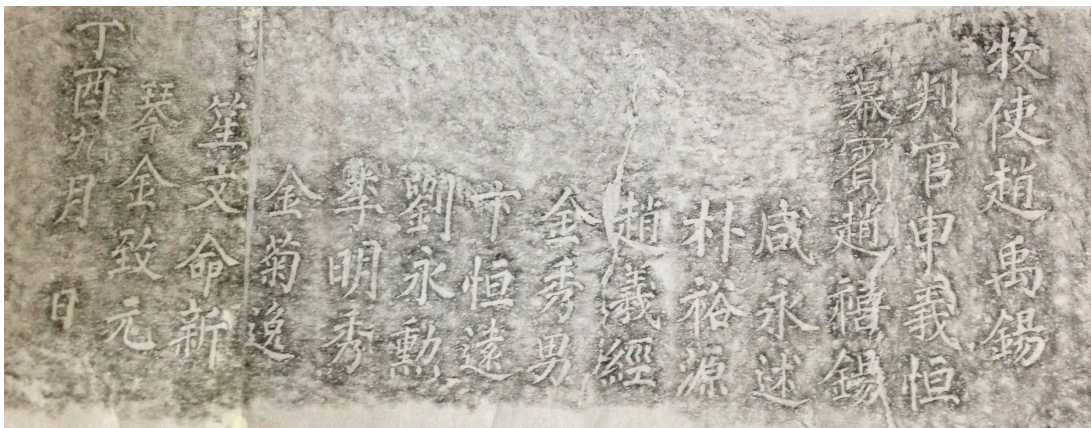
<사진 17> 풍영록 제명

그런데 이 3건의 마애석각 외에 더 이상의 개국 연호가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1884년에 한정된 조선개국연호 표기는 1883년 在朝鮮日本人民通商章程 체결이후 가속화된 일본어민의 半漁半賊의 침탈에 대한 생존권적 위협을 느낀 당시 제주사회의 위기의식을 표기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⁸⁾

96) 이재석, 「한국의 개국과 전환기의 국제교역환경」, 『韓國政治外交史論叢』第22輯 1號, 2000, 8쪽.
 97) 건국 이후 사용하여 온 명·청 등의 중국연호 대신 개국년을 원년으로 기산하여 갑오개혁 당년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산정함으로써 청나라의 연호인 光緒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연호는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하고, 建陽을 새 연호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다.
 98) 심현택 목사 재임 당시 속력을 갖춘 어선에 근대화된 어로법에 의한 일본인들의 제주도 연안 불법 어업이 극성이었다(金榮治,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353쪽), 이에 대해 심현택은 어업과 채취업에 의존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의 생계를 걱정하며 조치할 방모를 묻는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承政院日記』, 高宗 21年 7月 18日 庚申條). 강화도조약 이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일본어민의 제주어업침탈과정이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 제3집, 1986, 129-130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시기에도 18세기의 경우처럼 석각 조성 주도인물 1인이 2곳 이상에 석각을 남긴 사례가 보인다.

목사로는 순조 때 한정운과 이현택이 방선문·산방굴사, 헌종 때 조우석이 백록담·탐라계곡·산방굴사, 철종 때 강면규가 방선문·산방굴사, 고종 때 조희순이 방선문·백록담, 심원택이 방선문·용연에 마애석각을 남기고 있다. 이외에 최익현의 이름을 새긴 마애석각이 방선문과 백록담에 전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인 이기운 등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18> 조우석 목사 일행 제명(탁본:탐라계곡)

조우석의 경우 같은 해에 달을 달리하여 백록담과 탐라계곡, 산방굴사를 방문하였는데, 세 곳의 刻文 끝에 함께 한 樂工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개인적 취향에 따른 동반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 심신수양의 방편으로 행해졌던 탐승이 유흥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 인물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은 방문했던 이들의 이름을 새긴 題名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명에 있어서 單名인 경우 대부분 이름의 주인공 그 자신이 마애석각 조성의 주체가 되지만, 연명으로 새겨진 경우에는 그 집단을 대표하여 석각 조성을 주도한 인물과 그를 수행하여 따라갔던 인원이 있게 마련이다.

본장에서는 마애석각에 이름이 새겨진 인물들을 마애석각 조성 주체인 主導人物과 이들과 함께 했던 隨行人員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행적을 고찰하고, 이외에 현직관료와 제주인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의 주인공인 어사와 유배인, 절부의 행적을 고찰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는 단초로 삼고자 한다.

1. 마애석각 조성 主導人物

1) 제주목사

제주목사의 이름이 새겨진 마애석각에서 제주목사는 언제나 題名된 이들의 주인공으로서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이 된다.

조선시대 제주목사는 1393년(태조 2) 12월에 도입한 萬戶兼牧使인 呂義孫에서부터 제주군수 徐丙業에 이르기까지 모두 286명에 이른다.⁹⁹⁾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중 제명이 있거나 혹은 석각 조성과 관련 있는 목사는 효종에서 현종 연간의 李檣를 시작으로 고종 때의 宋龜浩에 이르기까지 모두 39인이며, 이는 조선시대 전체 목사수 대비 14%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과 목사로부터 19세기 말까지 재임했던 제주목사는 126명이다. 이과

99) 제주시,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5, 345-359쪽.

목사 이후 30%에 해당하는 목사가 마애석각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주지역에 남긴 마애석각 수는 57건으로 전체 마애석각 개체수 95건 대비 60%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찰함에 있어 마애석각 조성 주요 주도인물인 제주목사에 대한 재임 시 행적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제주목사 재임 시 주요 행적과 이들이 주도하여 조성한 마애석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⁰⁰⁾

<표 4> 마애석각 조성 제주목사 주요 행적 및 석각 내용 일람

성명	재임연월	주요 행적
		석각 내용
李檣	1658.4-1660.5	山馬監牧官 啓設, 藏修堂 건립. ¹⁰¹⁾ 禾北城 題下 7언 읍시, 望京樓 제하 7언 읍시 남김. ¹⁰²⁾
		仙遊潭 題額, 판관 金雨 이하 10인과 題名(용연).
李翊漢	1662.8-1663.3	次明月 鑰壁上韻 제하 7언 읍시 ¹⁰³⁾ , 정방폭포와 천지연 관련 5언 읍시, 산방산 7언 읍시 남김.
		碧泓 제액, 판관 羅八紀 이하 9인과 제명(용연).
元相	1680.5-1680.8	판관 姜聖佐 이하 13인과 제명(용연).
金倣	1735.4-1737.9	三泉書堂 창건, 禾北浦 제방 축조, 尊敬閣 조성. 享儀室記·연교정상량문·삼천서당상량문·禾北鎭·明月鎭·瀛洲山·天池淵·正方瀑 제하 7언 절구 남김.
		砥柱岩·嘉樂川·朝天石 각자 조성(산지천 지주암).
洪重徵	1738.10-1739.9	진홀 ¹⁰⁴⁾ , 靑衿生 설치. 愛梅軒과 7언 절구 ¹⁰⁵⁾ , 觀德亭·望京樓·演武亭 제하 7언 읍시 각 1수씩 남김.
		登瀛丘 5언 절구(방선문), 초서체 翠屏潭 제액(용연).
安慶運	1740.9-1743.3	三乙那 廟生과 齋任 개정, 흥년에 삼읍 田稅 당감, 橘林堂 중수, 運壽堂 중수, ¹⁰⁶⁾ 觀德亭 제하 7언 읍시 남김.
		아들 取範 이하 7인과 제명(용연·방선문).
金潤	1743.3-1744.9	牧子庫 설치.

100) 제주목사의 재임연월과 재임 시 주요 행적은 1954년 淡水契 編의 『增補耽羅誌』(影印本, 濟州文化院 2004)의 「觀風案」과 金錫翼의 「耽羅觀風案」(『心齋集』(II), 濟州文化社, 199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외의 행적 중 실록이나 읍지, 개인문집에서 조사한 내용은 별도 각주 처리하였다.

성명	제임연월	주요 행적
		석각 내용
		黃奎鉉·金澈과 제명(방선문).
尹植	1744.9-1745.9	『耽羅續誌』와 「孝烈篇」 편찬, 진휼, 10소장 울타리 증축. ¹⁰⁷⁾
		尹權 이하 9인과 제명(백록담).
尹九淵	1751.8-1752.12	徭役 견감.
		군관 閔震 이하 5인과 제명(방선문).
金夢燿	1752.121-754.10	翁仲石 건립, 運壽堂·觀德亭 중창.
		군관 李涉 이하 10인(용연), 아들 肅基 이하 12인(방선문), 李凌 이하 5인(산방굴사)과 제명.
洪泰斗	1754.10-1756.윤9	조 1만여 包로 진휼, 제주향교 廣壤으로 이건. ¹⁰⁸⁾
		군관 李問樞 이하 3인과 제명(방선문).
李潤成	1756.윤9-1757.10	흥년에 백성 진휼, 수입 胡馬 방목에 힘씀. ¹⁰⁹⁾
		신임 제주목사 趙威鎭과 제명(백록담).
趙威鎭	1757.11-1759.5	구임 제주목사 李潤成과 제명(백록담).
南益祥	1767.2-1769.7	裨將廳 건립, 남·북 水口 수축.
		단명(용연), 南峴 이하 4인(백록담)과 제명.
朴聖浹	1773.3-1774.5	白虎樓(제주 西城門) 중수.
		군관 朴聖漢 이하 7인과 제명(방선문).
柳燾	1775.2-1777.3	1775년 가을 흥년 조 1만 섬 요청·진휼.
		節度使가 되어 떠나감을 기록(용연).
金永綬	1778.12-1781.3	山場 경계 축장, 蘇民門·受福門 건축, 看月川 堡와 間城 건축, 光齋樓 架設, 관덕정 ‘耽羅形勝’ 편액 씌.
		喚仙臺 제액, 5인 읍시 제액(방선문), 5인 읍시 2수와 5인 절구 1수 제영(용연).
李養鼎	1781.7-1782.1	觀德亭 제하 7인 읍시 남김. ¹¹⁰⁾
		李景麟 이하 4인(용연), 李亨默 이하 2인(백록담), 李儒謙 이하 3인(산방굴사), 李亨默 이하 2인(정방폭포)과 제명.
嚴思晩	1783.6-1785.5	三姓祠 賜額.
		嚴璿 이하 7인과 제명(백록담).

성명	제임연월	주요 행적
		석각 내용
尹得達	1785.5-1786.4	진상 靑橘 부패로 파직.
		訪仙門 제액, 아들 翎東 이하 6인과 제액(방선문).
李命俊	1786.4-1788.3	1786년 흉년에 旌義縣民 진휼, 1787년 흉년에 쌀 3천섬과 보리 7백여 섬으로 진휼.
		단명 제명(용연·방선문).
鄭觀輝	1799.12-1802.3	宋尤菴謫廬遺墟碑 비각 설립, 悅樂齋(대정서당) 기문 지음.
		단명 제명(방선문).
韓鼎運	1807.3-1809.1	延祥樓(제주 동성문) 중수, 軍器庫·남북 水口의 虹門 개축, 사라봉 植樹, 망경루 북쪽 과수원 설치, 拱辰亭 중건, ¹¹¹⁾ 대정서당 제하 7언 읍시와 ¹¹²⁾ 관덕정 제하 7언 읍시 ¹¹³⁾ 남김.
		5언 절구 제영(방선문·산방굴사 각 1수).
李顯宅	1809.1-1811.6	制勝亭·運籌堂 개건, 삼남 기근에 본주 別儲米로 진휼, 매년 곡식 8백 섬을 실어 와서 公用에 보충.
		조카 義達 이하 7인과 제명(방선문), 단명 제명(산방굴사).
趙貞喆	1811.6-1812.6	정의현 金昌彦의 처 오씨 가문 정표, ¹¹⁴⁾ 동·서성 외곽 개축, 垓子 밑에 12果園 설치, 觀德亭 제하 7언 읍시 ¹¹⁵⁾ 와 拱辰亭 제하 5언 절구 남김.
		자신과 아버지 趙榮順, 종조부 趙觀彬의 사적을 새긴 석각 3건 조성(백록담).
朴長復	1834.7-1836.3	대정향교 중수, ¹¹⁶⁾ 孝和殿(조선 익종의 魂殿) 薦新用 굴붕진 불이행으로 파직, 관덕정 제하 7언 읍시 남김. ¹¹⁷⁾
		단명 제명(백록담).
趙禹錫	1836.3-1837.11	진휼 잘못으로 도민 다수 餓死.
		趙義經 이하 9인(백록담), 판관 申義恒 이하 12인(탐라계곡), 판관 申義恒 이하 10인(산방굴사)과 제명.
李源祚	1841.윤3-1843.6	1841년 흉년에 호남 沿邑의 쌀 2천 5백 섬을 요청하여 구휼, 廩米 1천 1백 79섬으로 還耗 방지, 우도와 가파도 경작 허가, 鄭桐溪謫廬遺墟碑 설립, 鄉賢祠 설립(高得宗 제사), 松竹祠 건립(鄭蘊 제사), 호자 朴繼崑의 기 ¹¹⁸⁾ ·홍화각 중수기·삼천서당 중수기·상현사기·연희각기, 정방폭·천

성명	제임연월	주요 행적
		석각 내용
		지연·연희각·관덕정·망경루·공신정·화북진·조친진·명월진·백록담·영실·용연·대정서당 제하 절구와 읍시다수 남김. 아들 鼎湘 이하 4인과 제명(방선문).
張寅植	1848.3-1850.6	還穀 건감, 水稅錢 폐지, 外通房 설치, 金鐘閣 설립, 정의향교 이건, 崇報堂과 審古堂 창건, 三學堂 복원, 義士廟 건립(吳興泰 제향), 문무 初試 개설, 別儲庫 설치, 海神祭 제향 허가, 各庫 刊木 혁파. 崔炳吉 이하 약 4인 ¹¹⁹⁾ 과 제명(산방굴사).
睦仁培	1853.12-1855.8	啓聖祠 창건, 社稷壇 개축. 아들 裕錫과 제명(방선문).
蔡東健	1855.8-1857.6	延祥樓(제주 동성문) 중수. 관관 洪敬燮과 曾朱壁立 각자 조성(오현단).
姜冕奎	1860.윤3-1861.2	조카 鎬 이하 3인과 제명(방선문), 단명 제명(산방굴사).
鄭岐源	1863.1-1864.3	壬戌民擾 장두 姜悌儉, 金興采 등 사형, ¹²⁰⁾ 平役米 건감·금전으로 규정. 出身 康錫五 이하 2인과 제명(용연).
趙義純	1868.10-1872.5	쌀 2천 섬과 內帑錢 2천 냥으로 賑恤, 향교 중수, 擊擡 개건, 3읍 院宇 脩繕. 단명 제명(백록담), 5인 절구(방선문).
朴善陽	1881.5-1883.5	관덕정 중수, 문묘와 州社의 희생용 소 부활, ¹²¹⁾ 관덕정에 湖南第一亭 편액 글씨 씌움. ¹²²⁾ 朴寅陽 이하 10인과 제명(방선문).
沈賢澤	1883.5-1884.12	拱辰亭 중수, 일본 선박 세 척이 어업을 목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정의현 포구에 이르자 狀啓. 朴箕壽와 제명(방선문).
洪圭	1884.12-1886.5	延曦閣(동헌) 중수, 感恩堂 설치. 군관 申鶴熙 이하 4인과 제명(방선문).
沈遠澤	1886.5-1888.7	남수구 홍예문 개조. 군관 朴永漢 이하 4인과 제명(용연·방선문).

성명	제임연월	주요 행적
		석각 내용
宋龜浩	1888.7-1890.4	毛興穴 祭閣 설립.
		아들 榮稷 이하 6인과 제명(방선문).

조선시대 수령의 기능으로 대표적인 것은 農桑盛 賦役均 戶口增 學校興 詞訟簡 奸猾息으로 표현되는 守令七事였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령의 기능은 租·役·貢物의 수취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능 외에 軍器 및 習陣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 등의 군사적 기능, 詞訟의 처리, 기민진휼 및 지방민을 교화하는

- 101) 제주인 진사 金晉鎔(1605-1663)의 제안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김진용을 교수로 삼아 학업을 권장하고 교육제정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씨가 지은 藏修堂記가 전해지고 있다.
- 102)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05, 333쪽; 李源祚, 앞의 책, 濟州, 樓觀條.
- 103) 李增, 앞의 책, 庚申(1680) 1月 25日 乙卯條. 이하의 제영은 李益泰, 앞의 책, 甲戌(1694) 9月 13日條와 甲戌 9月 19日條 참조. 이외에 이종의 『남사일록』에 明月鎭, 이원진의 『탐라지초본』에 延曠閣과 愛梅軒을 읊은 시가 있으나 1711년(숙종 37)에 도입했던 同名의 제주목사 이익한이 있어 누구의 제영인지 확인할 수 없다.
- 104) 1738(영조 14년)에 목사 홍중징이 임금께 진휼을 청하니, 특교로서 “나리포미 3,500섬, 常賑還牟 5,000섬, 儲置米 1,500섬, 씨앗 콩 700섬을 관찰사로 하여금 나누어 들여보내는 데, 반드시 각각 그 고을의 선박으로서 해를 넘기지 말고 들여보내라.”라고 하셨다(李源祚, 앞의 책, 濟州, 恩恤條).
- 105) 李源祚, 앞의 책, 濟州, 公廨條. 이하 제영은 이원조의 같은 책 濟州, 樓觀條 참조.
- 106) 위의 책, 濟州, 公廨條. 이하 제영은 이원조의 같은 책 濟州, 樓觀條 참조.
- 107) 위의 책, 濟州 牧養條.
- 108) 홍순만 외, 淡水契 편, 앞의 책, 제주문화원, 389쪽.
- 109) 『英祖實錄』卷91, 英祖 34年 5月 14日 己亥條.
- 110) 李源祚, 앞의 책, 濟州, 樓觀條.
- 111) 위의 책, 같은 조.
- 112) 위의 책, 大靜, 學校條.
- 113) 위의 책, 濟州, 樓觀條.
- 114) 『純祖實錄』卷16, 純祖 12年 10月 12日 辛亥條.
- 115) 이하 李源祚, 앞의 책, 濟州, 樓觀條.
- 116) 위의 책, 大靜, 學校條.
- 117) 위의 책, 濟州, 樓觀條.
- 118) 위의 책, 濟州, 人物條. 다음의 記文은 각각 『耽羅誌草本』, 濟州 公廨條와 學校條, 題詠은 旌義 形勝條·濟州 樓觀條·濟州 鎭堡條·濟州 形勝條에 등재되어 있다.
- 119) 判官 姜까지는 판독이 가능하지만 이름자는 마멸되었다. 장인식 목사 당시 판관은 姜在毅이다(『增補耽羅誌』 「觀風案」).
- 120) 1862년(철종 13) 11월에 목사 任憲대가 場火稅(火田을 일군 농민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를 지나치게 거두어서 백성의 원성이 매우 컸다. 강제검과 김홍채 등이 난을 일으켜 밤중에 성 안으로 침입하여 가옥을 부수고 奸吏를 죽이며 목사 임헌대를 화북포로 축출하니 백성의 소요가 점점 치열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목사 정기원이 내도하여 세율을 삭감하고 강제검·김홍채 두 사람을 체포하여 처형하니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 이를 壬戌民擾라고 한다(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505쪽).
- 121) 문묘와 州社의 諸公祀에 牲牛를 쓰되, 유생 李基璠의 청원에 따라 毛洞과 黃漆 두 목장에서 기르는 소를 春秋祭의 희생용으로 썼다(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앞의 책, 851쪽의 주 396).
- 122) 읍지 등 문헌기록에 없고, 필자 현장조사에 의한 기록이다.

등 사회적 기능 등을 수행하였다.¹²³⁾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을 주도한 제주목사가 재임 시 제주에서 행한 행적은 <표4>의 주요 행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령칠사로 통칭되는 수령의 일반적 업무수행의 자취이며, 이 중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흉년 때의 진휼¹²⁴⁾이나 救弊, 건물의 창건과 증축 같은 가시적인 것들이 후대에까지 제주 3읍의 도민들에게 회자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피의 장수당 건립, 김정의 삼천서당 창설, 홍태두의 제주향교 이건, 장인식의 삼학당 복원 등은 수령칠사 중 學校興에 관한 업무이며, 이를 통한 사회적 교화는 또한 중앙집권체제 유지를 위한 치민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목사에 의한 존경각 조성, 이원조의 향현사와 송죽사 창설, 엄사만의 삼성사 사액, 장인식의 의사묘 건립, 목인배의 계성사 창건, 채동건의 증주벽립 각자 조성 등의 제반 행적은 또한 文明에 의한 제주도민 교화의 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제주목사는 일반적인 수령의 업무 외에 정의·대정의 수령을褒貶하여 전라도관찰사에게 보고하고, 農形을 국왕에게 보고하며, 薦新進上物을 중앙에 上送하는 등 일반목사의 직임이 아닌 관찰사의 직임에 준하는 많은 직임을 담당하였다.¹²⁵⁾ 제주도의 경우 본래 전라도관찰사의 관할이지만,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주목사가 대정현과 정의현의 수령을 관할하였기 때문이다.¹²⁶⁾

한정운과 조정철의 과원 설치 등은 제주목사의 감괄 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고, 윤득규와 박장복의 감괄 부패로 인한 파직은 감괄 진상이 제주목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음을 실증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감괄 천신의 진상 외에 貢馬 또한 제주목사의 막중한 임무의 하나로써, 이피의 산마감목관 개설, 윤식의 10소장 울타리 정비, 김영수의 산마장 경계 축장, 김윤의 목자고 설치 등이 이와 관련된 행적이다.

123) 金東攄, 『朝鮮前期 守令制度 研究』, 『史學志』 21, 1987, 329쪽.

124) 흉년에 백성들에 대한 진휼은 수령의 주요 업무였다(『經國大典』, 戶典, 備荒條).

125) 李義權, 앞의 책, 37-38쪽.

126) 『成宗實錄』 卷236, 成宗 21年 10月 28日 丙子條, ‘本州牧使爲實職 而節制使則兼官也 牧使當專治民事 兼理軍務 而自謂按察三邑 褒貶守令…’.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파견된 제주목사의 특수한 직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의현과 대정현 지경에 보이는 목사들의 마애석각이 목사들의 탐승행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목사의 정의·대정 순력과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후기 권농은 수령의 첫째 업무로써¹²⁷⁾, 수령은 매년 봄과 가을로 堤堰을 수축하여 경작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¹²⁸⁾ 따라서 제주목사는 제주목 뿐만 아니라 대정·정의 양현을 관할하면서 두 곳의 수령을 포괄해야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순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순력의 과정에서 탐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목사들의 화북진·조천진·명월진 제하의 시들은 이러한 순력의 과정에서 남은 자취들이다. 목사의 제주 3읍 순력은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 조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상 제주목사의 주요행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을 주도한 제주목사는 재임기간 동안 유람 또는 순력의 과정에서 제주 3읍의 승지에 마애석각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과 채동건의 경우 승지가 아닌 읍성 안의 산지천과 오현단에 교혼적 내용의 마애석각을 남기고 있고, 특히 조정철은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과거 제주에 유배되었던 자신의 사적뿐만 아니라 종조부와 부친의 유배관련 사적을 기록한 마애석각을 남기고 있다. 제주지역 마애석각이 모두 탐승의 결과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2) 관관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중 관관이 주도가 되어 조성된 마애석각은 18세기 초반 정동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석각 조성을 주도한 관관은 9인이며,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²⁹⁾

18세기(4인) : 鄭東里(재임:1726.9-1728.6) 朴昌鳳(재임:1752.11-1754.4)

127) 『牧民心書』戶典, 勸農條, ‘勸農者 民之首務也’.

128) 『續大典』戶典, 田宅條.

129) 관관의 재임시기는 『增補耽羅誌』 「觀風案」을 주로 하고, 『耽羅誌草本』 「官案」과 『心齋集』 「耽羅觀風案」을 참조하였다. 다음 2절 ‘수행 관관’도 이와 같다.

黃德彬(재임:1770.3-1772.8) 金鳳吉(재임:1788.1-1790.8)
 19세기(5인) : 李必述(재임:1825.5-1827.10) 李義謙(재임:1827.10-1829.6)
 愼裁佑(재임:1866.10-1867.7) 高景峻(재임:1883.8-1885.4)
 康仁鎬(재임:1888.4-1889.4)

이들 중 제주판관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행적이 문헌에 남아있는 이는 박창봉과 이의겸 2인에 불과하다. 박창봉은 貢馬를 잃어버린 일로 붙잡혀 갔으며,¹³⁰⁾ 이의겸은 제주목사 李行教가 貪淫하고 愚狂하다고 조정에 계청하여 파직되었다.¹³¹⁾ 여기에 제주판관 이후 정의군수를 역임한 강인호인 경우 1898년(광무 2)에 정의현의 일관현을 중수한 행적¹³²⁾만이 더할 뿐이다.

마애석각 조성과 관련한 주요 인물은 정동리 판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동리는 방선문에 현존하는 最古의 마애석각 조성자이며, 또한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나타나는 題詠의 최초 조성자이기도 하다. 이외에 이의겸은 방선문에 5언 절구 1수를 새겼으며, 황덕빈은 백록담에 동행 2인과, 김봉길은 單名으로, 이필술은 아들 斗南 이하 약 8인¹³³⁾과, 고경준은 단명, 강인호는 단명으로 각각 방선문에 題名하였다. 고경준과 신재우는 제주 출신¹³⁴⁾으로 각각 제명(방선문)과 정려 관련(절부암) 마애석각을 남기고 있다.

제주목사는 소관인 제주목을 총괄하면서 대정·정의현 지역을 감독 규찰해 나갔는데, 이와 같은 수령행정체계에서 소관 제주목에 관계된 사항은 副官격인 판

130) 『耽羅誌草本』 「官案」에는 '12월에 부임하여 1754년(영조 30) 7월에 교체되자 떠났다', 『心齋集』 「耽羅觀風案」에는 '9월에 붙잡혀 갔다'고 되어있다.

131) 金燦洽,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534쪽.

132) 위의 책, 29쪽.

133) 마멸이 심해서 李必述 이하 5인까지는 판독이 가능하지만 이후 4명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글자 크기와 문자열의 간격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이필술의 이름 앞에 직함은 새기지 않았다.

134) 고경준은 鎭海현감 高處亮의 5세손으로 1839년(헌종 5) 9월 29일 애월읍 水山里의 속칭 오름가름에서 아버지 漢柱와 어머니 양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문과 별시에서 乙科로 뽑혔으며 1865년(고종 2) 承文院 副正字가 되었다. 1866년(고종 3)부터 副司果를 시작으로 성균관 전직, 병조좌랑, 사헌부 지평, 함경도 안변의 高山찰방 겸 춘추관 記書官, 全羅都事, 강원도 원주의 保安찰방, 宗親府正, 편수관, 예조좌랑 등을 거쳐 제주판관으로 등용됐다(金燦洽,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34쪽). 신재우는 1862년(철종 13) 제주안핵검찰리어사 李建弼이 내도하여 실시한 과거에서 합격하고 다음해인 1863년(철종 14) 정시 문과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헌부지평을 거쳐 사간원정언, 평안도 영변의 漁川찰방, 강원도 원주의 保安찰방을 역임하였다. 1866년(고종 3) 10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靑岩찰방 재임 중 李南載의 후임으로 제주판관에 부임하였는데, 1867년(고종 4) 7월 전임지 청암에서의 일로 파직되었다. 이후 1882년(고종19)과 1898년 두 번에 걸쳐 대정현감에 부임하였다(金燦洽,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0, 348쪽).

관이 대행하거나 혹은 목사가公私로 시간이 없을 때 관관이 대신하여 대정·정의현의 업무를 감독하기도 하였다.¹³⁵⁾ 따라서 제주관관은 실질적인 지방장관으로서 수령이 아니었지만 제주읍성 내에 제주관관이 거처하며 행정을 보던 곳인 貳衙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있어 관관이 주도하여 조성한 마애석각이 대정·정의 현감 등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인 18세기 초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하지만 관관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은 방선문과 용연 등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제주관관의 주업무가 제주목의 민정과 군정에 한정하여 제주목사를 보좌하는 소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마애석각 조성을 주도한 관관의 수가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제주관관의 수 152명¹³⁶⁾ 대비 5.3%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필술이 주도하여 조성한 마애석각에 정의현감 강연의 이름이 보인다(부록 <별표-3> 13번 참조). 관관이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이면서 현감이 수행인원이 되어 관관의 소관처 내 승지에 마애석각을 조성한 유일한 사례이다. 제주 3읍 통치행정에 있어서 제주목사 다음의 품계를 가진 지방관으로서 관관의 역할을 실증하는 역사적 자료가 된다.

3) 현감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중 현감이 주도하여 조성한 마애석각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영조 때의 백택인을 시작으로 순조 때 구영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7인이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³⁷⁾

18세기(3인) : 白宅仁(재임:1748.8-1751.4) 宋益彩(재임:1767.6-1770.5)

135) 金東柱,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40쪽.

136) 『增補耽羅誌』의 「觀風安」을 참조했다.

137) 대정·정의 양 현감의 도체임 연월일은 읍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南萬里 編, 『耽羅誌』의 旌義 大靜縣의 「先生錄」을 참고하였다. 다음 2절 ‘수행 현감’도 이와 같다. 단, 본절의 남수, 구영석과 다음 2절의 노상희, 안의석의 체귀 월은 위 탐라지에 표기되지 않아 李源祚 『耽羅誌草本』의 旌義 大靜 「官案」을 참조하였다.

南凍(재임:1793.12-1795.9)

19세기(4인) : 元相堯(재임:1806.7-1809.1) 韓吉謨(재임:1809.1-1810.11)

 呂喆永(재임:1808.7-1810.2) 具齡錫(재임:1820.2-1823.3)

정의·대정 양현의 현감 중 대정현감은 백택인·송익채·원상요·한길모 등 4인이고, 정의현감은 남수·여철영·구영석 등 3인이다.

남수는 1794년(정조 18)에 큰 흉년이 들자 상소를 올려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청백리로 일컬어진다.¹³⁸⁾ 日觀軒 제하 7언 읍시가 전한다.¹³⁹⁾

여철영은 1809년(순조 9)에 李顯宅 목사와 상의하여 정의향교를 西城 안으로부터 성읍리 化源洞에 옮겨 세우기로 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공역을 벌이던 중 客舍의 화재를 만나 갑자기 교체되어 떠나게 되어 공역을 마칠 수가 없었다.¹⁴⁰⁾

원상요는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산방굴사 제영 5언 절구의 기록이 전한다.¹⁴¹⁾ 이외 현감들의 제주관련 행적은 기타 문헌이나 실록 등에서 찾을 수 없다.

두 현의 현감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은 남수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낙수 어사 사적 관련 마애석각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방굴사에 제명 또는 제영을 새긴 것이다. 한길모와 여철영의 제명은 대정현과 정의현의 현직 현감으로서 함께 산방굴사를 방문하여 제명을 남기고 있는 경우이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전라도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주 3읍의 수령은 독자적으로 상위관서인 전라도관찰사의 통제를 받아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제주목사는 전라도관찰사의 포폄을 받고 있었지만, 대정·정의현감은 전라도관찰사의 직접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주목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¹⁴²⁾ 제주목사와 上命下服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수령의 입장이라고는 하나 제주목사의 지방통치행정의 범위 내에서 그 행동반경이 목사만큼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마애석각 조성을 주도한 그들의 자

138) 南萬里 編, 『耽羅誌』卷3, 旌義縣, 先生錄.

139) 李源祚, 앞의 책, 旌義, 樓觀條.

140) 위의 책, 旌義, 官案條.

141) 위의 책, 大靜, 形勝條.

142) 김동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40쪽.

취는 조선후기 마애석각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 이후 정의·대정 양현에 재입했던 전체 현감 수 229명¹⁴³⁾ 대비 2.6%의 극히 미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4) 유배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유배인 중 마애석각 조성을 직접 주도한 유배인은 3인이며, 이를 시기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 鄭履煥(유배기간:1766.4-1767.3) 任觀周(유배기간:1767.6-1767.9)

19세기 : 尹相和(유배기간:1882.12-1884.5)¹⁴⁴⁾

정이환(1731-?)은 1766년(영조 42) 경연관으로 정치문제를 논하다 영조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여 파직된 宋明欽 등의 사면을 요청하였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어¹⁴⁵⁾ 이듬해 3월에 풀려났는데,¹⁴⁶⁾ 백록담에 새겨진 제영은 해배 후 제주를 떠나기 전에 한라산을 등정하여 남긴 것이다.

임관주(1732-?)는 1767년(영조 43) 정언으로서 영조가 지은 「裕昆錄」의 내용과 수원부사의 천거 미속행에 따른 영조의 처분과 언관에 대한 영조의 태도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¹⁴⁷⁾ 이 상소로 인해 6월 대정현 창천리에 유배되었다. 하지만 유배된 지 석 달 만인 9월에 늙은 아버지가 있다 하여 방면되었다.

윤상화는 1882년(고종 19) 副護軍으로 임명되었다.¹⁴⁸⁾ 영의정 洪淳穆 등으로부

143) 대정군수 南萬里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耽羅誌』 「先生錄」에 의하면 조선시대 정의현감은 172명, 대정현감은 183명으로 양 현의 현감은 모두 355명에 이른다. 이중 조선후기 마애석각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효종에서 현종 연간 이피 목사 재임 시를 기점으로 하면 정의현감은 安汝玃(재임:1656.12-1659.?)에서 康履昊(재임:1848.2-1848.6)까지 103명, 대정현감은 李壽瓚(재임:1658.2-1660.6)에서 蔡龜鏞(재임:1899.7-1901.4)까지 126명으로 양 현의 현감은 모두 229명에 이른다. 그런데 남만리의 『耽羅誌』에는 정의현감이 康履昊까지만 등재되어 있다. 기타 읍지에 정의현감 관련 선생안이나 관안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의 정의현감 수치는 강이호까지로 한정하여 합산한 것이다.

144) 실록에 보이는 윤상화의 제주 유배기간은 1884년(고종 21) 3월까지이다(『高宗實錄』卷21, 高宗 21年 3月 23日 戊戌條). 그가 남긴 방선문 마애석각에는 방문일자가 '甲申 五月 日'로 새겨져 있다. 마애석각 간지에 의거하여 실제 제주에 머문 기간으로 유배기간을 기록하였다.

145) 『英祖實錄』卷107, 英祖 42年 4月 15日 甲寅條.

146) 『英祖實錄』卷108, 英祖 43年 3月 12日 丙子條.

147) 『英祖實錄』卷109, 英祖 43年 6月 9日 辛丑條.

148) 「崇禎四己丑慶科庭試文武科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44]).

터 상소문의 내용이 무례하고, 언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탄핵받아 1882년(고종 19)에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다.¹⁴⁹⁾ 이후 1884년(고종 21) 흑산도로 이배되었다.

정이환의 마애석각은 유배인이 주도가 되어 새긴 最古의 마애석각이라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위 3인의 유배객 중 정이환은 현재 유배인을 다룬 저술 뿐만 아니라 기존 마애석각 관련 조사보고서에도 그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언급된 곳이 없다. 임관주와 윤상화의 제주 행적에 관한 자료 또한 밝혀진 것이 없다.

윤상화는 흑산도로의 이배 명령이 1884년 3월에 떨어졌지만 마애석각 조성시기는 같은 해 5월이다(부록 <별표-3> 38번 참조). 5월이 되어서야 조정의 명령이 도착하였고, 제주를 떠나기에 앞서 방선문을 찾아가 이름을 새긴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이환과 임관주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은 해배의 기쁨에서 오는 흥취를 제주의 자연에 각인시켜 놓은 듯하다. 이는 임관주의 마애석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임관주인 경우 적소에 있던 창고친을 비롯하여 산방굴사 천제연 백록담 용연 등에 제영과 함께 이름을 남기고 떠났다.

이들이 남긴 마애석각은 조선후기 政客으로 제주에 온 유배인과 해배된 이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 제주인

현직관료를 제외한 제주 출신 인물이 마애석각 조성의 주도인물로 출현하는 시기는 19세기에 와서야 확인된다.¹⁵⁰⁾ 이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11년 : 金鍾輔 夫士簡 李膺良 洪範植 張文明(백록담)

1875년 : 李基璠(방선문)

1884년 : (搜雲契員) 姜郁彬 韓禎裕 慎栽揆 金庸圭 金炳鎬 金啓柄 姜斗勳 姜遇伯
吳圭瀛 李能白 李鍊百 李源弼 文斗南 姜師鎬 朴南岳(방선문)

149) 『高宗實錄』 卷19, 高宗 19年 12月 11日 癸亥條.

150) 제주 출신 현직관료로써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은 판관 고경준과 신재우이다. 주 134번 참조.

(風詠錄) 金鍾運 朴章鉉 玄商休 金性久 金應璜 俞晟煥 文斗燦 朴景亮
洪淳坤 文圭三 金謙集 梁錫圭 姜宗杓 金奉河 慎奎錫 金寅錫 金履珩 姜錫祚
李儀保 金永權 洪義杓(방선문)

김종보(1762-1850)는 현 조친읍 조친리 태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1784년(정조 8) 정시 무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¹⁵¹⁾ 1805년(순조 8) 8월 明月萬戶에 도입하고 1808년 3월에 그만두었다.¹⁵²⁾ 그 후 全州 中軍과 咸興營의 兵馬虞侯 兼討捕使를 역임했다. 重林察訪을 지낸 金益喆의 아들이다.¹⁵³⁾

부사간(1769-1839)은 순조 때 대정현감 夫士敏(1758-?)의 아우¹⁵⁴⁾로 특별한 행적은 없지만 부사간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백록담 동벽에 새겨진 김종보 일행 마애석각이 전 명월만호 김종보 일행에 의해 새겨진 것임을 확증할 수 있다. 부사간의 형 부사민은 김종보와 동반급제자이다.¹⁵⁵⁾ 이러한 연유로 해서 부사간과 김종보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기온(1834-1886)은 조선조 고종 때의 鄉士로 광해군 때 제주에 유배 왔던 李瀾의 9대손이다. 전남 장성의 蘆沙 奇正鎭(1798-1879)의 문하에서 배웠다. 崔益鉉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가까이 교유하였고, 최익현이 해배되었을 때 그의 한라산 등정에 동행하여 길을 안내하였다.¹⁵⁶⁾ 1881년(고종 18) 사설학당으로 오라촌에 文陰書塾을 설립하였다.

수운계원 제명 마애석각의 조성연도인 1884년(고종 21)을 기준으로 당시 활동했던 인물을 살펴보면 이중 강우백은 1901년의 신축민란 즉, 소위 이재수란 때 吳大鉉 李在秀와 함께 민군을 이끌었던 이른바 大靜郡 三義士 중의 한 사람인 東陣將 강우백(1852-1901)과 동일인물로 여겨진다.

강우백은 대정군 하원리 출생으로 월평리에서 거주하면서 1898년(광무 2) 房星七亂에 참여, 이듬해 천주교 예비 신자로 성당을 드나들었으나 곧 신앙생활을 단절하고 오히려 반천주교에 앞장섰다. 1901년 천주교도 및 封稅官의 작폐가 심하자 같은 해 4월 9일 월평리민을 이끌고 대정군수에게 호소하였고, 5월 동진장으로

151) 「王世子冊封慶龍虎榜」(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66]).

152) 金燦洽, 앞의 책, 168쪽.

153)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앞의 책, 624쪽.

154) 濟州夫氏門中會總本部, 『濟州夫氏族譜』卷之一, 起鍾族譜社, 1995, 27-28쪽.

155) 「武科及第先生案」(三姓祠 所藏 筆寫本).

156) 淡水契, 앞의 책, 1.地理 山川條.

로 제주성을 함락시켰으나 6월 난이 진압되어 10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다.¹⁵⁷⁾

한정유는 추사의 문인 李漢雨와 교유했던 사람으로, 현 제주시 거로 출신이며, 문과 급제 韓錫胤(1845-?)의 아버지이다.¹⁵⁸⁾ 金允植(1835-1922)의 『續陰靑史』에 의하면 한석윤은 吏役に 종사하면서 文筆도 잘했다.¹⁵⁹⁾

김계병은 조천리 출신으로 五衛將을 지냈다. 1848년(헌종 14) 11월에 정의현에 유배 와서 1851년(철종 7)에 떠나간 순조·헌종 연간의 문신 李承憲(1792-?)에게 글을 배웠다.¹⁶⁰⁾

풍영록에 제명된 김종운은 이원조 목사가 1842년(헌종 8) 10월에 실시한 試取에 賦로 합격한 경력이 있다.¹⁶¹⁾

이상 현직관료 외에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로서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제주인들은 전직 만호, 지역 유림, 시회 회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애나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를 조선후기에 유행한 문화의 한 행태로 볼 때 조성을 주도한 제주인들 또한 17세기 중반 제주목사들에 의해 마애석각이 제주지역에 전파되는 경우와 흡사하게 식자층이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종보와 부사간 일행의 제명은 백록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마애석각 중 제주인에 의해 조성된 최초의 마애석각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는 또한 19세기 초 제주지역에서 재지품관이 어떤 형태로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형성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방선문에 최익현과 함께 제명하고, 백록담에 김정 이익 최익현의 이름을 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기온의 제명을 통해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제주 유배인들에 의해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주 지식인층의 사상적 동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최익현과 奇宇萬(1846-1916))에게 영향을 받은 이기온의 위정척사사상은 아들 이용호가 주체가 되어 集義契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05년 11월 을사늑약에 의해 국가의 자주권이 상실하게 되자 집의계원 12인이 오라동 연미마을 망곡단에 모여 집의계선언문을 낭독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성토했다.¹⁶²⁾

157) 金燦洽, 『20世紀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0, 346쪽.

158) 金燦洽,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734쪽.

159) 金允植 著, 金益洙 譯, 『續陰靑史』, 濟州文化院, 2010, 204쪽.

160) 金錫翼, 『破閑錄』上, 『心齋集』(II), 濟州文化社, 1990, 322쪽.

161) 『耽營關報錄』, 道光 22年(1842) 10月 16日 啓聞.

162) 金燦洽, 『20世紀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0, 3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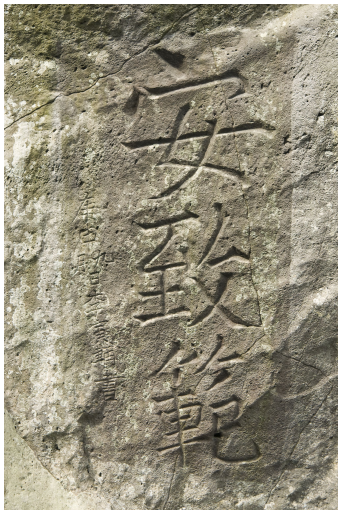
또한 이용호의 문하에서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¹⁶³⁾

한정유의 제명은 19세기 제주사회의 사회적 경제상황의 변화나 신분계층의 붕괴, 양반계층의 사회인식의 변화 등을 보여준다 하겠다.

제주지역 유림의 시모임은 1898년(광무 2) 제주에 유배 왔던 외무대신 김윤식이 제주의 鄕土와 유배인들을 모아 橋會라는 시회를 운영했던 것이 유명하다.¹⁶⁴⁾ 이후 일제강점기에 瀛洲吟社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방선문의 수운계와 풍영록 제명은 19세기 말 한시모임인 굴회 설립 이전에 이미 자생적 시회가 제주인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시회 모임의 인적구성원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제주목 관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우백처럼 대정현 출신의 인물이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 3읍 유생의 교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인물 행적 외에 추가 인물에 대한 행적이 더 확인된다면 19세기 제주 유림의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6) 목사 자제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목사·판관·현감·유배인·제주인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 1건이 보인다.

용연에 安致範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이 그것인데, 안치범은 영조 때 제주목사 安慶運의 자제(부록 <별표-2> 7·8·9번 참조)로, 안경운의 제주목사 도임 월(1740.9)에 군관 李寅輔와 단 둘이 용연에 제명을 하였다. 글자 또한 1자당 가로 39cm, 세로 36cm의 대자로

<사진 19> 안치범 제명 새겨놓았다. 안경운 목사 일행의 용연 제명은 도임한

163) 제주시 오라2동 李鍾億(1940년 생) 구술 증언(2013. 4. 26).

164) 金允植이 저술한 『續陰晴史』 卷9에 당시 굴회에 참여했던 제주유림과 유배인들의 명단이 보인다.

다음해인 3월에 조성되었다.

목사 자제가 군관을 대동하고 아버지인 목사에 앞서 승지를 찾아 대자의 석각을 조성한 사례를 통해 제주목사의 자제, 형제나 친족의 자격으로 함께 따라왔던 이들의 조선후기 제주지역에서의 행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 마애석각 제명 隨行人員

1) 수행 관관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제명 중 제주목사의 수행인원으로 이름이 보이는 관관은 모두 11인이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마애석각 제명 중 제주목사 수행 관관 일람

시기	목사	관관	제임기간	주요 행적	마애석각 소재지
17C (3인)	李禧	金雨	1657.11-1660.4 ¹⁶⁵⁾		용연
	李翊漢	羅八紀	1662.8-1665.6		"
	元相	姜聖佐	1680.7-1681.5	어사 李增의 한라산신제 봉향 시 제관 ¹⁶⁶⁾	"
18C (3인)	洪泰斗	安世潤	1754.9-1757.4		방선문
	南益祥	愼基慶 ¹⁶⁷⁾	1766.8-1769.2		백록담
	李養鼎	李亨默	1781.7-1783.2		백록담 정방폭포
19C (5인)	李顯宅	孫應虎	1809.1-1811.9	貳衛(察眉軒) 중수 ¹⁶⁸⁾	방선문
	趙禹錫	申義恒	1835.8-1838.2		백록담 탐라계곡 산방굴사
	張寅植	姜在毅	1848.8-1851.2		산방굴사
	蔡東健	洪敬燮	1855.12-1857.10	『橘林書院誌』修撰 ¹⁶⁹⁾	오현단
	鄭岐源	白基虎	1863.5-1864.12		용연

165) 『增補耽羅誌』 「觀風案」에는 체임일이 3월로 되어있지만, 『耽羅誌草本』 「官案」과 『心齋集』 「耽羅觀風案」에는 4월에 교체되어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耽羅誌草本』과 『心齋集』을 따랐다.

166) 李增, 『南槎日錄』, 庚申年(1680) 3月 19日條.

167) 南益祥 목사의 題名은 南峴과 돌만을 새기고 戊子 四月로 刻文을 종결하였다. 愼基慶의 제명은 바로 열면에 劉錫孝 金重運과 함께 새겨지고 戊子初夏登이라 쓰고 각문을 종결하였다. 남익상과 남현 만을 먼저

조선후기에 와서 界首官에 파견되었던 관관들이 불필요한 관직[冗官]이라는 이유로 모두 혁파되었지만¹⁷⁰⁾ 제주목인 경우 鏡城도호부와 함께 관관 파견이 계속되었다.¹⁷¹⁾ 제주목사는 정의·대정의 수령을 포폄하여 전라도관찰사에게 보고하고, 農形을 국왕에게 보고하며, 薦新進上物을 중앙에 上送하는 등 일반목사의 직임이 아닌 관찰사의 직임에 준하는 많은 직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관을 계속 존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⁷²⁾ 따라서 관관의 이름은 마애석각 조성의 주도인물로서 뿐만 아니라 제주목사의 수행인원으로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마애석각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제주목의 관관은 어디까지나 제주목사의 보좌관이었지 지방장관은 아니었다.¹⁷³⁾ 따라서 마애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이 됐든 수행자격으로 따라나섰든 간에 <표 5>에서 보듯 이들 관관의 제주에서의 행적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제주목사가 조성한 제주지역 마애석각 57건 중 제주목사의 이름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연명으로 새겨진 마애석각의 개체수는 36건이다. 제주목사를 수행한 관관의 이름이 새겨진 마애석각 11건은 제주목사 연명 각자 36건 대비 31%에 이른다.

이는 조선후기 제주목사 순력 혹은 유람 시 관관의 대동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 이상의 史實을 보여준다. 곧, 이러한 수치는 역으로 하면 목사 외부 행차에 있어 관관은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을 소관처인 제주목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제주목의 일반 행정 및 군정에 관계되는 일을 상관인 목사를 대행하여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보이는 제주목사 수행 관관 제명은 향후 문헌자료에 의한 보완과 함께 조선후기 제주 3읍 행정

제명하였다가 다시 함께 간 이들을 제명하면서 등정 일자에 혼동을 피하고 같은 날 함께 동행한 인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간지를 반복하여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168) 李源祚, 앞의 책, 濟州, 公廨條.

169)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앞의 책, 844쪽.

170) 『肅宗實錄』 卷64, 肅宗 45年 10月 戊辰條, ‘國初 有牧使處 皆有判官 中間 以爲冗官 皆以革罷’.

171) 『續大典』, 史典, 外官職條.

172) 李義權, 앞의 책, 37-38쪽.

173) 金東柱,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創刊號, 濟州島史研究會, 1991, 48쪽.

체제의 특징으로서 관관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2) 수행 현감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제명에서 현감이 수행인원인 경우는 제주목사와 제주관관의 수행인원으로서의 2가지 경우이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마애석각 제명 목사·관관 수행 현감 일람

시기	주도		현감(縣名)	재임기간	마애석각 소재지
	목사	관관			
19C (4인)	李顯宅		盧尙熙(정의)	1810.2-1812.8	방선문
		李必述	康縝(정의)	1825.4월-1827.10	"
	趙禹錫		安允璟 ¹⁷⁴ (정의)	1836.4-1838.8	산방굴사
			安義錫(대정)	1837.2-1839.8	※ 동행

<표 6>의 현감들의 행적은 도·체임 관련 자료뿐이다. 이들의 재임 시 행적이 미미한 것은 제주목사의 포폄의 대상으로 제주목사와 上命下服의 관계에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사건의 결과에 있어 명령을 내리는 주도인물의 행적은 기록으로 남지만 이를 수행하는 그 주변인물에 대한 기록은 드문 것이 역사기록의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선문 이현택 목사 일행에 제명된 정의현감 노상희와 현의 경계를 넘어 산방굴사에 조우석 목사 일행에 제명된 정의현감 안윤경의 사례는 비록 개체에 있어 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19세기 마애석각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 제주목사와 정의·대정 양현 현감과의 상명하복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제주목사의 수행인원으로 현감이 남긴 마애석각은 2건이다. 이는 제주지역 마애석각 중 목사 주도로 조성된 2인 이상의 이름이 연명된 마애석각 36건 대비 5.6%의 수치를 보인다. 19세기 현상으로 한정하여 보면, 19세기 제주 목사 연명 15건 대비 현감의 목사 수행 건수는 13%를 나타낸다. 현감이 당시 목

174) 안윤경은 대정현감 도임에 앞서 1831년 12월에서 정의현감에 도임하여 1833년 장령으로 이배되었다(南萬里編, 『耽羅誌』 卷3, 旌義縣, 先生錄).

사의 순력과 탐승에 본인 소관의 경계를 넘어 목사의 수행인원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계량적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3읍 수령 간에 목사는 상관으로 존재하고 현감은 그의 명령에 따르는 위치에 있었던 조선후기 제주 3읍 통치체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의현감 강연인 경우 제주목사가 아닌 관관의 수행인원으로 제명된 예외적 경우이다. 이러한 강연의 제명은 조선후기 제주 3읍 통치지배체계에 있어 현감이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의 부관인 관관에게도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교수

목사의 수행인원으로써 教授 혹은 敎官은 17세기 마애석각에 한정되어 보이며, 직함과 함께 이름이 현직 품계에 따라 관관 다음에 새겨져 있다. 마애석각에 보이는 교수는 다음과 같다.

17세기 : 河晉善 鄭曙 鄭維高

하진선은 용연 이피 목사 수행인원 명단에 교수 직함과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제주교수로 오기 전 중앙의 校書正字 직에 있었고¹⁷⁵⁾, 備邊司에 직임이 있었다.¹⁷⁶⁾

정서는 용연 이익한 목사 수행인원 명단에 교수 직함과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656(효종7) 良才察訪에 제수되었다가 사람됨이 孱劣하다 하여 2개월 만에 遞差되었었고,¹⁷⁷⁾ 제주교수 역임 후 1677년(숙종 3)에 直講이 되었다.¹⁷⁸⁾ 延曦閣 제하 5언 읍시¹⁷⁹⁾를 남겼다.

정유설은 용연 원상 목사 수행인원 명단에 교관 직함과 함께 이름이 새겨져

175) 『承政院日記』, 仁祖 21年 7月 2日 癸巳條.

176) 위의 책, 仁祖 25年 7月 9日 戊申條.

177) 위의 책, 孝宗 7年 11月 3日 丁未條; 같은 책 동왕 8年 1月 3日 丙午條.

178) 위의 책, 肅宗 3年 9月 12日 丙戌條.

179) 李源祚, 앞의 책, 濟州, 公廡條.

있다.

이들 중 제주에서의 행적이 남아있는 이는 정유설 1인으로, 1679년(숙종 5)에 어사로 왔던 이증이 남긴 『남사일록』에 관관 및 정의현감 金聲久와 함께 관덕정 앞에서 어사를 맞이했다는 기사¹⁸⁰⁾와 牧使軍官 李壽遠과 함께 순력에서 돌아오는 어사를 朝貢川에서 만났다는 기사¹⁸¹⁾가 보인다. 이후 목사 이익태(재임:1674.5-1675.12)에게 제주향교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기사¹⁸²⁾가 보인다. 歲暮에 타향살이의 감회를 읊은 7언 율시 1수를 남겼다.¹⁸³⁾

한편 1679년(숙종5) 어사 이증의 試取에 정유설이 吳湜의 答安지를 代述한 사건이 4년 후에 밝혀졌는데 이때 그는 제주 교수직에서 이미 이임된 이후였다.¹⁸⁴⁾

조선은 건국과 함께 유교이념의 보급과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고 教授官을 파견하였다.¹⁸⁵⁾ 제주지역에는 태조 원년에 지방향교로써는 처음으로 제주향교가 설치되고¹⁸⁶⁾ 1394년(태조 3) 향교에 교수관이 파견되기 시작하면서¹⁸⁷⁾ 관관이 교수관을 겸임하게 되고,¹⁸⁸⁾ 대정과 정의향교에도 兼敎導와 敎導도 파견되었다.¹⁸⁹⁾ 그런데 敎授는 訓導와 함께 牧 이상의 고을에는 문과 급제자를, 府 이하의 고을에는 생원·진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¹⁹⁰⁾ 하지만 조선후기 향교교육이 쇠퇴하고 교수와 훈도의 지위도 낮아져 1746년(영조 22) 간행된 『續大典』에는 교수와 훈도가 감원되었고, 1785년(정조 9) 편찬된 『大典通編』에는 교수와 훈도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있다.¹⁹¹⁾

180) 李增, 『南槎日錄』 己未(1679) 12月 8日 己巳條, ‘終日飛雪…校生五十餘人 及妓生三十餘人 祇迎於觀德亭前路 判官及旌義縣監金聲久敎養官鄭維高祇迎香祝 於大門內’.

181) 李增, 앞의 책, 庚申(1680) 2月 26日 丙戌條, ‘到朝貢川中火 敎授鄭維高 牧使軍官李壽遠 出見此浦…’.

182) 위의 책, 庚申(1680) 3月 8日, ‘學官鄭君維高 津津於廟中事 余聞而喟然曰…’.

183) 위의 책, 己未(1679) 12月 27日 戊子條.

184) 『肅宗實錄』 卷14, 肅宗 9年 5月 7日 戊申條, ‘己未遣御史李增 試取濟州士子 湜使前敎授鄭維高從外代述 潛投場屋…’.

185) 『太祖實錄』 卷5, 太祖 3年 3月 27日 丙辰條, ‘都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敎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筭付 上從之’.

18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學校條, ‘在城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

187) 『太祖實錄』 卷5, 太祖 3年 3月 26日 丙寅條.

188)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閏5月 29日 甲辰條, ‘五月二十有一日 擢臣除濟州判官 兼敎授之職 益荷上德 感祝慶幸 卽欲赴官’.

189) 『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1月 13日 丙子條;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2月 6日 乙丑條.

190) 『經國大典』 卷1, 吏典 外官職條.

191) 『大典通編』 卷1, 吏典 外官職條.

제주에 있어서도 1713년(숙종 39) 교수를 없애고 다시 관관이 겸하게 하였다가¹⁹²⁾ 제주 3읍 향교에 훈장을 두어 유생들을 교육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¹⁹³⁾ 이와 관련하여 17세기에 보이던 마애석각에 새겨진 교수 직함이 18세기 이후의 마애석각에 보이지 않는 것은 관관의 교수직 겸임, 중앙에서 교수 파견 중단, 이후 훈장 등 지역 유생 출신의 교임들에 의한 향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향교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4) 군관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중 군관 직함을 가진 이들의 명단은 모두 목사 수행인원에 새겨져 있다. 목사가 주도하여 조성한 마애석각 전체 57건 중 군관 직함이 있거나 직함이 없어도 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이 새겨진 마애석각은 28건으로, 목사가 주도하여 조성한 마애석각 개체수 대비 50%의 수치에 해당한다. 이들 중 군관 직함 아래에 이름이 새겨진 경우와 행적을 추적하여 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들¹⁹⁴⁾을 석각 조성 주도인물인 목사와 함께 시기별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제명 군관 분류

시기	목사	군관	비고
17C	李檉	梁宇標 金梯建 李裳 安孝曾 郭國柱 朴孝元 (蔡)有曄	
	李翊漢	崔尙勳 鄭俊立 高致遠 劉興國 趙機善 姜渭迎 ○○(訥)	
	元相	愼而言 李(發) 宋繼宗 元戴賢 徐道謙 朴壽 朴瑄 崔峻興	
18C	洪重徵	權世恭 申德涵 朴壽鳳	
	安慶運	林貴春 丁志升 禹世起 李寅輔 金敬吾(용연)	
		李寅輔 林貴春 丁志升 南得遠(방선문)	
	尹九淵	閔震 柳敏章 梁泰重 柳獻徵 張紀龍	
金夢燿	李涉 趙泰敏 辛一東 鄭彥佐 金得基 鄭東羽 崔倬 成漢宗 ¹⁹⁵⁾ (용연)		
	辛一東 鄭彥佐 金得基 鄭東羽 崔倬 李宗芳 洪愼健 成漢宗		

192) 李源祚, 앞의 책, 濟州, 建置沿革.

193) 순조 30년(1830) 10월 李禮延 목사가 발급한 「各面訓長設置節目」을 통해 제주 3읍 향교에 훈장을 두어 유생을 교육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吳松喜,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2, 15쪽 참조).

194) 비고란의 ×표시는 군관직함이 없음을 나타낸다.

195) 成漢宗과 방선문의 崔命祚는 군관으로 추정하여 기록하였다.

		崔命祚(방선문)	
		辛一東 崔倬 李道三(산방굴사)	
	洪泰斗	李問樞 崔濬文	
	朴聖浹	朴聖漢 趙益祥 李聖儒 姜遇周 金載赫 韓相五	
	李養鼎	李景麟 張 滄 羅東善 李儒謙(용연)	
		羅東善(백록담)	
		李儒謙 張 滄 李景麟(산방굴사)	
		羅東善(징방폭포)	
	尹得達	金述曾 尹得敦 姜文一	
19C	李顯宅	金漢恂 權啓東 韓永履 李顯謨	
	趙禹錫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李寅和 金秀男 劉永勳 文命新(백록담)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義經 金秀男 卞恒遠 劉永勳 李明秀	
		金菊逸(담라계곡)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金秀男 劉永勳 文命新 金致元(산방굴사)	
	李源祚	丁義成 李潞夏	
	姜冕奎	李始愚 李啓奕	
	鄭岐源	康錫五	×
	朴善陽	朴宗(誼) 朴來敏 金東杓	
	洪圭	申鶴熙 李教晚 尹泳毅	
沈遠澤	朴永漢 沈相俊 朴章浩(용연, 방선문)		
宋龜浩	宋元浩 尹斗成 皮秉奎		

이들 중 제주목사의 재임기간을 근거로 하여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보이는 군관의 이름과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이들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이괴의 군관 李裳은 목사 이괴의 동생이다. 『연안이씨삼척공파보』에 의하면 이상은 1615년(광해 7) 생으로 1607년(선조 40) 생인 이괴 목사보다 8살 아래로 품계가 通德郎(정5품 문관)에 이르렀다.¹⁹⁶⁾

원상의 군관 愼而言은 제주목사 군관 이후 1680년(숙종 6) 軍職인 副司直(종5품)을 제수 받았다.¹⁹⁷⁾ 宋繼宗은 제주목사 군관 전인 1661년(현종 2) 阿山萬戶를 역임했다.¹⁹⁸⁾ 徐道謙인 경우는 제주목사 군관 이후 1694년(숙종 20) 永達萬戶에 제수되었다.¹⁹⁹⁾

안경운의 군관 林貴春과 丁志升, 禹世起인 경우 이름 아래에 각각 同知, 武兼, 折衝의 품계를 새겨두고 있다. 임귀춘은 제주목사 군관 전인 1735년(영조 11) 훈련도감 監官²⁰⁰⁾, 1740년(영조 16) 忠翊衛將(정3품)에 있었다.²⁰¹⁾ 정지승은 제주목

196) 『延安李氏三陟公派譜』 卷1, 和信文庫, 延安李氏三陟公派譜刊行委員會, 1997, 143-153쪽.

197) 『承政院日記』, 顯宗 11年 10月 6日 庚寅條.

198) 위의 책, 顯宗 2年 9月 2日 戊寅條.

199) 위의 책, 肅宗 16年 2月 25日 丁亥條.

200) 위의 책, 英祖 11年 12月 16日 申巳條.



<사진 20> 안경운 목사 일행 제명

사 군관 전인 1725년(영조 1) 庭試 병과 급제²⁰²⁾, 1732년(영조 8) 武兼²⁰³⁾이다. 제주목사 군관 이후 1754년(영조 32) 兪知中樞府事(정3품)에 이르렀다.²⁰⁴⁾ 우세기는 제주목사 군관 이후 1742년(영조 18)에 司果(정6품)로 加資되고²⁰⁵⁾, 1755년(영조 31) 椒島兪使(정3품)에 이르렀다.²⁰⁶⁾

김몽규의 군관 鄭東羽는 제주목사 군관 이후 1777

(정조 1년) 식년 생원시에 급제하였다.²⁰⁷⁾

윤구연의 군관 柳敏章은 제주목사 군관 이후 閑良으로 1754년(영조 30)에 加資되었다.²⁰⁸⁾

박성협(박성협)의 군관 姜遇周는 제주목사 군관 이후 兼司僕으로 1784년(정조 8) 정시 병과 급제하였다.²⁰⁹⁾

정기원의 군관 康錫五는 제주목사 군관 이후 1890년(고종 27) 연간에 萬戶를 역임하였다.²¹⁰⁾

이원조의 군관 丁義成은 제주목사 군관 이후 1856년(철종 7) 隨駕軍校로 있었다.²¹¹⁾ 李仁觀 李潞夏 등과 함께 이원조 목사를 수행해서 한라산에 오른 기록이 있

201) 앞의 책, 英祖 16年 7月 30日 戊戌條.

202) 『乙巳王世子冊禮及痘患平復二慶庭試別試文武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82].

203) 『承政院日記』, 英祖 8年 10月 13日 丁卯條; 武兼은 武臣兼宣傳官의 약칭으로 무관이 宣傳官을 겸직한 것이다. 선전관은 임금이 행차할 때 호위와 명령 전달 등을 맡던 종9품부터 정3품까지의 관직이다. 임금을 측근에서 보좌하므로 장차 출세가 보장되는 武班의 명예로운 요직으로 간주되었다.

204) 위의 책, 英祖 32年 6月 25日 辛酉條.

205) 위의 책, 英祖 18年 6月 16日 癸卯條.

206) 위의 책, 英祖 31年 7月 27日 己亥條.

207) 『丁酉式年司馬榜目』, 하버드연방도서관[K 2291.7 1746 (1777.1)].

208) 『承政院日記』, 英祖 30年 11月 28日條.

209) 『王世子冊封慶龍虎榜』, 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66].

210) 『日省錄』, 高宗 27年 11月 8日條.

다.²¹²⁾

송구호의 군관 皮秉奎는 제주목사 군관 2년 뒤 1892년(고종 29) 연간에 함흥감사 李源逸의 幕裨가 되었다.²¹³⁾ 군관 尹斗成은 제주목사 군관 이후 1896년(건양 1) 연간에 警務廳主事를 역임했다.²¹⁴⁾

이상의 고찰 결과 제주목사와 함께 이름이 새겨진 이들 군관은 제주지역 지방군으로 濟州鎭營에 소속된 지방 주둔군의 군관인 營鎭屬軍官²¹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제주목사 도체임과 함께 제주목사가 추천하여 데리고 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근거의 하나로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인물이 해당 목사 이외 다른 목사의 군관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신임 목사가 스스로 군관을 추천하여 그들을 데리고 임지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은 『경국대전』에 근거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軍官】 무과시험의 합격자나 番에서 나온 別侍衛나 甲士를 進영장수가 각기 추천하면 兵曹에서 심사해 가지고 임금에게 제의하여 임명하며 1년이 되면 교체한다.[兩界인 경우 번을 서고 있는 사람도 임명하며 양계에 있는 節度使의 군관으로는 內禁衛도 임명한다. 군관의 수는 떠날 때에 임해서 임금의 허가를 받는다. 양계와 제주 3읍은 본도의 사람으로 임명하지 못한다.]… **【巨鎭】** 3명[부령과… 제주 등의 鎭에는 각각 2명씩 더 둔다.[북청 외에 관관이 있는 곳에는 또 2명씩 더 둔다.]²¹⁶⁾

이에 의거하면 조선전기 제주목에 부임하는 신임 목사는 巨鎭으로서 3명에 특별히 2명을 더 하고, 관관이 있는 곳이 되어 다시 2명이 더 추가되어 도합 7명의 군관을 추천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군관의 임기는 1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상 목사인 경우 수행 군관이 8명인 것으로 보아 법률에 정해진

211) 앞의 책, 哲宗 7年 4月 23日條.

212) 李源祚, 앞의 책, 濟州, 山川條.

213) 『日省錄』, 高宗 29年 5月 17日條.

214) 위의 책, 建陽 1年 3月 10日條.

215) 『文宗實錄』卷5, 文宗 1年 1月 6日 丙午條, ‘兵曹與議政府同議啓 各年武科及甲士 別侍衛去官人等 姓名住接處 京中則漢城府 外方則觀察使 備細搜檢 各州 郡住及品官及閑良 營鎭屬軍官 才力 智勇特異 堪爲禦侮者 各道節制使 備細訪問 親自選遞 不拘定額 開寫以啓’.

216) 『經國大典』卷4, 兵典, 軍官, ‘**【軍官】** 以武科及下番別侍衛甲士 鎭將各薦 兵曹考覈 啓差 周年乃遞[兩界雖當番差之 兩界節度使則內禁衛亦差 數則臨時取旨 兩界及濟州三邑則不差本道人]…巨鎭】 三[富寧…濟州等鎭,則各加二[北青外 有判官處則又可二].’.

액수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 때에 오면 이를 보완하여 군관을 정원 외에 主將이 推考하여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겨나는데,²¹⁷⁾ 이는 당시 대부분의 지방장관들이 정원을 초과하여 군관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생겨난 조항이라 생각한다. 이 시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서 김몽규와 조우석 목사인 경우 수행 군관이 각각 9명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속대전』에는 또한 ‘일찍이 闕帥(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와 관찰사를 지냈던 이를 군관으로 啓請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어서 기술되어 있다.²¹⁸⁾ 전직 절도사와 관찰사를 군관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는 규정은 역으로 그러한 일들이 『경국대전』에 지방장관의 軍官帶去 규정이 마련된 이후 『속대전』 편찬 이전의 시기까지 비밀비재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어쨌든 지방으로 가는 지방장관의 군관대거는 고종대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²¹⁹⁾ 조선시대 연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건문을 넓혀주기 위해 자신의 친족이나 제자들을 개인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子弟軍官이라고 불렀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보면 마애석각에 보이는 목사 수행 군관이 일반적으로 군졸의 장교를 의미하는 직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서 보이는 이러한 제주목사의 군관은 일반 군졸의 우두머리를 호칭하는 일반명사로서의 군관과 구분되며²²⁰⁾, 군직을 겸한 지방장관(제주목사)을 主將이라 부른 데 대하여 주장을 보조하는 무관의 의미로 幕裨(조우석 목사)나 佐幕(이양정 목사)으로 불리기도 하고, 문헌의 기록에서처럼 裨

217) 『續大典』, 兵典, 軍官, ‘【軍官】元額外帶去者 主將¹⁾推考 ○曾經闕帥人觀察使 無得以軍官 啓請 【觀察使·節度使 統禦使】各九 【防禦使 營將】各三 【萬戶 別將 權管】各二’.

218) 위의 주 참조.

219) 『大典會通』, 兵典, 軍官, ‘【軍官】〈原〉以武科及下番別侍衛甲士 鎮將各薦 兵曹考覈 啓差 周年乃遞 ○兩界雖當番差之 兩界 節度使則內禁衛亦差 數則臨時取旨 兩界及濟州三邑則不差本道人 〈續〉元額外帶去者 主將推考 ○曾經闕帥人¹⁾ 觀察使無得以軍官啓請 〈增〉諸都監 兵統水營 寫字官 畫圖各一人 於額內差送 ○曾經釜山僉使人 不得爲通信使軍官 【巨鎮】三 無軍鎮則無軍官 富寧…濟州等鎮 則各加二 ○北靑外 有判官處 則又可二 ○…濟州鎮則倭通事一人 並於數內差送 〈續〉防禦使 營將 各三’.

220) 마애석각에 제명된 군관은 목사가 도입 시 계청하여 데리고 온 군관임은 확실한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군관의 직함을 啓請軍官으로 쓴 용례가 중앙에서 편찬한 읍지와 실록에 보인다(『輿地圖書』, 平安道, 宣川, 官職條, ‘府使 兼淸北水軍防禦使宣川鎮兵馬僉節制使武正三品三十朔交替 啓請軍官三人 座首一人 別監三人 都監六人 監官七人 中軍二人 都城將二人 別將三人 衛將二人 千總六人 …’; 『英祖實錄』 16卷, 英祖 4年 3月 25日 乙亥條, ‘安樞則 以啓請軍官數月隨行 還歸時依例帖給…’). 하지만 제주에서 편찬된 읍지의 관원조나 제주목사 등 개인문집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중앙에서 편찬된 읍지와 실록의 직함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부르던 직함이 아니라 어떤 절차로 선발된 군관인지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직함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將²²¹⁾ 혹은 褊裨²²²⁾ 등으로 불린 듯하다.

이러한 군관들은 신임 목사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에서 이과 목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형제나 친족, 친구 등 목사와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맺어진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자제군관이라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신에 딸린 자제군관은 1590년(선조 23) 이후 사신단 조직관례에 따라 차견된 군관이며²²³⁾ 조선시대 법전 등에 공식적으로 지방관이 군관으로서 자제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에석각에 목사의 수행인원으로 제명된 이들 군관은 제주목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판관, 교수, 심약, 역학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제주목사의 私的인 幕僚集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5) 심약·역학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에석각 제명 명단에는 제주목사의 수행인원으로 중앙에서 파견되었던 지방관으로 정9품관인 심약과 한학, 왜학 등의 이름도 보인다.

먼저 심약을 시기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 卞三傑(월상 목사 일행)

18세기 : 張鳳徵(안경운 목사 일행) 李禧大(김몽규 목사 일행)

梁慶柔(박성협 목사 일행)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제주심약 이후 변삼걸은 1681년(숙종 7) 月令醫院의 직임으로 자리를 옮겼고,²²⁴⁾ 장봉징 또한 1744년(영조 20) 月令醫院의 직임으로 자리를 옮겼다.²²⁵⁾ 이희대는 제주심약 이전 1732년(영조 8)부터 1734년(영조 10)까지 月令醫院의 직임에 있었고, 1743년(영조 19)과 1752년(영조 28)에 待令製藥

221) 李源祚, 앞의 책, 濟州, 樓觀條, ‘拱辰亭 申續記…惟時裨將前縣監李惟源程督其役 晝夜忘倦…’.

222) 李益泰, 앞의 책, 甲戌(1694) 6月 23日條, ‘出坐林阜 望海納風 仍令褊裨射小的…’.

223) 『萬機要覽』, 財用 5, 信使條.

224) 『承政院日記』, 肅宗 7年 12月 7日 丙戌條, ‘李東溟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權儔 病重保放矣 卽接月令醫員 卞三傑手本 則病勢今已差歇云…’.

225) 위의 책, 英祖 20年 9月 12日 丙戌條,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張鳳徵手本 則時囚罪人徐命珩 久處冷地…’.

官의 직임에 있다가 제주로 차견되었다.²²⁶⁾ 양경유는 제주 심약 이후 1782년(정조 6)에 救療官에 재임하다 옥에 갇힌 죄인에게 약을 주지 않았다 하여 홍충도 태안군으로 정배되었다.²²⁷⁾

다음으로 역학을 시기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 李惟亮(한학 · 원상 목사 일행)

18세기 : 劉廷禧(왜학 · 안경운 목사 일행)

이 중 행적을 알 수 있는 이는 이유량으로, 책력을 청하는 외교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司譯院正(정3품)에 差任된 기사가 보인다.²²⁸⁾ 이에 의거하면 이유량은 漢語譯官으로 제주목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목에 있어 심약의 파견은 『경국대전』과 효종 때 편찬된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조선전기 세조에서 성종 연간 사이에 이미 1인이 파견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²²⁹⁾ 역학 중 왜학은 심약과 비슷한 시기에 파견된 것으로 보이며²³⁰⁾ 한학은 1672년(현종 13)년부터 파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³¹⁾ 그리고 1895년(고종 32) 모든 조직이 근대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제주목사를 폐하여 대신 관찰사를 두고, 대정과 정의현이 郡으로 승격될 때에 심학과 역학도 함께 폐지되었다.²³²⁾

심약은 제주목사의 殿最 대상이 되는 지방관의 하나이기도 했다.²³³⁾ 역학 또한 정9품의 지방관원으로 심약과 마찬가지로 제주목사의 전최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판관, 교수 등과 함께 제주읍성 인근의 목사행차에 관원의 자격으로 참가한 것을 기념하여 수행명단에 이름을 함께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226) 앞의 책, 英祖 8年 9月 11日 乙未條; 같은 책, 英祖 9年 3月 18日 己亥條; 같은 책, 英祖 10年 3月 27日 癸卯條; 같은 책, 正祖 10年 9月 29日 己亥條.

227) 위의 책, 正祖 6年 7月 8日 癸卯條.

228) 『同文彙考』 卷42, 曆書, 癸未條, ‘請曆咨 式同壬寅 差司譯院正李惟亮 康熙四十二年八月二十日’.

229) 『經國大典』 卷1 吏典, 外官職; 李元鎮, 『耽羅志』, 濟州, 官員條.

230) 李元鎮, 위의 책, 같은 조.

231) 日本東京大學校所藏本 『耽羅志』에는 ‘漢學 孝廟壬子設置’라 되어있다. 그런데 효종 때 壬子의 干支가 있는 해가 없다. 또한 이원진의 『탐라지』 관원조에는 倭訓導(倭學)만이 보인다. 이후 숙종 때 李衡祥의 『南宦博物』 誌吏條에 漢譯生이,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漢學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일본동경대 소장 『탐라지』의 孝廟는 顯廟의 誤記로 보이며, 한학의 설치는 顯廟壬子年 즉, 1672년(현종 13)에 파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2) 淡水契, 앞의 책, 2.沿革條.

233) 李源祚, 앞의 책, 濟州, 舊例條.

그런데 목사와 함께 수행인원의 명단을 새긴 전체 32건의 마애석각 중 심약 제명 마애석각은 4건, 역학은 2건에 각각 그치고 있다. 이 또한 제주목의 용연과 방선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들의 직책에서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들은 각각 審藥房, 譯學堂 같은 업무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심약은 중앙에 상납할 약재를 심사하고, 역학은 한어와 왜어 등을 교육하는 등의 실무에 종사하였기에 일일이 목사의 행차에 함께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정의·대정 등 제주읍성과 떨어진 원거리 행차의 수행인원 명단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위의 심약·역학·왜학 외에 기타 목사 일행에 보이는 명단에는 冊室·中房·奉硯 등의 호칭을 가진 이와 목사의 자제, 형제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령의 비서를 의미하는 冊室은 경국대전 등의 官制나 읍지의 관원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함이다. 이를 통해 수령이 사사로이 임용하여 쓴 개인비서를 일컫는 직함임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마애석각에는 1786년(정조 10) 윤득규 목사 일행 제명에 직함과 함께 玄鎭澤·金桓의 이름이 보이고, 1889년(고종 26) 송구호 목사 일행 제명에 마찬가지로 직함과 함께 宋鍾奭의 이름이 보인다.²³⁴⁾

또한 책실의 다른 호칭으로 쓰인 것으로 생각되는 中房의 직함이 보이는데, 朴善陽 목사 일행에 金仁宅·李昌基, 宋龜浩 목사 일행에 李仁典의 이름이 직함과 함께 새겨져 있다. 李源祚 목사 일행 제명 安命岳의 奉硯 직함 또한 책실·중방 등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이외에 목사의 자제와 형제 친족으로 마애석각에 이름이 새겨진 인물은 김영수의 子 樂園(용연, 방선문), 윤득규의 子 翎東·從子 養東, 이원조의 子 鼎湘, 목인배의 子 裕錫, 강면규의 堂侄 鎬, 박선양의 弟 泰陽·子 勝台·勝斗·(兄弟) 朴寅陽²³⁵⁾, 홍규의 洪堉²³⁶⁾, 심원택의 沈樂中²³⁷⁾, 송구호의 子 榮稷 등이며, 관관의

234) 책실은 또한 冊客으로도 불린 듯하다. 이들은 수령의 사사로운 회계정리와 문서작성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牧民心書』, 赴任, 治裝條, ‘近俗有所謂冊客 以掌會計 非禮也 若我之札翰荒拙 宜携一客 以掌書記’).

235) 1870년(고종 7) 식년시 진사 급제자이며, 아버지는 朴齊鴻이다(「崇禎紀元後四庚午式司馬榜目」(하버드 대학교 도서관[TK 2291.7 1746 (1870) FOLIO]). 이를 통해 朴寅陽이 朴善陽과 형제 항렬임이 확인된다(「武譜」天地人(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1741] 참조).

236) 토자 돌림의 형제 항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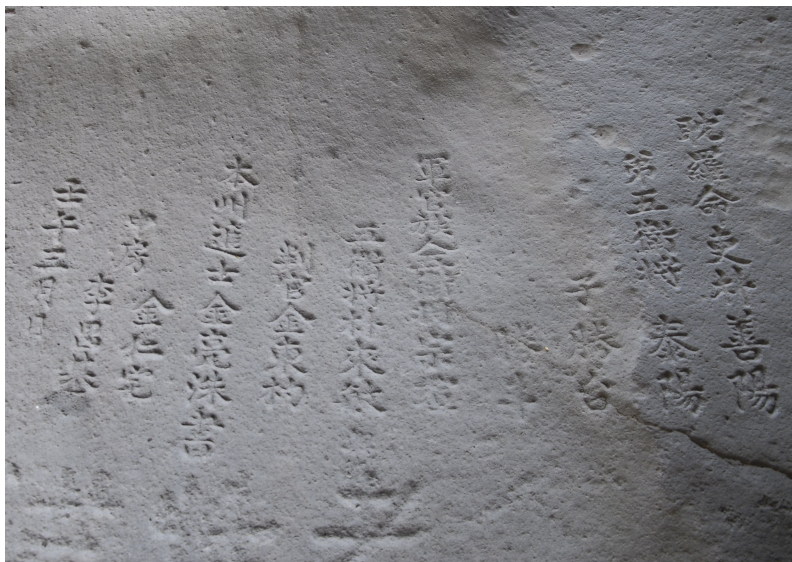
237) 심원택과 조부 항렬의 친족으로 추정된다(「武譜」天地人(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1741])).

자제로 이필술의 子 斗南이 보인다. 이과 목사 일행 제명의 士人 崔似, 정동리 판관 일행의 散人 許運·閔廷楫·金時鎭, 김영수 목사 일행의 尹進五·韓昌裕, 조우석 목사 일행의 笙 文命新·琴 金致元 등 또한 목사의 측근에서 그와 함께 했던 이들로 생각된다.

6) 제주 출신 수행인원

제주 출신 수행인원으로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보이는 이는 金亮洙(1828-1887)가 유일하게 확인된다.

김양수는 현 조천읍 조천리 출신으로 호는 蘭谷이다. 유배 온 최익현에게 從遊하였다. 延祥樓重修上樑文이 전하며, 읍시를 모은 蘭谷集이 있다.²³⁸⁾ 1874년(고종 11) 진사시에 합격하였다.²³⁹⁾ 그런데 김양수는 관직에 나아가는 대신 兵房으로 생계를 꾸려나간 것으로 전해진다.²⁴⁰⁾ 박선양 목사 일행 마애석각의 조성연대가 1882년(고종 19)인 점으로 보아 마애석각 제명 당시 邑吏로 따라간 것으로 보



<사진 21> 김양수 제명

며, 김양수 제명의 직함 本州進士는 그를 예우해서 쓴 직함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金亮洙의 제명은 앞의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로서 제주인 韓禎裕의 제명과 함께 19세기 양반계층의 사회인식에 대한 변화 등

238) 金燦洽,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131쪽.

239) 『崇禎紀元後五甲戌增廣別試司馬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13LB 37]).

240) 이와 관련하여 작자미상의 『小華集』(吳文福 소장 영인본)에 평양 출신으로 구한말에 제주에 들어와 본도의 문사들과 교유하였던 劉淡(金錫翼, 앞의 책, 321쪽)이 김양수가 병방이 된 것을 조롱한다는 짧은 서문과 함께 그의 행적을 비웃는 다음의 시 2수가 전한다. ‘處女家. 西隣處女髮星星 冰玉持心不下庭 一夜春情禁未得 柴門晝出立亭亭’ ‘行路難. 人間遊客各殊程 或走山林或市城 却是非山非市處 故人出脚竟何情’.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기타 인물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는 현직관료와 유배인, 제주출신 인물 등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 이외에도 어사·유배인의 사적, 절부의 정려 등과 관련된 석각이 확인된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과 수행인원 외에 이러한 석각의 주인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어사

제주도내 마애석각 중 어사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는 1794년(정조 18) 3월에 내도한 어사 沈樂洙 관련 석각이 유일하다. 어사로 내려왔던 당시의 事跡을 문장으로 백록담 동벽에 새겨놓았다. 刻文은 다음과 같다.

恩坡退士²⁴¹⁾沈公樂洙 以巡撫御史來過甲寅春

“은파퇴사 심낙수 공이 순무어사로 백록담을 1794년(정조 18, 갑인) 봄에 지나 갔다.”는 내용이다. 심낙수는 1793년(정조 17) 12월, 제주에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었는데 6백여 명의 餓死者를 낸 제주목사 李喆運의 죄상을 규찰하기 위해 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使로 제주에 왔다. 어사로 파견될 당시 한라산신제를 지내도록 하교 받았는데,²⁴²⁾ 이때의 사적을 기념하여 새긴 것이다.

그런데 각문의 沈公이란 표현으로 보아 석각은 심낙수 자신이 주도하여 조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낙수의 사적을 새긴 석각은 동벽의 암반 상단부에

241) 恩坡는 심낙수의 호이며, 退士는 속세를 떠나 조용한 草野나 深山, 절에 들어가 도를 닦는 선비를 뜻하는 말이다. 심낙수는 1795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고 고향인 坡山에서 은거하다가 죽었다. 이를 통해 백록담 심낙수 관련 석각은 당시에 새겨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42) 『正祖實錄』 卷38, 正祖 17年 11月 14日 癸卯條; 같은 책, 17年 11月 24日 癸丑條.

벽면을 가로 55cm, 세로 80cm로 평평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갈아낸 다음 각자를 새겼다. 심낙수 각자와 인접한 암벽에 干支 없이 單名으로 정의현감 남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또한 가로 27cm, 세로 40cm 정도로 표면을 갈아낸 다음 비슷한 크기와 서체로 각을 새겼다. 이를 근거로 심낙수 관련 마애석각은 정의현감 남수가 주도하여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2> 심낙수 어사 사적 각문과 남수 현감 제명

어사로서 심낙수는 왕명에 따라 문·무과를 시행하여 邊景鵬·夫宗仁·高鳴鶴·洪達勛·李台祥·鄭泰彦 등 문과 합격자 7인과 洪範翼 등 무과 합격자 7인을 전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였다.²⁴³⁾

조선개국 이래 제주에 파견된 어사들은 巡撫·按覈·賑恤·試才 등 각종 특별 임무를 띠고 내도하였다. 백록담의 심낙수 목사관련 석각은 제주 파견 어사와 관련된 몇 안 되는 사적 중의 하나이다.

1470년(성종 1) 李約東 목사가 凍死 등의 이유로 제주성 남문 밖 15리 지경에 제단을 창건하여 이곳에서 대신 한라산신제를 봉행하여 왔다. 하지만 특명을 띠고 온 어사인 경우 임금의 명령에 의해 백록담에서 한라산 산신제를 지낸 사실들이 여러 사료에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심낙수 목사 마애석각은 조선후기에 파견된 어사들이 왕명에 의해 직접 한라산을 등정하여 한라산신에게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게 했던 증거가 문헌이 아닌 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적이라 하겠다.

243) 『正祖實錄』卷38, 正祖 18年 4月 21日 丁丑條.

2) 유배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중 유배인 관련 석각은 앞서 살펴본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로서 정이환·임관주·윤상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배되어 떠난 뒤 이들의 자취를 기념하여 타인에 의해 조성된 마애석각이다. 조정철은 예외적인 경우로, 해배된 후 제주목사로 돌아와 종조부와 부친의 사적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유배관련 사적을 각석하였다. 이러한 석각의 주인공들을 유배시기²⁴⁴⁾에 따라 구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 金淨(유배기간:1520.8-1521.10)

17세기 : 李瀼(유배기간:1618.11-1623.3)

18세기 : 趙觀彬(유배기간:1731.12-1732.6) 趙榮順(유배기간:1754.11-1755.3)

趙貞喆(유배기간:1777.8-1790.9)

19세기 : 金正禧(유배기간:1840.9-1848.12) 崔益鉉(유배기간:1873.12-1875.2)



<사진 23> 김정·이익 제명

김정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영의정 정광필 등의 옹호로 錦山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목으로 이배된 이듬해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과거 금산에서의 유배소 이탈 문제로 인해 사약을 받고 제주에서 사망하였다.

이익(1579-1624)은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를 폐하려는 논의가 일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에 안치되었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 해배되었다.

244) 본문에 기재된 유배기간은 실록과 문헌자료를 근거로 유배와 해배의 명이 내려진 월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적거기간 제주인과의 교류관계 기록 등을 참조하여 조관빈과 최익현의 경우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조관빈(1691-1757)은 대사헌으로 1723년(경종 3)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일어난 신임사화의 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인 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적인 감정으로 대신을 논척하였다는 죄로, 조영순²⁴⁵⁾은 부수찬으로 왕세자에게 영의정 李天輔를 매도하는 글을 올린 이유로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조정철은 1777년(정조 1)에 姜龍輝 등이 정조를 시해하고 그의 이복동생을 옹립하려는 음모에 연루, 우의정 趙泰采의 증손임이 참작되어 되어 참형을 면하고 제주목에 유배되었다.

김정희는 1830년 생부 金魯敬이 尹商度의 옥사 배후 조종 혐의사건에 연루되어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사진 24> 최익현 제명(백록담)

최익현은 1873년(고종 10)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시책의 부패와 吏道の 퇴락, 대신들의 무능, 흥선대원군의 퇴진 주장 등의 상소로 인해 제주목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대원군의 퇴진으로 인해 정국의 형세가 바뀌어 1875년 2월 특별히 사면되었다.

조성된 마애석각의 주인공으로서 상기의 유배인들은 모두 중앙의 정계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선후기 당파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의 정객들로, 유배의 구실로 삼은 개인적 과실 혹은 연좌라는 죄목 이면에는 상대 봉당에 의한 정적제거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국왕이 법인 시절에 제주안치의 유형은 사형에 버금가는 중죄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상기 유배인 관련 마애석각은 후손의 이름으로, 혹은 이들을 추모했던 제주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타인에 의해 새겨진 유배인 관련 마애석각은 해배의 기쁨이라

245) 조영순은 1755년(영조 31) 1월 해남현으로 이치하라는 명이 떨어졌다(『英祖實錄』, 英祖 31年 1月 23日 乙亥條). 그런데 백록담 석각의 刻文에는 등정일자가 이해 3월로 되어있다. 일기불순 등으로 인해 하달된 명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移配 되기 전 한라산을 등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보다는 해배의 정당성을 돌이켜다 각인시켰다는 느낌이 강하다. 예로써 유배인에서 제주목사로 돌아와 백록담에 마애석각을 조성한 조정철의 조관빈·조영순·조정철 사적관련 마애석각의 刻文을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임자(1732) 3월, 조관빈은 대사헌으로 간언한 일 때문에 유배되어 정상에 올랐다.(원문:부록 <별표-3> 9번 참조)
- ② 조영순은 부수찬으로 간언한 일 때문에 유배되어 (선대를) 이어 정상에 올랐다. 을해(1755) 3월.(원문:부록 <별표-3> 10번 참조)
- ③ 조정철이 정유년(1777)에 이곳으로 귀양 와서 경술년(1790)에 떠났는데, 신미년(1811)에 방어사로 (선대를 이어) 정상에 올랐다.(원문:부록 <별표-3> 8번 참조)

곧 조정철은 ①에서 종조부가 행한 상소의 정당함을, ②에서는 부친의 영의정 비관 행위의 정당성을, ③에서는 자신의 제주유배가 무고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부친 또한 무고하고, 자신 또한 무고하기에 몇몇이 선대를 이어 이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마애석각을 빌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면의 의미가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과 이익, 최익현 각자를 조성한 이기온 등은 이들 유형의 부당함 혹은 해배의 당연한 귀결을 마애석각의 제명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주인들에게 죄인이라는 인식보다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김정인 경우, 1578년(선조 11) 제주관관 趙仁後가 그를 추모하여 적거유허지에 冲菴廟를 세웠는데, 여기에 1660년(현종 1) 이피 목사가 현 오현단 자리에 학사인 藏修堂을 짓고 장수당 남쪽으로 충암묘를 이설하여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다. 이후 1682년(숙종 8)에 굴림서원으로 사액 되었다. 결국 김정의 존재가 제주유림의 구심체가 된 굴림서원 설립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정이 제주에 머무른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1892년(고종 29) 조천리의 金羲正이 제주유림을 규합하여 훼손된 굴림서원의 자리에 현재의 오현단을 조성할 때까지 제주 유림사회에 그가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익은 제주유배 중 獻馬功臣으로 일컬어지는 金萬鎰(1550-1632)의 딸을 맞아 아들 李仁濟를 낳았는데, 이인제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에 남아 경주 이씨 제주

입도조가 되었다. 유배인의 신분으로 당대 제주의 별문인 경주 김씨와 통혼할 만큼 이익의 존재가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인제는 방선문에 최익현과 함께 제명을 남긴 이기온의 8대조이다. 이인제의 아들 李炆(1650-1708)은 숙종 때 유배 온 金鎭龜(1651-1704)와 교분이 깊었으며, 1680년(숙종 6)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訓練判官에 이르렀다. 이운의 아들 李重發(1678-1716) 또한 문학에 뛰어났고 교육에 종사하였는데, 洪重徵 목사의 명을 받아 제주향교 청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제주사회에 정치·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정철의 경우 혹독한 유배생활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엄금되어 14년을 제주목과 정의현에 머물러 있었기에 알려진 문인이 없다. 하지만 그가 남긴 『靜軒瀛海處坎錄』을 보면 李昌夏 등 제주인의 출입이 보인다.²⁴⁶⁾ 그에게서 학문적 사상적으로 교화되었던 제주인이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정희에게는 유배 당시 제주의 많은 유생들이 從遊하였다. 金錫翼에 의하면 李漢雨는 시, 朴癸瞻(1824-1850)은 글씨, 姜道渾(1816-?)은 난초를 익혔고 또한 姜琦奭(1822-1878)·李基肇(1826-1849)·金九五(1822-1900) 등 당시 수많은 名士들이 추사에게 배웠다.²⁴⁷⁾ 특히 박계첨·강도훈·김구오는 추사의 3대 문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익현에게도 많은 선비들이 종유하였는데²⁴⁸⁾, 해배되어 떠나기 전 앞서 살펴본 오라촌 이기온 등의 鄉士들과 한라산을 등정하여 「遊漢拏山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최익현의 위정척사사상은 이기온과 그의 아들 이용호 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마애석각 중 타인에 의해 조성된 유배인 관련 마애석각은 조선후기 제주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들이 끼친 사상적·문화적 영향들이 현재 제주문화 원형의 일부를 이루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라 할 것이다.

246)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卷3, ‘自余入島之初 有李君昌夏…吟此一絕’.

247) 金錫翼, 『破閒錄』上, 『心齋集』(II), 濟州文化社, 1990, 320쪽.

248) 유한라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롯하여, 최근 발굴된 金義正의 『海隱文集』(필사본)에서도 당시 제주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유림들이 최익현과 교류하였던 기록들이 보인다. 해은 김희정 관련사료에 대해서는 김일우, 「朝鮮後期 이후 제주 金義正 家系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韓國人物史研究』 제17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 참조.

3) 절부

절부암 마애석각의 주인공 제주 고씨는 高應秋의 딸로 1835년(헌종 1)에 태어나 1853년(철종 4) 業武 康士喆에게 시집갔다. 용수리 소장 「節婦岩傳說」에 의하면 강사철의 아버지는 康聖一로 서귀포시 하원동 출신이며, 절부 고씨의 아버지 고응추는 중문면 하원리 출신이다. 조상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으로, 강사철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출가한 누이의 시집인 瓦浦(현 용수리)에서 성장했다²⁴⁹⁾. 혼인한 그해 11월 13일 강사철이 차귀도에 대나무를 베러 갔다가 배가 뒤집혀 죽고 말았다. 남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자 그달 15일 용수리 바닷가, 속칭 ‘영덕동산’ 절벽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그 후 3일이 지나자 고씨가 목을 맨 바위 아래로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다고 한다.²⁵⁰⁾ 강사철과 합장되었고 비문 또한 절부암 석각 조성을 주도한 신재우가 1867년(고종 4)에 직접 지었다. 비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남녘 일주도로 인근에 있다.

249) 高在鴻 撰, 「節婦岩傳說」, 용수리, 2009, 3쪽.

250) 절부 고씨의 생몰년 및 강사철과의 혼인일자 등은 기록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문의 일자는 절부 고씨의 비문에서 확인하여 기록한 것이다.

IV. 결론

제주지역 마애석각인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한 방문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題名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刻文이 새겨져 있다 해도 題詠이고, 사적을 새겨 넣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에 의문을 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별 분포지에 산재한 마애석각들을 제주라는 일정 공간 내에서 조선후기 당대 인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물로 파악할 때 문헌사료에 못지않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지역별 분포와 내용, 제명 인물들에 대한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목의 용연, 방선문, 백록담이 주요 분포지이고 이외에 대정현 산방굴사에 다소의 마애석각이 분포한다. 현재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 중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연대가 확인되는 마애석각은 모두 95건이다. 제주목 관내에는 조선후기 전체 마애석각 대비 84%에 해당하는 80건이 집중 분포하는 가운데 용연, 방선문, 백록담에 72건이 분포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용연과 방선문은 제주읍성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백록담은 조선시대 이래 名山大川에 대한 典禮와 기우제 등을 지내기 위한 어사와 지방장관들의 등정 외에 白鹿과 신선의 전설로 인해 한라산 등정을 목표로 한 기행이 조선시대 내 이어졌기 때문에 이상의 3곳에 집중적으로 마애석각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6건의 마애석각이 확인되는 대정현과 정의현은 13건의 개체수가 확인되는 산방굴사에 집중 분포하며, 이외의 지역에는 극히 소수만이 분포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경 내에 정방폭포나 천지연, 천제연 등 제주의 절경으로 찬탄되던 명소가 소재하지만 3읍의 治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석각 조성의 주도인물인 지방장관 등이 쉽게 채비하여 나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지리적 요건 등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17세기 중반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마애석각은 18세기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19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다. 내용에 있어서도 17세기 제명과

제액 위주에서 18세기 이후 제영을 비롯한 유다른 석각이 나타난다. 17세기 3건에 불과했던 마애석각은 18세기 석각 조성 주도인물 1인이 2곳 이상의 장소에 마애석각을 남기는 등 제주지역 승지에 대한 본격적 탐승이 이루어지면서 총 47건으로 개체수가 늘어난다.

또한 18세기에는 제영과 목사·어사 사적 관련 석각, 書生들의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새겨진 산지천의 지주암 석각 등 단순한 제명이나 제액과는 성격이 다른 석각이 등장한다. 이러한 유형의 마애석각은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성된다. 院生들에게 학문에 대한 경외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새겨 놓은 오현단의 증주벽립 석각과 정려되지 못한 절부를 기리기 위해 새긴 용수리의 절부암 석각이 나타나고, 조정철 목사에 의한 유배관련 마애석각이 조성되기도 하면서 이전 시기와 비슷한 건수의 마애석각이 지속적으로 조성 된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제주지역 행정체제의 개편과 거듭되는 민란의 영향으로 마애석각은 다시 제주목에 한정되어 조성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셋째, 마애석각은 제주지역에 파견된 지방관 등에 의해 처음 조성되다 19세기에 이르러 제주인들에 의해서도 조성된다. 17세기에는 제주목사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다가, 18세기 이후 제주관관과 대정·정의 현감을 비롯하여 유배인들에 의해서도 조성되어졌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주도인물로서 제주 출신 전 명월만호 김종보 일행에 의한 마애석각이 조성되고, 중반 이후 제주목 오라촌 출신의 향사 이기온에 의한 김정과 이익, 최익현의 제명과 제주유림으로 구성된 사회에 의한 마애석각이 조성되기도 한다. 지방관이나 유배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마애석각 조성이 이 시기에 와서 제주인들도 주도인물로 참여하는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상을 통해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대부분은 조선시대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산관행과 관찰사에 준하는 제주목사의 특수한 직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유교를 숭상하고 道學을 수양의 궁극적 방편으로 삼았던 조선의 유학자 관리들에게 있어 勝景을 찾아 유람하는 관행은 조선전기 제주목 용연에 행서체 翠屏潭 각자를 남겼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어사 김상헌의 ‘題詩石上’이나 판관

김치의 ‘又掃石題名 以記勝跡’의 기록에서처럼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들에 의해 탐승의 자취를 巖面에 붓으로 쓰거나 刻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17세기 중반 용연에 마애석각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용연에 한정되어 조성되던 마애석각은 18세기 이후 제주 3읍의 경승지로 확산된다. 여기에는 제주목 외에 대정·정의 두 현을 감독 관할하여야 하는 제주목사의 제주 3읍 순력 과정에서의 승지 탐방이 마애석각 조성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은 당시 제주지역 통치체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7세기 마애석각 조성 배경을 살펴보면 제주목사는 野遊를 통해 제주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규합을 도모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조선 건국 이래 재지품관과 향리들의 세력을 억제하는 일련의 정책이 이 시기에 와서 안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세기 이후 마애석각 조성의 주도인물로서 제주관관과 대정·정의 양 현감의 미미한 수치는 제주목사 감독 하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제주지역에서의 통치행정적 입지를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정의현감 강연의 경우에서처럼 관관의 수행인원 명단에 보이는 현감 제명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 3읍 체제에 있어 현감이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의 부관인 관관에게도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조선후기 제주에 부임한 지방관을 따라왔던 인물의 구성요소와 규모를 보여준다. 제주지역에 파견되는 수령은 공식적으로 未挈家수령으로, 처나 자제 등의 식솔을 데리고 갈 수 없었다. 또한, 燕行使臣처럼 군관으로서 자제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조항은 법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애석각에 보이는 지방장관의 수행인원 중에는 자제와 형제친족들로 보이는 인명이 확인된다. 특히 제주목사의 수행군관은 제주목사 부임당시 啓請하여 데리고 온 혈연과 지연 등에 의한 인물들로 추정된다. 제주관관 또한 자제를 동반한 사례가 보인다. 이제까지 목사와 관관, 현감 부임 시 제주에 함께 왔던 이들에 대한 규모와 행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마애석각에 보이는 목사와 관관, 현감의 수행인원은 문헌에 드러나지 않은 지방관의 사적 막료집단의 구성과 규모, 성격 등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들이 제주지역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사회상을 밝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넷째, 조선후기 중앙과 제주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온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한다.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은 총 294인이다. 이를 시기별로 분류하면 17세기 35인, 18세기 114인, 19세기 145인이다. 현직관료로는 어사 1, 목사 39, 판관 20, 대정현감 5, 정의현감 6, 교수 3, 심약 1, 역학 3인이다. 이외에 목사와 판관이 데리고 온 군관 약 99인, 목사·판관·현감의 자제와 형제친족 등 기타인물 65인과 정객으로 제주에 안치되었던 유배인 9인의 인명 등 17세기 이래 제주지역을 거쳐 갔던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 역사현장에 1차 사료로써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전 명월만호 김중보 일행으로 시작되는 19세기 제주인 43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당시 제주지역 향촌사회를 주도해 나갔던 유력인사들로 파악된다. 마애석각은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역할과 위상뿐만 아니라 19세기 제주지역 사회 내에서의 유림계의 동향, 신분제 동요에 따른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양상, 서양 열강에 의한 문호개방과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따른 제주지역사회에서의 유림들의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다섯째, 조선후기 봉당과 세도정치 하에서 행해지던 중앙의 정치행태를 반영한다. 마애석각 조성의 주요인물인 정이환, 임관주, 윤상화 등과 마애석각의 주인공으로 조관빈 이하 3대의 석각과 김정, 이익, 최익현의 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지역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과 석각의 주인공 중 유배인들은 모두 중앙 정계에서 요직에 있다가 당파간의 갈등에 의한 정적제거 요인 등에 의해 제주에 유배 온 이들로써 이들의 제명은 당대 조정의 정치행태를 반영한다 하겠다.

여섯째, 유교주의에 입각한 조정의 治民정책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은 건국이념의 하나로써 송유배불을 내세워 정치·문화·사상계의 지도이념으로 유학을 주창하였다. 18세기 전반 김정 목사에 의해 조성된 지주암 제액을 비롯하여, 19세기 후반 오현단의 증주벽립과 절부암의 마애석각을 통해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제주지역 향촌사회를 교화하고자 했던 조정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일곱째, 중앙의 문물이 제주지역에 유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 의해 유행한 마애석각의 조성은 제주에 파견된 지방관들에 의해 조선후기 제주 3읍으로 전파되었고, 19세기에 와서는 제주 출신 식자층에 의해서도 마애석각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마애석각의 유입과 제주 3읍 확산

과정은 외부 문물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그것의 금석문으로써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밝혀 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인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한 제주판관과 현감, 제주목사와 그가 계청하여 데리고 온 군관과의 관계 해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본 논문에서 논의로 했던 문화사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사료와 사료집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同文彙考』

『萬機要覽』

『續大典』

『六典條例』

『日省錄』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國朝文科榜目』

『武科及第先生案』, 三姓祠 所藏 筆寫本

『武譜』天·地·人

『上之三年癸卯討逆庭試別試文武科榜目』

『崇禎紀元後四庚午式司馬榜目』

『王世子冊封慶龍虎榜』

『乙巳王世子冊禮及痘患平復二慶庭試別試文武科榜目』

『丁酉式年司馬榜目』

『濟州束伍軍籍簿』

『耽羅防營總攬』

『勉菴集』
『牧民心書』
『小華集』, 吳文福 所藏 影印本
『阮堂先生全集』
『耽羅巡歷圖』
『耽羅誌』, 日本東京大學校所藏本
居昌愼氏大宗會, 『居昌愼氏世譜』 卷二, 起昌族譜社, 2009
濟州夫氏門中會總本部, 『濟州夫氏族譜』 卷之一, 起鍾族譜社, 1995
『延安李氏三陟公派譜』 卷之一, 和信文庫, 延安李氏三陟公派譜刊行委員會, 1997
『慶州李氏松巖公派譜』 甲九
高炳五, 『元大靜郡誌』, 大正역사문화연구회, 2006
金尙憲 著, 洪琦杓 譯註, 『南槎錄』 譯註(上), 濟州文化院, 2008
_____, 『南槎錄』 譯註(下), 濟州文化院, 2009
金錫翼, 『心齋集』 (II), 濟州文化社, 1990
金允植 著, 金益洙 譯, 『續陰晴史』, 濟州文化院, 2010
金 倣 著, 金益洙 譯, 『蘆峰文集』 卷一 詩集, 濟州文化院, 2001
_____, 『蘆峰文集』 卷之二·三·四, 濟州文化院, 2003
金滢植 著, 吳文福 譯, 『革菴散稿』, 북제주문화원, 2004,
金義正, 『海隱文集』, 筆寫本
南九明, 『寓庵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2010
南萬里, 『耽羅誌』,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淡水契, 『增補耽羅誌』 (影印本), 제주문화원, 2004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蔚山金石文』, 2013
李源祚, 『耽羅錄』,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_____, 『耽羅誌草本』,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_____, 『耽營關報錄』,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李元鎮, 『耽羅志』,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1
李應鎬, 『震翁先生詩稿』, 李鍾億 所藏 筆寫本
李瀾, 『艮翁遺稿』, 1996年 重刊本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濟州文化院, 2010
 李增 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李衡祥, 「南宦博物」, 『續耽羅錄』, 濟州文化放送, 1994
 _____,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林悌, 「南溟小乘」, 『白湖先生文集』
 張寅植 編, 『耽羅誌』(影印本),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9
 趙貞喆 著, 金益洙 譯, 『靜軒瀛海處坎錄』, 濟州文化院, 2006
 韓國學文獻研究所 篇,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六 濟州道, 亞細亞文化社, 1983
 홍순만 외 역, 淡水契 편,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 연구논저

1) 자료집 및 단행본

葛城末治, 『朝鮮金石考』, 亞細亞文化社, 1979
 강화군·강화문화원, 『江華金石文集』, 2006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1997
 구인환 엮음, 『배비장전』, 신원문화사, 2003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각석』, 2011
 金奉鉉 著, 洪性穆 譯, 『濟州島流人傳』, 耕信印刷社, 2005
 김희정 저, 백규상 역,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41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서울特別市, 『서울文化財大觀』, 三省出版印刷株式會社, 1987
 吳文福,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_____, 『耽羅詩選』, (주)이화문화출판사, 2006
 任昌淳, 『韓國 金石集成-先史時代』, 一志社, 1984
 제주교육박물관, 『제8회 기획전-탐라의 효자·열녀전』, 2001
 濟州道·濟州東洋文化研究所, 『濟州道 磨崖銘』, 1999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濟州의 옛地圖』, 日新畝셋印刷社, 1996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道誌』 第2卷, 제주도, 2006

濟州市, 『濟州市 碑石一覽』, 세림원색인쇄사, 2002

濟州文化院,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2000

제주시,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5

제주시·제주발전연구원, 『용연·용두암 유적지 문화재자원 조사』, 2000

趙東元, 『金石文論著總覽』,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현행복, 『방선문』, 도서출판 각, 2004

_____, 『취병담』, 도서출판 각, 2006

2) 논고 및 논문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道研究』 제3집, 1986

具玩會, 「朝鮮時代 觀察使의 幕僚組織-裨將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8, 조선사 연구회, 1999

金東柱,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_____, 「濟州牧의 官衙施設」, 『고문화』 42·4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3

_____,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創刊號, 濟州島史研究會, 1991

_____, 「朝鮮前期 守令制度 研究」, 『史學志』 21, 1987

金榮官, 「中國 發見 百濟 遺民 祢氏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 24, 2012

김일우, 「朝鮮後期 이후 제주 金羲正 家系の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韓國人物史研究』 제17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

김종찬,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에 대한 일고찰」, 『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13

金昌鎬, 「韓國의 金石文」, 『古文化』 4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4

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낮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제39호, 한국역

- 사민속학회, 2012
- 閔德植, 「高句麗 秦川 籠吾里山城 磨崖石刻에 대한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제11집, 고구려발해학회, 2001
- 徐榮洙, 「廣開土大王碑文의 연구사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고구려발해학회, 1995
- 손태도, 「전통 사회 지방의 산대회, 나례회와 그에 따른 현장」, 『역사민속학』 1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 吳松喜,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2
- 윤아영, 「영조의(迎詔儀)시 도상 나례(途上 儼禮)의 점입과정 및 성격에 관한 연구」, 『韓國音樂研究』 第50輯, 한국국악학회, 2011
-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대한 小考(朝鮮中期 以後 中心으로)」, 『調查研究報告書』 제4집,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89
- 이재석, 「한국의 개국과 전환기의 국제교역환경」, 『韓國政治外交史論叢』 第22輯 1號, 2000
- 李鍾默, 「遊山の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藏書閣本 『臥遊錄』 과 奎章閣本 『臥遊錄』 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第12輯, 1997
- 李義權, 『祖先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 전영준, 「문화사교육 콘텐츠 구성을 위한 금석문 자료의 활용-강화도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8
-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009
- 趙東元, 「金石文의 歷史와 資料的 價値論著總覽」, 『대동문화연구』 권55, 대동문화연구원, 2006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 조인성, 「실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연구의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2011
- 洪淳晩, 「徐福研究에 관한 概說」, 『正房瀑布徐福遺蹟調查報告書』, 耕信印刷社, 1992
- 洪順錫, 「抱川郡 蒼屋屏의 岩刻文에 대하여」, 『郷土史研究』 6, 1994

부록

〈별표-1〉 17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²⁵¹⁾

연 번	판 독 문	서체 크기	조성 연월
1	仙遊潭//牧使 李 檜/判官 金 雨/士人 崔 佖/軍官 梁宇標/金梯 建/李 裳安孝曾/郭國柱/朴孝元/(蔡)有曄/教授河晉善末/至居客之 右/戊戌仲秋書(용연) ※仙遊潭 題額만 橫으로 새김.	해서 30×25	1658.8
2	碧泓/仙查錄/節制使李翊漢/判官羅八紀/教授鄭 曙/軍官崔尙勳/ 鄭俊立/高致遠/劉興國/趙機善/姜渭迎/○○(諺)/癸卯/元月(용연) (刻文:좌→우)	" 10×17	1663.1
3	同遊錄/牧使元 相/判官姜聖佐/教官鄭維蒿/軍官愼而言/李 (發)/ 宋繼宗/元戴賢/徐道謙/朴 壽/朴 瑄/崔峻興/譯學李惟亮/審藥卞三 傑/康熙十九年七月 日//元德和(용연)	" 4×4.5	1680.7

- 251) 마애석각에 새겨진 刻文은 일반적인 한문쓰기 형식인 우→좌, 세로쓰기로 되어있다. 이를 打字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리하였다.
1. 판독문은 각문의 한문쓰기 형식인 우→좌, 세로쓰기를 좌→우, 가로쓰기로 고쳐 옮겼다. 각문 형식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판독문의 끝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2. 刻文의 列이 바뀌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3. 刻文의 문자열이 上下로 위치를 달리 하여 새겨진 경우 '//로 표시하였다.
 4. 刻字의 판독이 불분명하여 필자 自意로 판단한 글자는 ()로 처리하였다.
 5. 刻字가 마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된 글자수만큼 ○로 처리하였다.
 6. 刻字의 띄어쓰기는 마애석각 刻文의 형식을 따랐다.
 7. 마애석각의 분포지를 판독문 끝 () 안에 표기하였다.
 8. 마애석각의 조성연월은 각문의 干支에 의거하였고, 간지가 없는 경우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인 목사, 판관 등의 제주 재임기간을 표기했다.
 9. 독립된 巖面에 새겨진 2개 이상의 석각이 동일한 집단의 마애석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하나의 마애석각으로 처리하고, 그 독립된 석각의 刻文과 刻文을 *로 연결하여 표시하였다. 단, 金淨 李瀾 崔益鉉 각자인 경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인 또는 동일 집단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여겨지나, 각각의 제명이 세 인물의 개별적 사적을 함축하고 있어 별도의 건수로 처리하였다.
 10. 분포표의 연번은 마애석각 조성 주도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하나의 □ 안에 연이어 썼다.
 11. 글자크기는 첫 글자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단위는 cm이다. 단, 기준 되는 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글자 아래에 선으로 표시 하였다. 예. 砥柱巖
 12. 다음의 각 시기별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도 이상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리하였다.

<별표-2> 18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

연번	관독문	서체 크기	조성 연월
1	雙溪石門/判官鄭東里/散人許運/閔廷楫/金時鎭/歲丁未八月初吉日識//月老女媧天/岩開大禹斧(방선문) ※새김형식:좌→우	해서 4.5×5.5	1727.8
2	砥柱岩(산지천) ※橫으로 새김.	" 11×16	1735.4 -1737.9
3	嘉樂川(산지천)	" 10×17	
4	朝天石(산지천)	초서 80×60	
5	登瀛丘/石竇呀然處/巖花無數開/花間管絃發/鸞鶴若飛來/洪重徵題/己未首夏*權世恭/己未首夏/申德涵/朴壽鳳(방선문)	" 16×20	1739.4
6	翠屏潭/洪重徵題/己未夏*朴壽鳳/軍官世恭/申德涵(용연)	" 12×21	1739.夏
7	安致範/庚申九月日李寅輔書(용연)	해서 39×36	1740.9
8	防禦安慶運/子取範進士/致範/軍官林貴春同知/丁志升武兼/禹世起折衝/李寅輔/金敬吾/辛酉三月(용연)	" 5×4.5	1741.3
9	防禦使安慶運/子致範/軍官李演輔書*審藥/張鳳徵/倭學/劉廷禧*林貴春/丁志升/南得遠(방선문)	" 18×17	1740.9 -1743.3
10	牧使金潤/黃奎鉉/金澈//甲子首夏(방선문)	" 13×14.5	1744.4
11	尹植/尹權/尹命勳/尹基/乙丑五月/尹命兼/權德行/成永夏/朴堯/孟仁行/洪重健(백록담)	" 7×7	1745.5
12	白宅仁子師喆/李(達)弘(산방굴사)	" 5×7	1748.7 -1751.4
13	瀛洲伯尹九淵/軍官閔震/柳敏章/梁泰重/柳獻徵/張紀龍/壬申孟春(방선문)	" 16×20	1752.1
14	牧使金夢燿/軍官李涉/趙泰敏/辛一東/鄭彦佐/金德基/鄭東羽/崔倬/癸酉仲春*成漢宗/金肅基/金郁基(용연)	" 8×8	1753.2
15	瀛洲伯金夢燿/子肅基/郁基/軍官辛一東/鄭彦佐/金德基/鄭東羽/崔倬/李宗芳/洪愼健/審藥李禧大/甲戌首夏*成漢宗/崔命祚(방선문)	" 15×14	1754.4
16	牧使金夢燿/李凌/軍官辛一東/崔倬/李道三/判官朴昌鳳(산방굴사)	" 7×6	1752 -1754.10

연 번	관 독 문	서 체 크 기	조 성 연 월
17	判官朴昌鳳/甲戌初夏(방선문)	해서 9×9	1754.4
18	甲戌仲夏/判官朴昌鳳(용연)	" 7×8	1754.5
19	乙亥初夏/防禦使洪泰斗/軍官李問樞/崔濬文/判官安世濶 (방선문)	" 10×8	1755.4
20	戊寅二月十七日登此/新伯趙威鎮/舊伯李潤成(백록담)	" 7×5	1758.2
21	東西南北海插撐一/峰浮獨立乾坤大/居然最上頭/鄭履煥身之/丁 亥四月日題白鹿頂上(백록담)	" 6×10	1767.4
22	南益祥/丁亥秋(용연)	" 12×14.5	1767.秋
23	南益祥/南峴/戊子四月//劉錫孝/金重運客從/愼基慶/戊子初夏登 (백록담)	" 6.5×7	1768.4
24	任觀周/始出荊門日/先尋枕下川/蒼巖三曲立/短瀑晚風邊/丁亥 秋(창고천)	" 11×7	1767.秋
25	白鹿潭流水/爲淵大海濶/兩崖皆翠壁/歸客片舟尋/任觀周/丁亥 季秋(용연)	초서 4.5×4.5	1767.9
26	茫"滄海闊/一拳漢孛浮/白鹿仙人待/今登上"頭/丁亥秋任觀周 (백록담)	" 6×8	1767.秋
27	任觀周/天地淵開大瀑流/移來葦石壁深湫/空中負箭葛人步/第一 奇觀此射幘/丁亥季秋(친제연)	" 8×7	1767.9
28	任觀周/石作神仙窟/方山漏滴空/南天蒼海濶/吳楚一望中/丁亥 秋(산방굴사)	" 8×7	1767.秋
29	宋益彩(산방굴사)	해서 6×5	1767.6 -1770.5
30	黃德彬/(沈)○之/梁埴/辛卯(백록담)	" 6×5	1771
31	耽羅伯朴聖浹/軍官朴聖漢/趙益祥/李聖儒/姜遇周/金載赫/韓相 五/審藥梁慶柔/甲午初夏十日過此(방선문)	" 6×6	1774. 4.10
32	牧伯柳懋節度使去(용연)	" 9×7.5	1776.3
33	喚仙臺/別壑乾坤大石門日月閑莫云/無特地眞箇有神山花老三/	초서	1779.3

연번	관독문	서체 크기	조성 연월
	春色岩蒼太古顏憂然鳴鶴/至知是在仙間己亥春金永綬/己亥季春/子樂園/尹進五/朴宗玉(방선문)	23×37	
34	入洞山如揖嵌室危欲墜/瀛丘我亦仙玉斧鑿何年/玉溪逍遙生韓昌裕(방선문)	해서 7×9	
35	離名何太古雲鎖九龍淵/居五須居九在天悔在田/行藏得中正秘顯體方圓/一理明無昧物然我亦然/偷閑肩輿過特地遠人烟/海濶千年國龍藏九曲淵/古名真有意今賞豈非/緣樂而忘不返朝日已西天/龍湫回九轉不幸海相通/莫遣桃花水恐牽世客/蓬金永綬醉題于庚子春/子樂園(용연)	초서 4.5×6	1780.春
36	海以兼山隱一潭/石門相拱翠屏深/題名欲借洪厓手/白鹿霞標遠遠尋/玉溪韓昌裕(용연)	행서 6×6	
37	回回蒼壁轉/悅與武陵通/忽看片舟至/却疑漁子蓬/尹進五(용연)	" 6×4.5	
38	李養鼎/李景麟/張 澐/羅東善/李儒謙(용연)	해서 10×16	1781.7 -1782.1
39	李養鼎/李亨默/羅東善(백록담)	" 13.5×16	
40	李儒謙/張 澐/牧使李養鼎/佐幕李景麟(산방굴사)	" 15×15	
41	李養鼎/李亨默/羅東善(정방폭포)	"	
42	嚴璿/任斗材/嚴思晚/李命啓/韓濟億/南履觀/尹濟商/丁載遊/癸卯九月日(백록담)	" 6×6	1783.9
43	府伯尹得達/子翎東/從子養東/冊室玄鎮澤/金 桓/軍官金述曾/尹得敦/姜文一/丙午四月//訪仙門(방선문)	" 25×26	1786.4
44	李命俊(용연)	" 16×22	1786.4 -1788.3
45	李命俊(방선문)	" 20×20	
46	金鳳吉(방선문)	" 17×14	1788.1 -1790.8
47	恩坡退士沈公樂洙/以巡撫御史來過/甲寅 春*南凍(백록담)	" 10×9	1794.春

<별표-3> 19세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분포표

연 번	관 독 문	서 체 크 기	조 성 연 월
1	牧使鄭觀輝(방선문)	해서 13×12	1799.12 -1802.3
2	次壁上韻/亂石沈雲合幽花/向日開仙人不可見我/輩祗空來/韓鼎運(방선문)	초서 9×11	1807.3 -1809.1
3	次壁上韻/衰草山門寂蒼藤石室空/似聞笙鶴響來自海雲中/丁卯牧使韓鼎運(산방굴사)	해서 3×3	1807
4	四海環千里/三山鼎半空/乃知仙子所/天作一壺中/縣監元相堯/丁卯五月 日(산방굴사)	" 4×2	1807.5
5	韓吉謨/呂喆永(산방굴사)	" 10×12	1809.1 -1810.2
6	侄義達/牧伯李顯宅/判官孫應虎/旌義盧尙熙/軍官金漢恂/權啓東/韓永履/李顯謨(방선문)	" 8×6	1810.2 -1811.6
7	牧使李顯宅(산방굴사)	" 7×6	1809.1 -1811.5
8	趙貞(喆)×/丁酉以前×/被謫庚戌(月)×/趙貞(喆)/辛未以防×/使(繼)登絕(頂)(백록담)	" 20×17	1811
9	壬子三月/趙觀彬/以大司憲言事/被謫登此絕頂(백록담)	" 14×13	1811
10	趙榮順/以副修撰言事/被謫繼登此頂/乙亥三月(백록담)	" 13×12.5	1811
11	金鍾輔/夫士簡/李膺良/洪範植/張文明/辛未(백록담)	" 7×8	1811
12	石勢龍頭壓禪居鳥/夢空靄雲生鳥底靈/液滴房中/壬午三月日具齡錫次(산방굴사)	" 3×3	1822.3
13	李必述子斗南/金在浩/康 (綰)/洪良(燮)/李○○/蔡○○/○○○○/○○○○(방선문)	" 6×10	1825.5 -1827.2
14	浦口吞紅日山肩/荷白雲清遊/宜此夕携酒且/論文/判官李義謙/戊子四月初一日(방선문)	" 4×6.5	1828.4.1
15	牧使朴長復/乙未八月十一日(백록담)	" 6×5	1835. 8.11
16	牧使趙禹錫/趙義經/幕賓趙禧錫/咸永述/朴裕源/判官申義恒/李寅和/金秀男/劉永勳/文命新/丁酉五月日(백록담)	" 8×10	1837.5

연 번	관 독 문	서 체 크 기	조 성 연 월
17	牧使趙禹錫/判官申義恒/幕賓趙禧錫/咸永述/朴裕源/趙義經/金秀男/卞恒遠/劉永勳/李明秀/金菊逸/笙文命新/琴金致元/丁酉九月日(탐라계곡)	해서 10×9	1837.9
18	牧使趙禹錫/判官申義恒/大靜安允璟/旌義(安)義錫*幕賓趙禧錫/咸永述/朴裕源/金秀男/劉永勳*笙文命新/琴金致元/丁酉×月日(산방굴사)	" 9×8	1837
19	李源祚/子鼎湘/奉硯安命岳//丁義成/李潞夏(방선문)	" 14×22.5	1841.윤3 -1843.6
20	牧(使)(張寅植)/○○崔炳吉/○○○/金○○○○/判官姜(在毅)(산방굴사)	" 8×11	1848.8 -1850.6
21	牧使睦仁培/子裕錫/甲寅四月 日(방선문)	" 12×12	1854.4
22	曾/朱/壁/立/後學蔡東健/後學洪敬燮/崇禎四丙辰摹刻(오현단)	" 50×64	1856
23	光風臺(오현단)	" 24×25	1856 전후
24	牧使姜冕奎/堂侄鎬/軍官李始愚/李啓奕/庚申閏五月晦日題(방선문)	" 7×7	1860. 5.30
25	牧使姜冕奎(산방굴사)	" 8×10	1860.윤3 -1861.2
26	出身康錫五/判官/白基虎/牧使/鄭岐源/甲子三月 日순(용연)	" 18×18	1864.3
27	趙義純(백록담)	" 7×7	1868.10 -1872.5
28	線通花徑轉/斧鑿石門開/已透參同秘/休嫌俗子來/己巳四月吉日/牧使趙義純(방선문)	" 6×6.5	1869.4.1
29	監董金應河書洞首李八根刻//節婦岳//同治/丁卯/年記/字平三*判官/愼栽佑撰(용수리) ※각문 중 監董에서 節婦岳까지는 橫으로 새겨져 있음.	전서, 해서 58×50.5	1869
30	參判崔益鉉/李基璠來/乙亥(방선문)	해서 10×8	1875
31	崔益鉉(백록담)	" 9×10	-19세기 말

연 번	관 독 문	서 체 크 기	조 성 연 월
32	金淨(백록담)	해서 13×12	
33	李瀆(백록담)	" 12×12	
34	靈泉(오라동 카카우니)	행서 10×13	
35	朴寅陽稼樊/耽羅命吏朴善陽/弟五衛將泰陽/子勝台/勝斗/軍官族人朴宗(誼)五衛將朴來敏/判官金東杓/本州進士金亮洙書/中房金仁宅/李昌基/壬午三月日(방선문)	해서 7×7	1882.3
36	判官 高景峻(방선문)	" 8×9	1883.8 -1885.4
37	知州沈賢澤/開國四百九十三年/朴箕壽/甲申四月日(방선문)	" 19×16.5	1884.4
38	謫客尹相和/甲申五月日(방선문)	" 8×7	1884.5
39	搜雲契/姜郁彬/韓禎裕/愼栽揆/金庸圭/金炳鎬/金啓柄/姜斗勳/姜遇伯/吳圭瀛/李能白/李鍊百/李源弼/文斗南/姜師鎬/朴南岳/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潤五月初五日(방선문)	" 7×7	1884.윤5
40	風詠錄/金鍾運/朴章鉉/玄商休/金性久/金應璜/兪晟煥/文斗燦/朴景亮/洪淳坤/文圭三/金謙集/梁錫圭/姜宗杓/金奉河/愼奎錫/金寅錫/金履珩/姜錫祚/李儀保/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閏五月初五日 辛巳春/金永權洪義杓/改修(방선문) ※1941.春 改修	" 8×5.5	"
41	牧使洪圭/軍官申鶴熙/李教晚/尹泳毅/乙酉//東帆洪埶(방선문)	" 10×11	1885
42	牧使沈遠澤/軍官朴永漢/沈相俊/朴章浩/丙戌九月 日/又西沈樂中(용연)	" 16×14	1886.9
43	牧使沈遠澤/軍官朴永漢/沈相俊/朴章浩/丁亥四月二十日/又西沈樂中(방선문)	" 17×15	1887.4.
44	牧使宋龜浩/子榮稷/冊室宋鍾奭/軍官宋元浩/尹斗成/皮秉奎/中房李仁典/己丑四月日(방선문)	" 11×11	1889.4
45	判官康仁鎬(방선문)	" 6×6.5	1889.4